

# 제3편

## 인하대학교의 발전과 국제화

### 제1장 발전방향의 모색 (1981.3~1994.2)

제1절 대학의 내실화

제2절 중흥과 재도약의 전기

제3절 中長期 발전계획

### 제2장 대학운영의 국제화 (1994.3~2004.2)

제1절 학사운영의 혁신과 국제협력의 강화

제2절 연구역량의 강화와 활동

제3절 자율권의 신장과 학생활동

# 제1장. 발전방향의 모색 1981. 3~1994. 2

## 제1절. 대학의 내실화

### 1. 대학 내실화의 추진

1976년 3월 15일 제2대 총장에 취임한 李在澈박사와 초대 부총장 朴泰源박사는 1981년 8월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재단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철총장은 그간 인하대학교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방면에 걸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강에 무리를 가져왔고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 사표를 냈던 것이다. 또한 박태원부총장은 이재철총장과 함께 학교발전에 고락을 같이 해온 저간의 사정에 따라 도의적인 면을 내세워 사표를 제출하였다.

재임 5년 5개월 동안 “세계속의 仁荷”란 명제 아래 학교발전에 추력해 온 이재철총



제4대 김희철 총장

장과 박태원부총장은 인하대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5호관을 비롯 6, 8, 9호관의 교사신축과 각종 경기장 및 환경조성사업을 완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실험실습기재를 비롯한 연구시설의 확충과 도서관 건립에 큰 힘을 쏟았으며, 특히 우수교수의 유치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재임기간 동안 모두 115명의 신입교수가 본교에 초빙됨으로써 1976년 이재철총장이 부임할 당시 108명이던 재직교수가 1981년에는 225명의 재직교수를 수용한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이재철총장과 박태원부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재단이사회는 1981년 8월 8일 총장직무대리에 대학원장 金熙喆박사를 선임하여 학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인하학원이사회는 김희철박사를 제3대 총장에 선임하였다.

1982년 12월 29일 인하대학교 제4대 총장 김희철박사의 취임식이 본교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취임식에서 조중훈이 사장은 신임 김희철총장에게 임명장과 교기 및 총장패 등을 전달하고 치사를 통해

“그동안 인하대학교는 어제와 오늘에 있어서 정신적인 투지로 변함없이 국가발전과 발맞추어 착실히 성장의 진일보를 내딛고 있으며 그 성장의 기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후 김희철총장에게 “오늘 김희철박사의 총장 취임은 인하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펼치는 것이며 국가발전의 기여를 함께하는 새 역사의 시작이며 인하학원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취임한 김총장의 앞날을 향한 비전있는 포부의 실현과 함께 인하는 힘찬 변영의 광장으로 달려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라고 축하하였다.

인하대학교 제4대 총장에 취임한 金熙喆박사는 경성제국대학 기계과, 미국 미네소타대학 등에서 수학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등을 역임하다가 1976년 인하대학교에 초빙되어 교수 겸 대학원장으로 본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희철총장은 그동안 국민훈장동백장, 과학기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기계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진흥회 이사, 한국자동차기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학자이다. 김총장은 취임식전에서 “임기 중 총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 인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였다. 김희철총장은 이어 취임사를 통해 “대학은 학문의 심오한 이론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연구기능, 그 이론을 교수하고 인간계발에 온 힘을 기울이는 교육기능,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에 학문을 응용함으로써 이룩되는 사회봉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대학의 보편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김총장 자신은 인

하대학교에서 대학의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사회적 요청에서 오는 타율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인, 즉 의식적인 학생의 증원은 이제 지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 반면에 “부족한 교수의 충원을 위해 전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대학의 연구와 교육기능을 다하기 위해 우리 인하대학교의 경우 이제는 외적 분야보다는 내실화의 방향으로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혀 대학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는 그동안 대학의 양적 급 성장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였다.

이날 김희철총장의 취임식에는 권이혁 서울대학교총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하였다. 권이혁 서울대학교총장은 축사를 통해 “仁荷는 창설 당시 후부터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 속의 대학으로 응비했다”고 말하고 “평소 대학의 건강성을 강조해 온 김희철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仁荷는 더욱 건강하게 대학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 김희철총장은 趙炳華 제2대 부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제2대 부총장에 취임한 조병화박사는 경희대학교 문과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고, 1981년 3월 초대 인하대학교 문과대학장에 취임하여 문과대 발전의 초석을 다져오던 중 부총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다. 조병화부총장은 학술원회원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비롯 아세아자유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서울시문화상 등을 수상한

저명한 시인이자 학자이다.  
 취임초부터 대학의 내실화를 강조한 김희철총장은 대학의 외형적 성장보다는 연구활동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였다. 김희철총장은 1983년 3월 21일자 《仁荷大學新聞》을 통해 발표한 지상화견에서 “몇 년간 갑작스런 규모의 팽창과 확대에 비해 내용이 불충분한 점도 있다”고 하면서 “종합대학으로서의 내실화에 치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김희철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졸업대학의 내실화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김희철총장은 먼저 대학의 내실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우수교수의 확보를 통한 교수활동의 향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인하대학교는 1982년에 42명의 신입교수를, 1983년에 18명의 신입교수를 초빙하

였다. 1983년 3월말 현재 인하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은 260명이었다. 이들 전임교원을 직위별로 구분하면 교수 117명, 부교수 57명, 조교수 68명, 전임강사 18명이며 전임교원과 재학생 인원수의 비율은 1 : 50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8월말 현재의 1 : 56보다 크게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83년 4월 7일 현재 재학생 수는 14,618명으로 이는 1981년 8월말의 재학생수 11,756명을 기준으로 할 때 24.34%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전임교원의 증가는 1981년 8월말 200명의 전임교원을 기준으로 해서 1983년 3월말까지 30%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재학생 수의 증가 비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증원 초빙된 교수는 다음과 같다.

또한 김희철총장은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어학실습실을 확대 개편하여

△ 연도별 교수 초빙현황

연도(인원수)	교수( )안은학과명
1982(42)	(기계) 任將享, 蔡載宇, 金光龍, (전기) 權五圭, (수학) 曹仲鉉, (화학) 李本守, (물리) 朴大允, (생물) 李惠英, (전산) 襄海英, (해양) 承永鎬, (경영) 林浩奎, (경제) 鄭世虎, 尹辰浩, (무역) 崔炳龍, 金鎬禹, 李洸, (상교) 洪永復, (국어) 崔元植, (사회) 孔禎子, 李泰健, (교육) 金善陽, (체육) 秋健二, (미술) 金京仁, 成完慶, (법학) 張榮敏, (행정) 申榮相, 李庚殷, (정의) 劉英俊, 白光一, (국문) 崔仁鶴, (영문) 朴在斗, 李承哲, (불문) 李容炫, 李榮陳, (독문) 張湘鎔, (중문) 趙英規, 蔡瑛純, (일문) 金匡來, 渡邊了好, (사학) 朴廣成, (철학) 金榮振, (외교원) 朴準根
1983(18)	(기계) 李在旭, (심유) 李義召, (토목) 梁昌鉉, (수학) 崔奎興, (회계) 尹金相, (경제) 朴宗其, 金幸子, (사회) 曹道根, (체육) 文正玉, (미술) 李桓範, (국문) 申昌淳, (영문) 李柄春, (불문) 金宇珍, (독문) Kammler, (가정) 尹貞惠, (의류) 金久子, 許泰鍊, (외교원) 姜清一

外國語教育院으로 승격시키고 시설을 확장하였다. 1983년 4월 20일 8호관에서 현판식을 가진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외국어 시청각교재 전반을 관리 운영하고 영어종합시험의 출제와 채점 및 외국어 특강을 개설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굴지의 음향도서실(Sound Library) 열람실, 녹음실, 자료실을 갖추었으며 총 118개의 개인부스(Booth) 및 V.T.R 시설을 완비하여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외국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김희철총장은 교육의 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1983년 3월 5일 10호관(현 6호관)이 준공되어 그동안 5호관에서 사범대학과 같이 사용하던 법정대학과 경상대학이 전용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10호관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총 공사비 23억 9천 6백 66만원을 투입하여 3천 5백 48평에 강의실 41개, 교수연구실 56개, 기타 연구실, 지하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였고 지하실의 일부를 도서관 대출실과 연결, 서고로 사용하게끔 건축되었다. 이 10호관은 전면을 모두 Pair Glass로 장식하여 난방과 소음방지에 효과를 동시에 갖도록 한 현대식 건물이다.

10호관의 건축으로 각 단과대학은 대학별 특성을 살려 독립건물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이에 만족치 않고 강의실 전용건물을 세우기로 계획하고 곧 11호관 건축에 착수하였다. 1982년 4월 20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간 11호관은 공사기간 1년 6개월, 공사비 약 40억원이 투입된

대형건물이었다. 11호관은 1983년 8월 31일에 완공되어 강의실 전용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은 총 6천여 평에 대단위 강의실 20개(140~160명 수용), 중단위 강의실(40~60명 수용), 교수연구실 42개, 실험실 97개, 사무실 11개 등 총 170개의 방이 마련되어 강의실 부족난을 해소하였다. 이리하여 인하대학교는 총 강의실 수 228개, 수용인원 24,600명, 실험실 312개로 1만 5천여 재학생이 큰 불편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밖에도 김희철총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대학 부속기관으로 보건소를 개설하였다. 1983년 4월 18일 8호관 1층에서 개소식을 가진 보건소는 기존의 위생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임명하여 진료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는 매주 3회 보건소에 출근, 진료를 보게 하였고 건강상담을 위해 간호사가 상주하게끔 배려하였다. 또한 인하인의 교양지식 함양을 위해 ‘仁荷新書’ 10권을 발간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학출판부는 그간 교재중심의 출판업무에서 탈피하여 인하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양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仁荷新書 1차분 10권을 발간하였다.

연구기자재의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 학교행정의 전산화를 위해 IBRD차관 25만달러를 들여 ‘MV-8000 컴퓨터’를 도입하였다. 미국 Eclipse사가 제작한 이 컴퓨터는 기존의 IBM컴퓨터보다 10배의 기억용량과 처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교수연구지원 및 학생들의 실습용으로도 활용되었다.

김희철총장은 내적으로는 대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외적으로는 그동안 예비협정 상태에 있던 미국 남가주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인하대학교가 '세계속의 대학'으로 뻗어나갈 초석을 다졌다. 김희철총장은 미국 방문기간 중인 1983년 7월 26일 남가주대학교의 James H. Zumbege 총장과 상호교류를 위한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 후 정식으로 양교간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김희철총장은 안으로는 우수교수의 적극 유치, 강의실의 확보,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시설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밖으로는 대학의 홍보 강화를 통해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외국대학과의 상호교류협정 등을 체결하는 등 인하대학교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2. 개교 30주년의 인하

### (1) 인하 중흥에의 포부

1984년 개교 30주년을 맞은 인하대학교는 그동안 성장해 온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새로이 뻗어나갈 미래의 웅비를 위해 새로운 각오와 출발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 재임기간 동안 대학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대학발전의 내적 기반을 다져온 金熙喆총장이 사임하고 제5대 총장으로 朴泰源박사가 취임하게 되었다. 제5대 총장 박태원박사의 취임식은 1984년 1월 12일 오전 10시에 본교 대강당에서 많은 내빈과 교직원,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취임식전에서 조중훈이사장은 전임 김희철총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재임기간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김희철 전임 총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본인과 더불어 대학의 내실화 및 인하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교직원, 재단임직원, 동문 및 지역 사회 인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욱 능력 있는 신임 朴泰源총장을 중심으로 인하의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모든 인하인의 노력이 경주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조중훈이사장은 이날 치사에서 “세계속의 대학으로 성장해 온 인하대학교의 총장으로 박태원박사의 취임을 慶賀하며 전임 김희철총장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우수한 교수의 확보와 교육시설의 개선 그리고 학생들의 면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박태원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모든 인하인이 인하의 전통과 창학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데 새로운 결의를 다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인하대학교 제5대 총장에 취임하는 박태원박사는 1968년 인하학원 신재단 구성 시에 상임이사에 선임되어 인하학원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어 1976년 3월 인하대학교 초대 부총장에 취임, 1981년 8월까지 재임한 바 있는 박태원 총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회장, 아시아태평양 화학공학연맹 대표이사, 대한화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한국과학계의 저명한 학자이다.

박태원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개교 30

주년을 맞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합쳐 새로운 도약을 창출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국제화 시대, 정보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의 연구역량 배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운영목표를 밝혔다. 첫째, 교육과 연구기능에 있어서의 탁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시설과 운영체도를 확립한다. 셋째, 현실적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한다. 넷째, 학문의 전수 발전뿐만 아니라 지도자 육성에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노력이 조화 상승하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수집된 의견의 추진작업에 과감히 앞장설 것이며, 기필코 세계적인 명문시학을 이루겠다는 각오가 결실을 맺도록 심혈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다.

박태원총장의 취임식에는 李賢宰 서울대학교총장과 金燦會 인천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이현재 서울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대공업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적 배경 등으로 큰 잠재력을 지닌 인하대학교는 신임 박총장의 취임과 함께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였다.

이날 취임식에서 박태원총장은 새로 발령받은 南宗祐 제3대 부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제3대 부총장에 취임한 남종우 박사는 인하공과대학 제1회 졸업생으로서 1962년에 모교에 교수로 부임하여 학문의 연구와 후진양성에 헌신해왔다. 또한 그간 출판부장, 학생처장을 역임하면서 본교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 (2) 개교 30주년

1954년 4월 24일 하와이 한인이민 50주년을 기념하여 하와이 교포들의 정성과 온 국민의 성원 속에 공업입국의 기수로 출발한 인하공과대학이 1972년 종합대학인 인하대학교로 승격되고 이어 1984년으로 개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의 성장을 이룩한 인하대학교는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희망 속에 제2의 도약을 다짐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4년 1월 12일 인하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박태원총장은 동년 3월 21일 대학신문사 및 방송국 기자들과의 총장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대학 발전계획의 일단을 밝혔다.

박태원총장은 성년 인하의 가장 큰 과제는 “교훈인 眞의 행동강령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인하인으로서의 특색을 갖도록 연구·노력하는 것, 즉 ‘인하이즘(Inhaism)’의 구현”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공과대학으로 출발하여 유망학과의 중점 육성과 각 학과의 특색을 살려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현재 7개 단과대학과 3개 대학원이 있는데 종합대학으로서 빠져있는 것이 의과대학이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결정을 보았고, 의과대학의 필수요건인 부속병원의 건립을 위해 병원부지를 물색 중이며, 이왕 병원을 건설할 바에는 한국최고의 병원을 세우려는 생각으로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태원총장은 또 학생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학생회관 건립을 비롯하여 체육관의 건립, 독립건물로서의 대강당 신축 등을 계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효과와 향상을 위해 이공계통의 기초교육시 물리, 화학의 실험이 중요하므로 이를 더욱 확충할 것이고 노후한 교수연구실은 IBRD차관으로써 보수, 개선하여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도서관의 열람석이 부족할 정도로 학생들이 면학에 열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면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도서관의 장서는 계속 확보하여 정보전달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총장은 현대는 정보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컴퓨터교육과 어학실력의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전자계산소를 통해 지난 3월 초에 개인용컴퓨터 1백대를 도입, 우선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외국어 교육원의 강화를 통해 어학능력 배양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태원총장은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개교 30주년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仁荷三十年史의 발간, 상징탑의 건립, 기념물 제작, 국제학술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교 30주년을 맞아 추진된 기념사업의 하나인 상징탑의 건립은 인하인의 오랜 숙원이었다. 인하대학교의 상징물로 飛龍이 정해진 후 상징탑의 건립이 수 차례 논의되어 오다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상징탑의 건립이 결정되었다. 인하대학교의 상징물인 비룡의 제작은 미술교육과의 白顯鉦교수가 맡았고 부지 및 상징탑의 설계는 건축공학과 元定洙교수가 龍의 특성을 살려 물과 근접해 있고 교내의 중심

지이며 많은 학생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仁鏡湖 옆을 선정하였다.

飛龍像의 제작을 담당한 백현옥교수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덕수궁 물시계의 龍宮을 장식하고 있는 龍과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靑龍 등의 모습을 참작하여 고증을



비룡탑

거쳐 제작하였다”고 밝히고 “기단의 7개의 석순은 7개 단과대학을 상징하며 중앙의 主柱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석주는 飛龍을 승천시키는 시각적 조형석주이며 4년제의 학제를 상징한다. 그리고 솔밭속에 놓여있는 花葉形의 四方石은 대화와 결속, 四海로 뻗어가는 인하의 웅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탑 전체로 볼 때 위의 심불석주가 陽의 표현이라면 아랫부분의 花葉形은 陰을 표현한다”고 제작의도를 설명하였다.

상징탑 건립은 1983년 9월 1일 기공식을 가진 뒤 동년 11월말에 비룡상의 제작을 끝내 1차공사를 마무리짓고 중앙석주에 飛龍을 올렸으며 1984년 3월말에 주변 환경조성 공사를 끝내고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6월 21일에 제막식을 가졌다.

인하를 상징하는 비룡탑의 건립은 오랫동안 그 계획이 추진되어 왔는데 단순히 학교 당국의 힘만으로 건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동문들의 의지와 학생들의 여론, 학교당국의 방침에 따라 그간 계속해서 졸업생들이 성금을 내고 학생들이 작은 성의나마 모금운동을 벌였으며, 교직원도 성금을 냈고 학교측의 재정지원을 받아 인하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게 된 것이다. 상징탑의 건립에는 총 공사비 1억여원이 소요되었던 바, 졸업생 특별 기금 19,704,000원, 교직원 기부금 9,998,700원, 교비 68,701,874원, 기타 학생모금으로 충당되어 명실공히 전 인하인의 정성을 모아 건립되었다.

한편 《仁荷三十年史》의 편찬사업은 1983년 3월 말 개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인하의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983년 3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하30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편찬에 들어간 인하30년사의 편찬은 자료를 수집하고 尹炳奭, 成耆說, 金載弘, 尹明求, 金萬圭 위원이 분담 집필하여 그 해 10월에 간행 배포하였다.

### (3) 시설의 확충과 연구활동

인하대학교는 개교이래 개교 30주년을 맞이하는 1984년까지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였다. 이러한 시설의 확충을 기반을 인하는 명실공히 국내 유수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잡아 갔다. 1984년 1월 12일의 취임사를 통해 이미 인하대학교의 웅비를 위한 포부를 밝힌 바

있는 박태원총장은 명문 인하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의 하나로서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시설과 운영제도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과 연구기능의 탁월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였는데 그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4년 1월 16일 11호관이 준공되어 김희철전총장 및 시공자인 한일개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1983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한 11호관은 재단의 계열사인 한일개발의 도급공사비 34억 3천8백만원과 본교지급 자체비 5억 6천9백만원 등 총 공사비 40억 7백80만원을 들여 완공을 본 것이다. 이 11호관은 총 건평 5천9백36평으로 1백60석의 대강의실 44개, 80석의 소강의실 15개, 실험실 30개, 교수연구실 64개, 화장실 15개와 체육실, 보일러실, 기기분석실 등 특수 시설이 자리잡았다. 또한 이날 도급공사비 2억 9천5백9십만원 등 총 공사비 3억 5천1백50만원을 들여 완공한 운동부 숙소의 준공식도 거행되었다. 11호관의 준공으로 확대된 대학 인구의 수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부족난이 크게 해소되었다.

또한 1984년 3월에는 인하대학교 캠퍼스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국내대학 최고수준의 學生會館 신축을 추진, 그 해 12월에 착공에 들어가 착공된지 1년 9개월만인 1986년 9월에 완공되었다. 인하인의 복지후생의 센터가 된 학생회관은 총 공사비 약 48억원이 투입되어 그 규모에 있어서도 개축면적 1천4백96평 및 증축면적 2천9백10평 등 연건평 약 4천7백여평에 달하는 지상 6층의 건물로서 국내대학의 학생회관 중 최대수준

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학생회관의 건물높이인 4개층의 저층부에는 학생들의 이용빈도수가 많은 복지후생, 자치활동 등을 위한 공간기능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고층부에는 조용한 분위기의 연구·상담실, 세미나 지원시설 및 휴식공간이 배치되었다. 한편 학생회관의 증개축을 위한 설계취지에 의하면 주변의 환경요소인 상징탑, 인공호수, 숲의 공간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캠퍼스 내부의 흐름에 절정을 이루게 했으며 남쪽을 향한 작은 광장과 상징탑을 연결하는 축상에서 건물을 세트백(Set back)시키는 방법을 구사, 서해의 망망한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인 공간전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식 학생회관은 완공 당시 본교 학생수 1만 6천 명을 계산할 때 1인당 점유면적이 0.29평으로 국내 어느 대학과도 견줄 수 없는 최대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것이다. 학생회관의 신·증축으로 학생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공간의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다. 1984년 5월에 증설계획을 세워 같은 해 7월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간 中央圖書館의 지하층 개수공사 및 옥상층 증설공사가 착공 4개월 만인 1984년 10월 27일 완공되어 이틀 뒤인 10월 29일에 개관되었다. 새로 개관한 옥상층 도서관은 제 9열람실로 명명되어 좌석수 542석으로 일반열람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입구에 휴게공간을 마련해 편의시설까지 갖추었다. 또한 지하열람실은 옥상층 도서관보다 한달 앞서 개관하였는데 지하서쪽 8-A 열람실로 좌석수 516석, 동쪽인 8-B 열람실은 108석으로 독서실, 휴게실

및 일반열람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하층은 248석으로 휴게실 기능을 맡고 있다. 중앙도서관 옥상층 및 지하층이 증설됨으로써 본교 중앙도서관의 열람석은 일반열람실 2,385석을 비롯, 참고열람실 126석, 과제도서실 416석, 정기간행물실 630석 등 총 3,015석에 달하게 되어 도서관의 열람석 부족을 크게 해소함은 물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중앙도서관은 1984년 2학기부터 본교 전자계산소의 협조를 얻어 국내대학 도서관 중 처음으로 도서관 전산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1학기에 收書 및 정리업무의 일부가 전산으로 처리되기 시작했으며, 2학기에는 검색시스템의 일부가 가동되고 이어서 1987년 9월에는 서고의 모든 도서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대출업무까지 전산화함으로써 도서관 토탈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1988년 2학기부터는 DNS(Dacom Net Service)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외의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인하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과 강의실 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크고 작은 공사가 교육·연구시설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었다. 즉 1988년 7월부터 1년여에 걸쳐 2호관 남관 개수공사가 진행되어 1989년 9월 30일에 완료되었다. 개수공사가 완료된 2호관 남관은 총 공사비 19억여 원이 투입되어 바다·천정·전기배선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1988년 7월에는 5호관 남관에 위치한 소강당의 개수공사에 착공하여 이듬해

10월 15일에 완공을 보았다. 이 소강당의 개수에는 약 1억 4천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천정·벽체 등의 방음장치 설비와 조정실, 조명장치, 무대를 증설하고 객석의자 240석을 모두 교체함으로써 강당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시기에 신·증축 및 개·보수된 학교주요

시설의 확충현황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시기에 인하학원 역사에 특기할 만한 시설의 확충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의 새로운 캠퍼스의 건립이었다. 즉 1988년 8월 25일 인천직할시 남구 학익동 306-30 소재 11,147평 교지에 신축된 부속 중고등학교 건물은 중학교 30학

△신·증축 및 개·보수 시설 공사 현황

종류	공사명	용도 및 공사내용	공사금액	공사기간
신·증축	학생회관 증·개축공사	• 기존 지상4층, 1,494평 개수 • 증축 지하1층 지상6층 3,274평 (유유가공실 183평 포함)	5억 7천1백만원	1984.11.1~1987.9.30
	교수회의실 증축공사	• 본관 동편 지층 1,292㎡ 시설	5억 8천만원	1985.10.1~1986.7.31
	의대실험실(3호관) 증축공사	• 3호관 동편 1층 1,238㎡ 시설	5억 6천5백만원	1987.10.1~1988.6.30
개·보수	도서관 및 2호관 별관 개수공사	• 도서관 지층 1,146㎡ 개수 • 도서관 6층 1,002㎡ 증축 • 2호관 별관 1,098㎡ 개수 강의실·연구실	9억 5천1백만원	1984.7.1~1984.12.26
	4호관(전산센터, 실습실) 개수공사	• 지상3층 3,446㎡ 개수	4억 7천9백만원	1985.3~1985.10.25
	3호관(의과대학) 개수공사	• 3호관 2층 1,228㎡ 개수 • 의과대학 연구시설	1억 5천7백만원	1986.7.1~1986.9.15
	본관지하박물관 개수공사	• 지층(구 신문사)박물관 개수	1천8백만원	1987.2.5~1987.2.28
	본관 대강단 개수공사	• 1호관 2층 강당전면개수 1,408㎡	4억 5천3백만원	1987.4.24~1987.7.15
	본관지하휴게실 및 도서관 서고 증설공사	• 본관지하휴게실 300㎡ • 도서관서고(아고라광장지하)증설 587㎡	2억 6천9백만원	1987.7.12~1987.9.15
	2호관 남관 개수공사	• 지상5층 강의실, 연구실 등 10,202㎡ 개축	26억 7천7백만원	1988.7.20~1989.9.30
	5호관 남관 소강당 개수	• 5호관 남관 2층 소강당 118평 전면개수	1억 4천3백만원	1987.7.15~1987.10.15

급, 고등학교 30학급으로 총 60학급, 그리고 어학실습실, 컴퓨터실, 도서관과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교육과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중고등학교 캠퍼스가 건립된 것이다. 1988년 8월 25일 인하학원 조중훈이사장과 인하대학교 박태원총장을 비롯하여 신용일 사범대학장, 박용서 부속고등학교장, 강황규 부속중학교장과 교사·학부모·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입주식에서 조중훈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범적인 인재육성의 뒷받침으로 첨단 교육시설과 충분한 교재확보를 약속하고 투철한 교육정신으로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교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의 신축 이전으로 약 5천8백평 규모의 舊 중고교의 교사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사용하게 되었다.

시설의 확충과 함께 학과의 신·증설, 조정도 꾸준히 추진되었다. 1984년 10월 5일에는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 신설이 인가되고 이듬해 의예과를 설치하였고 동년 11월 27일에는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계열에 철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경상계열에 회계학과, 박사과정 공학계열에 항공공학과, 이학계열에 물리학과의 증설이 인가되어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5계열에 35개학과, 박사학위 과정 5계열 24학과로 늘어났다.

1985년 10월 30일에는 공과대학에 자동화공학과와 생물공학과의 신설이 인가됨에 따라(기계공학과 50, 화학공학과 20, 환경공학과 10명을 감축·조정하고 자동화공학

과 50, 생물공학과 30명을 배정) 동년 11월 5일부로 자동화공학과 및 생물공학과의 증설이 각각 인가되고 기계공학과와 화학공학과 및 환경공학과 정원이 감축·조정되었다.

이어 1986년 11월 16일에는 이과대학 수학과, 상경대학 상업교육과,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의 정원이 축소·조정되고 의과대학에 의학과의 신설이 인가되었다. 또한 1987년 11월 9일부로 산업기술대학원(야간)이 신설 인가되어 총 정원 80명으로 경영공학과, 정보공학과, 생산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재료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설공학과 등 7개학과에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이 설치되었다. 또한 같은 날 대학원 석사과정 공학계열에 환경공학과, 인문계열에 미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공학계열에 산업공학과, 이학계열에 해양학과, 경영계열에 경제학과, 무역학과, 법정계열에 정치외교학과가 증설 인가됨으로써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에 5계열 37개학과, 박사학위과정은 5계열 29개학과로 성장하였다.

학과의 신·증설과 조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문의 종합화, 탁월성과 효율성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계속되었다. 1988년 10월 29일에는 야간강좌 개설학과 중 일어일문학과를 제외한 15개학과가 주간으로 흡수 인가되었으며, 11월 30일에는 대학원 박사과정 공학계열에 환경공학과, 인문계열에 교육학과의 신설 인가되어 석사학위과정에 5계열에 37개학과, 박사학위과정 5계열에 31개학과가 되었다. 또한 같은 날 대학부설로 敎養敎育院이 설치 인가되었으며, 行政大學

院의 신설이 인가되어 석사학위과정에 행정학과, 정책학과, 지역개발학과, 재정학과의, 그리고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과정으로 고위 행정관리자과정이 설치되었다.

1989년 3월 13일에는 공과대학 조선공학과, 항공공학과,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가 각각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일본어일본학과, 중국어중국학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동년 10월 28일에는 야간강좌의 일본어일본학과가 주간으로 흡수되었으며, 12월 29일에는 이과대학 전자계산학과가 공과대학 전자계산학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시설면에서의 발전과 학과의 신·증설에 발맞추어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우수 신입교원의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 제4대 박태원 총장의 재임기간 동안만 총 102명의 우수교원이 초빙되었다. 박총장 재임기간 중인 1984년부터 1989년까지의 연도별 교수초빙 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한편 박태원총장은 앞서 취임사를 통해 “현실적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시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박총장 재임기간 동안만 6개의 연구소가 신설되어 교수들의 학문연구 활동을 크게

△ 연도별 교수 초빙상황(1984~1989)

연도(인원수)	교수 ( )안은학과명
1984(17)	(항공) 金凡洙, (환경) 許珉琪, (생물) 韓弘毅, (사회) 金鳳鎬, (체육) 金光會, (불문) 金英, (독문) 金容翊, (의류) 鄭惠嫻, (외국어교육원) 朴寅雄, 黃惠淑, (기계) 李德燮, (금속) 李鍾武, 李智煥, (환경) 趙光明, (수학) 梁在賢, (행정) 金容宇, (가정) 千種姬
1985(16)	(조선) 金基成, (산업) 李和基, 李在元, (환경) 任聖參, (해양) 朴龍喆, (영어) B.R.Moran, (일문) 王淑英, (중문) 劉玉珂, (영문) Leory Sherman, (가정) 申惠環, (금속) 黃善根, (물리) 李基永, (경영) 崔泰成, (경제) 李相驥, (국어) 鄭堯一, (행정) 金榮圭
1986(12)	(의학) 徐丙高, (산업) 朴承憲, (토목) 沈明弼, (화학) 韓萬運, (해양) 李榮喆, (무역) 李貞庸, (회계) 李成圭, (철학) 金榮鎬, 白琮鉉, (고분자) 陳仁柱, (수학) 高官碩, (경영) 南明珠
1987(15)	(국문) 金忠會, (독문) 鄭恩伊, (경제) 朴熙天, (사학) 朴枝香, (의학) 車英男, 金仁圭, 康在勝, 金容吉, (건축) 金尙植, (조선) 金勝喜, (정외) 文正仁, (의류) 金在玉, (항공) 崔順子, (응물) 李升杰, (생공) 具潤謨
1988(20)	(항공) 金基郁, (응물) 朴世根, (통계) 全洪錫, (경영) 安光鎬, (상교) 成耆星, (법학) 吳守根, (행정) 沈翊燮, (국어) 尹永川, (교육) 鄭永壽, (일문) 高秀晚, (식품) 金永娥, (의류) 鄭聖惠, (의학) 洪在雄, 徐仁錫, (전자) 鄭東錫, (자동차) 金振傑, (고분자) 崔鎔鎭, (환경) 徐亨俊, (해양) 洪在上, (경영) 朴基贊
1989(22)	(산업) 金奉善, (자동차) 金昌夫, (전기) 金榮石, (생공) 金殷基, (조선) 李禎賢, (물리) 皇甫昌權, (생물) 崔秉熙, (통계) 崔至薰, (경영) 張益煥, (국어) 文瑛永, (정외) 孫鶴圭, (일문) 李成圭, (철학) 金洛必, 金鎭奭, (의학) 黃泰淑, 金大重, (선박) 孫忠烈, (기계) 李愚植, (회계) 金京圭, (수학) 金載文, (가정) 吳善周, (전기) 李鍾浩

고무시켰다.

먼저 1985년 1월 16일 대학부설로 국제관계연구소와 산업경제연구소의 신설이 인가되었다. 국제관계연구소는 1985년 3월 1일에 국제관계 제반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창의적인 학술연구와 정책연구 및 국제적인 학술의 교류와 협력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본교의 학문적 탁월성과 세계적 공공성을 제공하는 연구봉사기능을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경제연구소는 1985년 3월 1일, 한국경제 및 경영에 관한 제반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어 1986년 9월 1일에는 대학부설로 한국학연구소의 신설이 인가되었다. 특수연구소로 설립된 한국학연구소의 설립취지는 한국의 역사·어학·문학·민속 등 한국학 제 분야의 학문적 과제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국제적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한국학연구소의 신설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본교 인문계열 전공교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이 분야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7년 3월 1일에는 대학부설로 해양과학기술연구소의 신설이 인가되었고 동년 5월 1일에는 스포츠과학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해양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취지는 범세계적인 육상 천연자원의 고갈로 인한 해양자원의 이용과 해양공간의 이용확대로 국가적 차원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양의 종합적인 이용과 개발이 각국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해양산업 분야 및 해양기초과학의 연구를 진작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국가해양개발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황해연구의 국제적 중심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신설은 스포츠 경기력 향상과 현장적용 체계를 위해 각종 스포츠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연구보급함으로써 본교의 스포츠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한국 스포츠과학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88년 11월 30일에는 대학부설로 의약물독성연구소의 신설이 인가되었다. 의약물독성연구소의 신설은 본교 의과대학의 설립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범의학적 의약물 독성연구를 행함과 동시에 독성학 분야의 특성화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중추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임해도서지역, 공단 공업지대라는 본 대학이 위치한 경인지역의 특성상 강조되는 환경의학과 의과대학 자체연구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항공의학 등에 사용되는 의약물의 안전성 연구에 대해 대 중위생, 검사, 진료 및 제약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본교는 1989년말 현재 12개의 각종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공학계의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이학계의 기초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계의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산업경제연구소 등은 학문 전 분야의 고른 발전에 근간이 되는 기본 연구소이고, 이외에 항공경영관리연구소, 해양과학기술연구소, 한국학

연구소, 국제관계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의약물독성연구소 등의 특수연구소는 본 대학의 교육특성과 지역적 배경 및 정책 의지 등과 관련하여 설립된 것이다.

참고로 1988년과 1989년도 이들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교내외 연구비 수혜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를 보면 1988년도에는 교내 연구비 2억 2천여 만원, 교외연구비 14억 여 원 등 16억 2천여 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으며, 1989년도에는 교내 연구비 2억 여 원 교외연구비 17억 2천여 만원 등 총 19억 2천여 만원이 투입되어 약 20%의 신장률을 보였다.

연구소의 증설에 따라 연구소를 중심으로 교수들의 연구활동 또한 크게 강화되어, 개별 학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본 대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박태원총장 재임기간 동안

학내·외에서 본교(연구소) 주최로 개최되었던 주요 연구활동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84년 10월 25일 본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주최로 개교 30주년 기념 노벨화학상 수상자 초청강연회가 대학본관 지계층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강연회에서 박태원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기초과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본 심포지엄이 인하의 학문적 발전과 한국 이론과학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노벨화학상 수상자 초청강연회에는 3백여 명의 교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이익춘교수(화학)가 <시그마방향성을 포함하는 궤도함수와 상호작용>을, 1981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福井謙一교수(일본 경도공과대학)가 <화학반응에 대한 나의 연구배경>을 발표했다. 이어 오후

△ 부설연구소 교내·외 연구비 수혜현황(1988년도) (단위: 천원)

연구소	교내연구비		외부연구비		합계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산업과학기술연구소	49	63,475	59	742,989	108	806,464
기초과학연구소	22	28,875	20	219,776	42	248,651
인문과학연구소	33	36,194	11	37,750	44	73,944
사회과학연구소	11	14,850	3	10,700	14	25,550
산업경제연구소	16	19,854	11	170,376	27	190,230
항공경영관리연구소	2	3,198	5	101,981	7	105,179
해양과학기술연구소	3	13,264	2	31,100	5	44,364
한국학연구소	8	10,000	·	·	8	10,000
국제관계연구소	2	14,369	·	·	2	14,369
스포츠과학연구소	5	4,926	·	·	5	4,926
의약물독성연구소	2	9,000	3	86,900	5	95,900
학생생활연구소	2	7,386	·	·	2	7,386
합계	155	255,391	114	1,401,572	269	1,626,963



△ 부설연구소 교내·외 연구비 수혜현황(1989년도) (단위 : 천원)

연구소	교내연구비		외부연구비		합계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산업과학기술연구소	45	53,480	82	1,149,435	127	1,202,915
기초과학연구소	21	25,072	15	256,506	36	281,578
인문과학연구소	31	35,344	6	23,000	37	58,344
사회과학연구소	9	13,383	4	12,700	13	26,083
산업경제연구소	13	18,302	8	44,150	21	62,452
항공경영관리연구소	24	3,200	8	111,895	10	115,095
해양과학기술연구소	8	8,795	1	53,000	5	61,795
한국학연구소	2	10,073	·	·	8	10,073
국제관계연구소	2	10,000	·	·	2	10,000
스포츠과학연구소	2	2,637	·	·	2	2,637
의약품독성연구소	2	10,000	4	76,000	6	86,000
학생생활연구소	4	12,677	·	·	4	12,677
합계	143	202,963	128	1,726,686	271	1,929,649

에는 이태규교수(한국기술연구원)가 <비뉴우튼 흐름의 분자이론>을, 전무식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물의 화학>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1986년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본 대학 주최로 “재료과학 국제 심포지엄”이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재료과학 분야의 보다 창조적인 미래교육의 형태를 설계할 필요에 따라 개최된 이 심포지엄에는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유럽·일본 등지의 저명한 관계학자와 국내 재료과학 관련 전 학회에서 4백여 명의 학자가 참여함으로써 큰 성황을 이루었다. 양일간 진행된 심포지엄의 내용을 보면, 첫날에 보리에 교수(프랑스 루앙대)가 <불란서의 재료과학 교육>, 오아테교수(일본 경도대)가 <일본 대학의 재료과학 교육현황>, 랭던교수(미국 남가주대)가 <미국의 재료과학 교육현

황> 등의 주제로 발표하였고 둘째날에는 본교 민수홍교수(기계)가 <한국 재료과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하였다. 재료과학에 관한 신이론, 제조공법 등이 소개, 발표됨으로써 국내외와 선진외국의 실정을 비교 검토를 통해 재료과학에 관한 연구방향의 새로운 모색과 정립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본 대학 대학원 주최로 교수회의실에서 강남 3개 대학원 합동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0회를 맞이한 합동학술세미나에는 <철학의 제문제>를 공동주제로 하여 인하대, 중앙대, 숭실대의 3개 대학원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985년 9월 전국대학 중 최초로 본교가 학사행정 종합정보시스템(TTIS)을 설치하고 국내외 각종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가운데 1986년 11월 21일에는 <대학관리정보체계 운영과 교무행정 전산화>에 관한 세미나

가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본교가 주관한 이 세미나는 각 대학 교무행정 전산화의 확산·보급과 전산화 개발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의 절감, 그리고 대학행정의 전산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 약 1백개 대학의 교무처장 및 전산담당자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학 중 최초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고 교무행정 전산화를 성공적으로 운영 시행하고 있는 본교의 사례발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세미나를 주관함으로써 본교는 대학이 협동적인 활동을 통해 자체발전과 행정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87년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본교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科總)의 제10차 국내외 한국 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과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박태원총장의 과총회장 취임 이후, 국내 학술대회 사상 최대의 규모로 열린 이 대회는 미주지역을 비롯하여 유럽, 일본 등 전세계의 한국 과학자 및 국내 과학기술자 4천여 명이 대거 참석했으며 선진외국의 최신 과학기술 이론 소개, 해외두뇌의 국내유치 촉진, 일부 노하우의 국내 전수 등 산업기술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연구활동, 기술혁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태원총장 재임기간 중의 연구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비중이 큰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인화인들에게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준 것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인하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제반학문의 국제적 교류에 크게 기여한 점이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제2회 환태평양국가회의(1986. 12. 10~13)와 제1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1987. 9. 10~12)였다. 환태평양국



제10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술대회

가회의는 1986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동안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하버드대 동아연구소와 게리 하트 미국 상원의원이 창설한 신 민주주의연구소 및 본 대학 국제관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 회의는 “태평양 세기 - 교역, 발전, 리더쉽”이란 주제로 열려 본교는 학술의 국제적 탁월성을 신장시키면서 국가이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회의에는 박태원총장, 게리 하트 미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조중훈 인하학원 이사장, 남덕우 무역협회회장, 퍼킨스 하버드대교수, 머코프스키 미 상원 亞太小委 위원장, 맥플레이 호주 하원 부의장, 피넨탈 필리핀 전 지방장관 등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홍콩, 브루나이 등지의 13개국 1백여 명의 정치지도자, 학자, 경제통상관계 관료, 다국적 기업인 등이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보호무

역 경향 등 태평양연안 국가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 10일(수) = 개회식(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 △ 11일(목) = 제1회의 : 세계 교역체제의 개선방향, 올림픽 조직위원장 초청오찬(하버드 대 퍼킨스 교수 연설), 올림픽 경기장 시찰, 국제문화협회장 초청 만찬
- △ 12일(금) = 제2회의 : 환태평양 지역내의 발전 및 협력의 과제, 외무부장관 초청 오찬, 판문점 방문 및 산업시찰, 경제 4단체장 초청 만찬
- △ 13일(토) = 환태평양국가의 정치 문화적 배경과 새로운 리더쉽

한편, 첫날의 개회식에서는 박태원총장의 환영사 및 게리하트 미상원의원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둘째날에는 롯데호텔에 머탈드룸에서 하트의원에 대한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개회식에서 행해진 박태원총장의 환영



제2회 환태평양 국가회의

사와 게리하트 미 상원의원의 기조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다.

〈환태평양국가회의 환영사 요지〉

본인은 인하대학교를 대표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저희 인하대학교가 서울에서 “태평양 세기 - 교역, 발전,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이 회의를 공동주관하게 되었음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훌륭한 회의가 있기까지는 그동안 회의준비에 힘써오신 태평양연안국가 관계자 여러분의 협동적 후의와 희생적인 노력이 선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먼저, 이번 회의의 공동의장이신 미국의 게리하트 상원의원, 하와이대학교 동서문화센터소장이신 빅터리박사, 일본의 榎名 중의원의원, 우리나라의 남덕우박사,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나라사삼 부총재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신민주주의연구소의 마야사 키즈여사와 더그 윌슨선생, 하버드대학교 동아연구소의 패트릭 매독스박사, 그리고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계봉혁박사, 김만규박사, 이상곤박사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본 회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기업인들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국경제단체연합회 및 대한항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외 많은 분들의 후원에도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인하대학교가 환태평양국가회의를 주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교내외의 각계 인사들은 회의를 주관하는 이유와 본교의 능력에 대해 많은 염려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본교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를 주관할 능력에 대해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하대학교는 환태평양국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막시켰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설립과정에서 하와이 교포들의 역할이 지대하였으며 교명도 인천과 하와이의 첫 음을 따서 ‘인하’로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하대학교는 태평양연안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태평양지역의 여러 문제는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주요 분야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작년에 우리 인하대학교가 이번 회의를 주관하기로 결정했던 것도 태평양연안국가 또는 국민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키기 위한 본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태평양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위치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증하는 경제적·문화적·전략적 교류에 따라 태평양지역 국가들간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상호협동의 집단적 일체감마저 나타남으로써 이 지역의 기능적 상호연계와 이해관계는 태평양 공동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 연안국가들간의 상호 의존관계는 부정적인 면들을 수반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태평양 시대는 화합과 불화, 기능적 통합과, 문화적·역사적 분열, 그리고 편협한 국가적 이해관계와 보편적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태평양지역 상호의존관계와 미래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가 각별한 의미를 지니면서 시의적절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기라는 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우리들의 공동목표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권의 평화와 안정, 번영, 기회의 활용을 위한 태평양지역주의의 창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 참가한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토론과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까.

태평양지역주의라는 착상은 그 개념이나 내용에 있어서 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공통되는 것이 별로 없는 듯하며, 우리를 결속시킬 수 있는 유

일한 관계는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지리적 경계일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경험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의 상이함도 마찰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내의 효율적인 경제협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번 회의가 태평양지역사회 개념을 명백히 하고 공통적인 가치와 욕구 및 규범을 모색, 확인하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 또는 국제적 공동체의 창설과 유지에 정치지도력의 성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 왔으며,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만 결집력 있고 지속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정치지도력의 변화들은 태평양지역주의를 달성하는데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집단적 부담을 한 국가에만 지운다는 것은 불공평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과중한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내 지도력의 변화 및 집단적 부담의 공평한 배분 문제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공동체 구축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 지역 내에서의 지배와 의존의 문제도 회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태평양 지역의 상호 의존관계는 자유시장체제를 통해 형성,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이 모든 국가들에게 다(Positive Sum)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이 회의를 통해, 참가자 여러분들이 솔직한 토론을 통해 일부 국가들의 회의와 냉소를 신뢰와 참여로 바꿔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다양함 속에서 통일체를 구성하기란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성급함과 비합리적인 압력은 관계자들에게 더욱 심한 마찰과 적대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의 미덕은 태평양지역사회의 구축 문제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여러 가지 양국간 혹은 다국간의 현안 문제해

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절대 다수가 참여하는 국가적, 지역적 의견일치를 이루지 않고서는 인내를 바랄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국제적 토론과정에 다양한 정부외적 인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회의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계, 학계 및 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회의의 고명하신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 갈 현재 및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태평양 세기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의 본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지도력과 지혜, 도덕성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환태평양국가회의에 즈음하여 여러분의 지도력으로써 태평양세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구체화시켜 우리 모두를 단결시키고, 여러분의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써 우리를 편협과 적대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환태평양국가회의의 기조연설 요지〉

친애하는 인하대학교 박태원총장님,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김만규박사, 하바드대학교 동아연구소 소장 패트리 맥독스박사, 신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마샤키즈, 계봉혁박사, 그리고 저명한 정치지도자 및 국회의원, 친구, 동료 여러분!

오늘의 환태평양국가회의는 이 지역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용광로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기회가 보장되는 공동의 미래는 "태평양 세기 - 용감한 지도력이 지속적 성장의 미래를 풀었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5-7%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불안의 원천이던 기술의 변화를 직업의 원천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리고 이 회의는 모든 국가에 이익을 갖게 하고 경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 번영을 공동안보의 강력한 방위력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평양 시대의 약속이며 우리의 노력과 지도력 없이는 이룩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환태평양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되 서로 다른 운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관계에 상호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도자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주의나 완전한 자유무역주의나 그 어느 것도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모두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하며 불공정 무역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나라들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을 포함, 모든 나라들이 무역장벽에 반대하는 나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 나라의 안보와 번영은 그 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맹방이며 이러한 인식이 공통적이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역사적이며 초당적이고 확고한 것입니다.

한국 내의 정치지도자들은 한국이 처한 외부적 위협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지도자들은 국론 분열이 외부 침략이나 파괴에의 구실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에 진정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의 보증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됩시다. 변화의 조류를 타고 저편의 신세계에 도달합시다. 태평양 세기를 새로운 기회의 출발로 삼읍시다.

한편 제1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는 본교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1987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교수회의실 및 시청각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세계 각국에서 한국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 한국학국제학술회의에는 일본·대만·미국·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동서양의 한국학 전공 외국학자를 비롯, 국내외 학자 30명이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국내외에 있어서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는 제1분과(한국사, 민속학 등), 제2분과(국어, 국문학)에 3백여 명의 국내외 학자가 참석하여 폭넓은 토론을 가졌으며 해외의 한국학 연구현황을 소개하는 등 한국학 발전에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회의 첫날인 10일에는尹炳奭 한국학연구소장의 개회사, 박태원총장의 환영사, 奎海宗 초빙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이날 환영사를 통해 박태원총장은 “공과대학으로 출범한 본교가 한국학연구소를 발족시킨지 1년 만에 국내외 저명학자가 참석하는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학문발전에도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의 개최 의의를 피력하였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전해종교수는 “해방 이후 韓國史學은 연구분야의 확대와 함께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를 비롯한 과학적 연구방법의 수용과 외국과의 학문교류 및 비교연구 등이 요청되고 있다”며 한국학 연구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사흘간 진행된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井上秀雄(일본 동북대·한국고대사) = 일본에

있어서 한국사학의 현상과 장래 △ 陳捷先(중화민국 대만대·한중관계사) = 중화민국 대만지구 한국 연구현황 △ D. Fundling(효성여대·한국어학) = 중국의 ‘조선학’ 현황 △ 徐大肅(미국 하와이대·한국 최근세사) = 소련에서의 한국학 △ W. Sasse(독일 보쿰대·한국어학) = 독일의 한국학 △ 姜喜雄(미국 하와이대·한국중세사) = 분단시대의 국사학 - 그 성격과 과제 △ 金元龍(동아대·한국고고학) = 한국고고학의 성과와 과제 △ 金哲堉(서울대·한국고대사) = 고조선연구의 회고와 전망 △ 李玉(프랑스 파리 제 7대학·한국고대사) = 溟州郡王 金周元 △ E. W. Wagner(미국 하버드대·한국근세사) = 잡과·중인가문의 성장과 근세에 있어서의 운명·사례연구 △ 李萬甲(인하대·한국사회사) = 한국사회의 사회학적 연구 △ 張存武(중화민국 중앙연구원·근대 한중관계사) = 19세기말 한국쌍중외교 체제적 성립 △ B. Wataven(네덜란드 라이덴대·한국무가) = 史學과 諷諭연구 -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 朴星來(한국외국어대·한국과학사) = 한국과학사연구의 현황과 전망 △ K. Howard(영국 더럼대·한국민속음악) = 한국음악인 - 음악적 지식의 창조자 △ 兪昌均(계명대·한국어학) = 徐敬德의 『皇極經世聲音解』에 대하여 △ 趙承福(스웨덴 스톡홀름대·한국고대사) = 고조선어 ‘右渠’에 관한 관건 △ 李基文(서울대·한국어학) = 국어의 어원 연구에 대하여 △ 梅田博之(일본 동경외국어대·한국어학) =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어연구 △ 丘翼星(독일 본대·한국비교문학) = 한국어 구조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 金南吉(미국 남가주대·한국어학) = 한국어의 미래시제와 양태성에 대하여 △ 金東旭(단국대·한국고전문학, 한국복식사) = 국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 金烈圭(서강대·한국문학) = 한국민간전승과 문학 - 서사구조의 지속구조와 지속성의 변이를 중심으로 △ 鄭奎福(고려대·한국고전문학) = 원전비평의 어제와 오늘 - 한국 고전문학의 경우 △ W. E. Skillend(영국 런던대·한

국고전문학) = 낮이라도 있고 없고 - 시조에 대한 몇 가지 과제 △ 申東旭(연세대·한국근대문학) = 한국 이야기 문학에 있어서 성격의 특성 연구 △ 南豐鉉(단국대·한국어학) = 口訣연구의 회고와 전망 △ 成耆諤(인하대·한국문학) = 『아내의 초상화』(AT465)의 한일비교 △ 金晶(중국사회과학원) = 중국에서의 Korea 문학 연구와 번역 출판 상황

### 3. 의과대학의 신설과 국제교류의 확대

#### (1) 의과대학의 신설과 대학병원

위와 같이 세계적 규모의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인하의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의과대학 설립추진 등으로 종합대학으로서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박태원총장은 취임 직후인 1984년 3월 4일 인하대학신문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인천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의과대학의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1984년 10월 5일 문교부는 1985학년도 대학 증원·증과를 발표하면서 인하대학교 醫科大學 신설을 인가하였다. 1984년으로 개교 30주년을 맞은 인하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자체발전은 물론 국민복지 향상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이란 차원에서 의과대학의 신설을 적극 추진, 동시기에 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한 15개 대학 중 충북대, 동아대와 함께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이다.

의과대학의 신설로 인가되기까지는 학교 당국 및 학교법인 인하학원 범 시민적인 인천직할시 각계각층의 열망과 후원, 특히 조중훈 재단이사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력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의과대학의 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본교에서는 1985학년도부터 醫豫科를 설치하고 5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1986년 3월에는 의과대학 초대학장에 徐丙高교수가 취임하였고, 1986년 11월 16일에는 의과대학 醫學科의 신설이 인가됨으로써 힘찬출발의 초석이 다져졌다.

그리고 1989년 3월 대학당국은 의과대학의 신설과 대학병원 기공을 앞두고 의무부총장 직제를 신설, 인하대학교 초대 의무부총장 겸 인하대의료원장에 李容珪박사가 취임하였다. 초대 의무부총장에 취임한 이용각박사는 경성의전 의학과를 졸업하고 카톨릭의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화여대 의대교수, 카톨릭대 교수 및 동대학 성모병원 원장 등을 역임한 일반외과학 분야의 저명한 의학자이다.

인천지역 유일의 종합대학인 본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되고, 최신시설에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한 가운데 대학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인천시민의 보건향상은 물론 균형 있는 시민복지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인하인은 물론 200만 인천시민이 크게 환영하였다.

의과대학의 신설도 1985학년도부터 의예과에 신입생을 모집하게 됨에 따라 대학부속병원의 개설도 추진되었다. 대학병원은 의과대학 학생의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진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아울러 구현한다.

그런데 의대신설 초기에는 인천지역의 종합병원 신규허가가 어려워 대학병원 건설승인이 정식으로 인가될 때까지 학교당국은 우선 기존의 종합병원을 인수, 대학부속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인하학원은 1986년 11월 17일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경기지역 유수의 종합병원인 韓美病院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1987년부터 대학부속병원으로 사용케 하였다. 1987년 4월 3일에는 의료법인 仁荷病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듬해 4월 11일에는 학교법인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1988년 9월 1일부로 학교법인 인하학원 인하병원으로 법인형태가 변경되면서 재단 부속병원으로서 대학부속병원의 역할도 아울러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1985년 의과대학 설립 이후 본교는 물론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1987년 10월 15일 보건사회부로부터 건설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미 본교는 1986년 6월 인천지역의 대학 부속병원 개설신청을 관계기관에 제출해 놓고 그동안 지역 여건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7년 초부터 본교의 “인천지역 대학부속병원 개설 필요성 및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재차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대학부속병원 신축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관계당국은 중간 회신 등을 통해 “의료정책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학생 실험실습의

여건 등을 신중히 연구” 하는 등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신축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대학병원 건설을 승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측에서는 재단, 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부속병원 건설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 ‘의과대학부속병원 건설위원회(가칭)’을 발족 ‘1989년 준공’을 목표로 병원부지 문제와 착공시기 등을 마무리짓는 등 부속병원 건설을 위한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988년 8월 2일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등 각종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부속병원 건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총장의 자문기관으로 구성된 동 건립준비위원회는 1988년 8월 26일 그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구성되었는데 건립준비위원회는 1990년 1월 1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건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무적으로 전담 추진하고 중요사항을 건립위원회에 심의 결정하게 하여 부속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자 부속병원건립본부를 발족시키고 인천직할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정석빌딩 803호)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병원 건립에 따른 실무계획을 조속히 추진토록 조치하였다.

부속병원건립본부가 설치된 지 한달여 만인 동년 2월, 부속병원 건립본부측은 본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 1992년말 완공을 목표로 내달 3월부터 착공될 것이라고 하면서, 부속병원의소재지는 인천직할시 중구 신흥동 3가 정석빌딩 옆 한진강재 하치장으로 대지 8천5백평에 지하2층, 지상15층, 연 건평 1만 8천평 규모이며 병상수는 750병상으로 인천 최고수준이며 교수진 150명

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하여 마침내 대학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 끝에, 지하3층, 지상15층의 초현대식 매머드 병원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인하발전의 역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되었다.

1990년 3월 30일 오전 10시 인천직할시 중구 신흥동 대학부속병원 본관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조중훈 재단이사장, 원영무 총장과 이용각 의무부총장을 비롯한 본교 교수, 직원, 강우혁·정정훈·서정화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이종찬 인천의사회장 등 각계인사와 의대생,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속병원 기공을 축하하였다.

이날 부속병원 기공식의 경과보고를 통해 이용각 의무부총장은 “지난 1985년 의과대학이 설립된 후 1986년 12월에 부속병원 설립계획이 발표되고 1989년부터는 병원건립이 한진그룹차원에서 지원됐다”고 밝힌 뒤, “앞으로 부속병원이 건립되면 인천지역 2백만 인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검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대대교육의 질적·양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중훈 재단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은 건강할 때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타산이나 이익추구를 배제한 仁術을 지역사회에 베풀 것이며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시설을 겸비한 세계적인 병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종찬 인천직할시 의사회회장은 축사에서 “인하대 의대 부속병원 건립은 인천시민은 물론 의료계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며 “앞

으로 인하대 부속병원은 의료계의 상아탑으로서 우수한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속병원의 기공식이 거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건설의 전망이 당장에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착공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병상수(베드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즉 기공식 이전의 건설계획은 5백베드에 따른 것이었으나(최대 병상수 750베드) 병상허가 과정에서 750베드로 증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히 다른 제반 과정들도 지연된 데다가 당국의 행정지원 절차까지 늦어져 부득이 착공이 미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병원 건설공사착공은 예정보다 1년 정도가 늦어져 1991년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1995년말 준공예정인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인하대병원의 1994년 1월말 현재의 신축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현황(1994. 1. 29 현재)
- 위치 : 인천직할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 대지면적 : 21,233.5㎡
- 구조 : 철골 콘크리트조
- 건축면적 : 6,835㎡
- 연면적 : 99,498㎡(지하주차장 포함)
- 층수 : 지하 3층, 지상 16층
- 주차장 : 지하 4층 별도, 주차대수 822대(확장시 2층 주차설비 : 1,300대)
- 병상규모 : 750병상(보유병상 : 900)
- 준공예정일 : 1995. 10
- 총투자금액 : 1,971억원
- 건축비 : 1,231억원

의료장비 : 404억원

전산장비 : 71억원

기타 : 265억원

## (2) 국제교류의 확대

종합대학 승격이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의 제반시설이 대폭적으로 확충되고 우수교수진을 꾸준한 보강에 따라 연구활동 또한 크게 활성화됨으로써 인하대학교의 국제적 위상 또한 크게 제고되었다. 따라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발판으로 인하대학교는 우수한 세계의 명문대학들과 학문적 국제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세계적 학문의 발달과 문화의 교류에 기여하였다. 미국의 남가주대학교는 이미 1975년 10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대만의 공학계 명문대학인 大同工學院과도 1977년 8월 27일에 학술교류의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간 국제교류는 대폭 확대되었다.

1984년 7월 9일부터 8월 2일까지 본교의 南宗祐부총장과 金裕恒대학원교학부장이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 추진 및 교육시설 시찰을 목적으로 일본·미국·벨지움·독일·스위스를 방문하였다. 이 외국방문을 통해 남종우부총장과 김유항대학원교학부장은 일본의 쓰꾸바대학을 방문하여 재동경 인하대학교 졸업생들을 격려했으며 미국 하와이 대학교를 방문하여 양교간 학술교류에 합의하고 인하대학교의 창립과 인연이 큰 하와이 한인동지회 교포를 예방하였다. 또한 남

가주대학을 방문하여 본교 의과대학 설립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남가주대학측의 자문협조 등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 등을 계기로 본교와 외국 명문대학과의 교류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먼저 1985년 3월 29일 본교 본과 제 1회의실에서 본교와 벨지움 국립 겐트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이 양교 총장 및 관계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행되었다. 이미 1978년 1월, 자매결연에 합의한 후, 교수 및 학생의 상호 방문 등 일부 교류사업을 가진 바 있는 양교는 이번 겐트대 A. Cottenie총장의 본교 공식방문을 계기로 기존 교류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이다.

박태원총장과 A. Cottenie총장간의 서명으로 체결된 교류협정 내용은 교수 및 학생의 상호 공동연구 실시를 위한 교환방문 지원, 파견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이며 교수 및 대학원생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태원총장은 자매결연 조인식의 식사를 통해 “본 협정은 양교간의 교수 및 학생의 교류를 더 한층 굳건한 토대위에 올려놓을 것이며 이 협정을 통해 학술발전은 물론 대한민국과 벨지움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 친선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 Cottenie총장은 답사를 통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이 협정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되면 앞으로 각종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한 접촉으로 교류실적은 훨씬 더 커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양교간 자매결연 조인식에서 합의한 교

류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교는 강의, 세미나 또는 공동연구를 위해 교수 또는 연구원의 교환방문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교는 1년간 각각 30일씩 체재비를 부담한다.
2. 양교는 각각 상대방 대학으로부터 파견되는 대학원생을 위해 1년간 12개월분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장학금의 액수는 등록금 및 생활비에 상당하는 액수로 한다.
3. 교류의 우선순위는 자연과학 분야, 응용과학 분야(공학), 의학 분야, 기타 분야의 순이다.
4.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간이며 이 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2년후에 교류실적을 평가하여 교류내용을 확대하기로 한다.

또한 본교는 1985년도 하계방학기간 중에 외국 자매대학과의 교류사업 확대를 위해 자매대학을 순방하고 그 구체적 사업내용에도 합의하였다. 1985년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각국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위해 박태원 총장과 김유항교수(화학)가 스위스의 쾰리히대학 및 미국의 메릴랜드대학교 하네만의과대학을 방문하였다. 미국의 메일랜드대와 하네만의대 방문에는 미국 현지에서 김만규(정의)교수와 백광일(정의)교수가 합류하였다.

박태원총장은 방문기간중인 7월 15일 쾰리히공과대학의 군텐 총장과 양교간 교수·학생교류에 관한 협정에 합의하였다. 또한 7월 19일 메릴랜드 대학교 과학·기술분야의 상호 교류에 관한 결연식을 가졌으며, 결연식에 앞서 매리웃호텔에서 각계인사 50여명을 초청하여 한국 경제개발에 있어서 교육수준 향상과 기술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이어 박태원총장은 7월 22일 필라

델피아지역 내의 대학 및 의료시설을 시찰하고 미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네만 의과대학의 브라운 총장과 의과대학의 교육과 의료시설 지원에 따른 협정과 결연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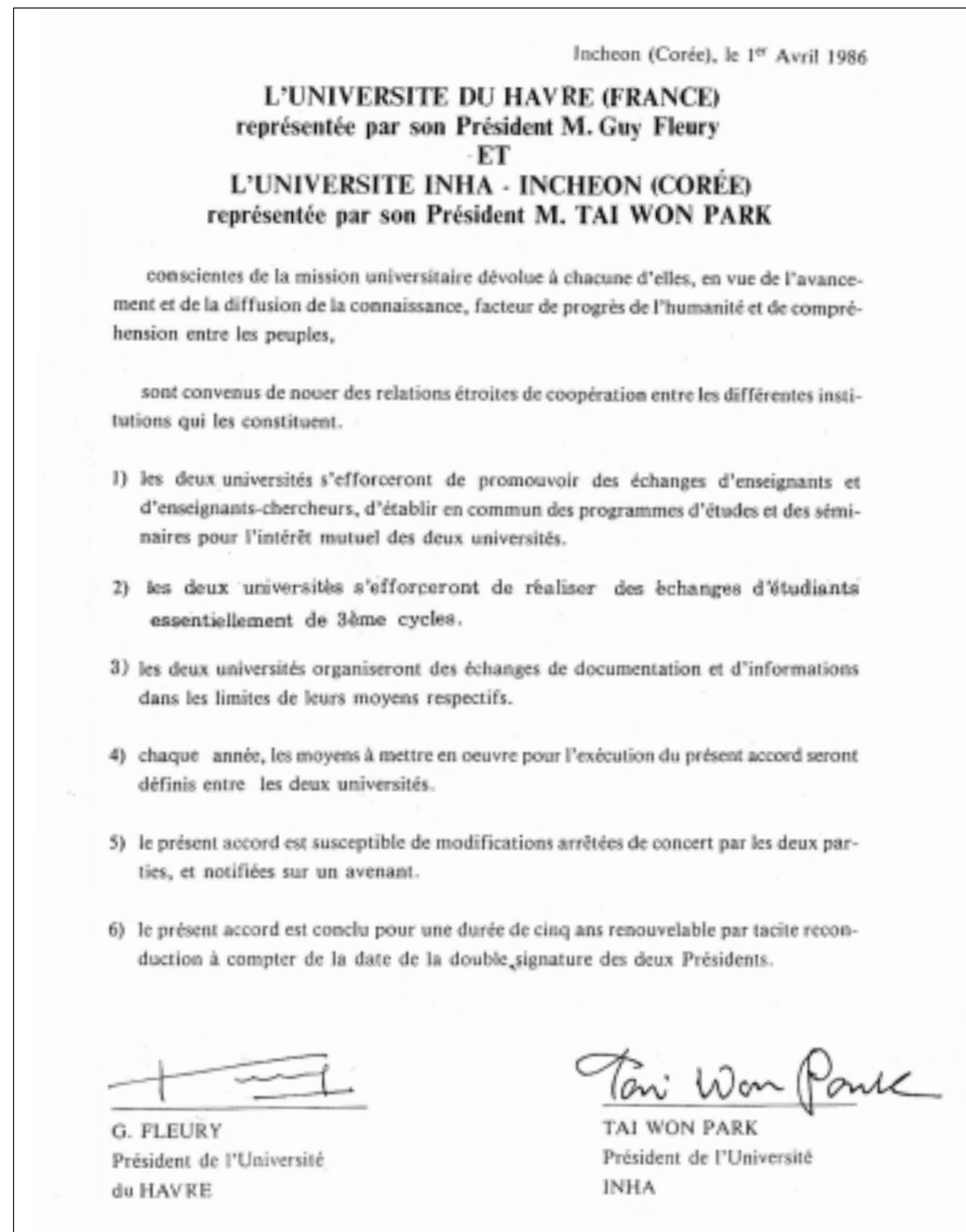
한편, 본교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와 함께 외국대학과의 학문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간 국제교류사업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교는 1986년 3월 학문의 범세계화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공동연구의 추진, 인적·물적 교류 및 문헌·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국제관계 업무를 일원화할 목적으로 총장 직속의 국제협력실을 설치하였고 초대 실장에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국제교류업무를 총괄해오던 金裕恒교수(화학)가 임명되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 업무는, 첫째 국제단체·국제협약에의 가입, 회원자격 유지, 탈퇴 등에 관련된 사항, 둘째 해외 자매대학에 관련된 사항, 셋째 교수 및 학생의 해외파견에 대한 협의 및 지원, 넷째 본교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협의, 다섯째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도 등이 있다. 국제협력실의 설치, 운영으로 대학간 국제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86년 3월 13일에는 일본 東海大學 학생생활연구소 今村義正소장 등이 본교 박태원총장을 내방하여 면학 및 복지시설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동해대학측의 본교 내방은 각국의 학생생활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한 것으로 동해대학의 今村義正교수 일행은 학생면학 및 복지현황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증축중인 학생회관을 비롯하여 시청

각교육원, 전자계산소 등을 참관하고 본교 발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돌아갔다. 또한 이보다 앞서 3월 10일에는 영국의 4년제 직업전문대학인 North East London Polytechnic의 부학장 Ian Waite 박사가 박태원총장을 내방하고 본교의 발전현황을 청취하고 돌아갔다.

1986년 4월 1일에는 본관 제 1회의실에서 프랑스 르아브르대학 및 루앙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본교 박태원총장을 비롯하여 르아브르대학의 G. Fleury총장, 루앙대의 B. Maitrot총장, 金鍾吉 인천해운항만청장 등 내빈 및 5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매결연식에서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과의 협정서

는 본교와 프랑스 양 대학과의 교수, 연구원의 교환 추진 등 6개항에 걸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결연식에서 박태원 총장은 “한·불 수교 1백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지역적으로는 이미 프랑스 르아브르항과 인천항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오늘 대학간의 자매결연이 더욱 기쁘며, 앞으로 양 대학과의 활발한 학문교류 및 친선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르아브르대 G. Fleury총장은 “신학기부터 실제적인 교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고 루앙대의 B. Maitrot총장은 “원활한 교류증진 및 기여를 위해 한국어강좌를 개설하는 등 교수, 학생, 연구원 교환에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연식이 끝난 후 프랑스 양 대학의 총장일행은 본교의 전자계산소를 비롯한 학교시설과 ‘라인 매스’ 건축전을 시찰하고 학사행정의 전산화 및 학문풍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양국 대학간에 체결된 교류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인천시 소재 인하대학교와 프랑스 르아브르시 소재 르아브르대학교(루앙시 소재 루앙대학교)는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우호 친선관계증진의 관건인 학문의 발전과 교류를 위한 대학의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양교 여러 기관들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본교 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교는 교수 및 연구원의 교환을 추진하고 양교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의 설정을 위해 노력한다.

- (2) 양교는 주로 박사과정의 학생교환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 (3) 양교는 각자의 능력 범위내에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한다.
- (4) 본 협정에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은 매년 양교가 협의 결정한다.
- (5) 본 협정의 내용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추가조항으로 부가한다.
- (6) 본 협정의 내용은 양교 총장들의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986년 4월 1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이어 4월 4일에는 본교와 프랑스 루앙시 사이의 교환 식수행사가 본교 정문 앞 분수대 옆 잔디밭에서 있었다. 이 행사는 루앙시 시청 정원에 3월 31일 본교가 보낸 은행나무 2株를, 본교에서는 루앙시에서 기증한 마로니에 나무 2株를 같은 날 식수하는 것으로써 루앙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중훈재단이사장과 박태원총장을 비롯 재단임원, 교무위원과 프랑스대사 부처, 인천 시내 주요 기관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1986년 8월 29일 거행된 198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본교와 자매결연 대학인 르아브르대 G. Fleury총장에게 명예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

일본의昭和대학과도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 소화대학의 이사장 겸 의과대학장과 2인의 교수로 구성된 대표단 일행이 본교를 방문, 1986년 4월 19일에 주로 의학분야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교류협정 조인

식을 가졌다.

이어 1986년 5월 29일에는 대만의 文化大學과도 자매결연을 맺었다. 문화대학과는 주로 어문계열 학생들의 상호방문, 연수를 목적으로 교류협정을 맺어 두 차례에 걸쳐 본교 중문학과 교수·학생 70여 명이 1986년 및 1987년 하기방학 중에 문화대학을 방문하여 연구와 어학연수를 실시하였다.

1987년 6월 18일에는 영국의 Newcastle 대학과 강의·세미나 공동연구를 위한 교수와 연구원의 교환방문 및 교육·연구 촉진을 위한 정보, 출판물 교환 등을 목적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

또한 1989년 2월 17일에는 미국 하와이 대학과의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하와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된 본교는 그간 하와이 교민사회 및 하와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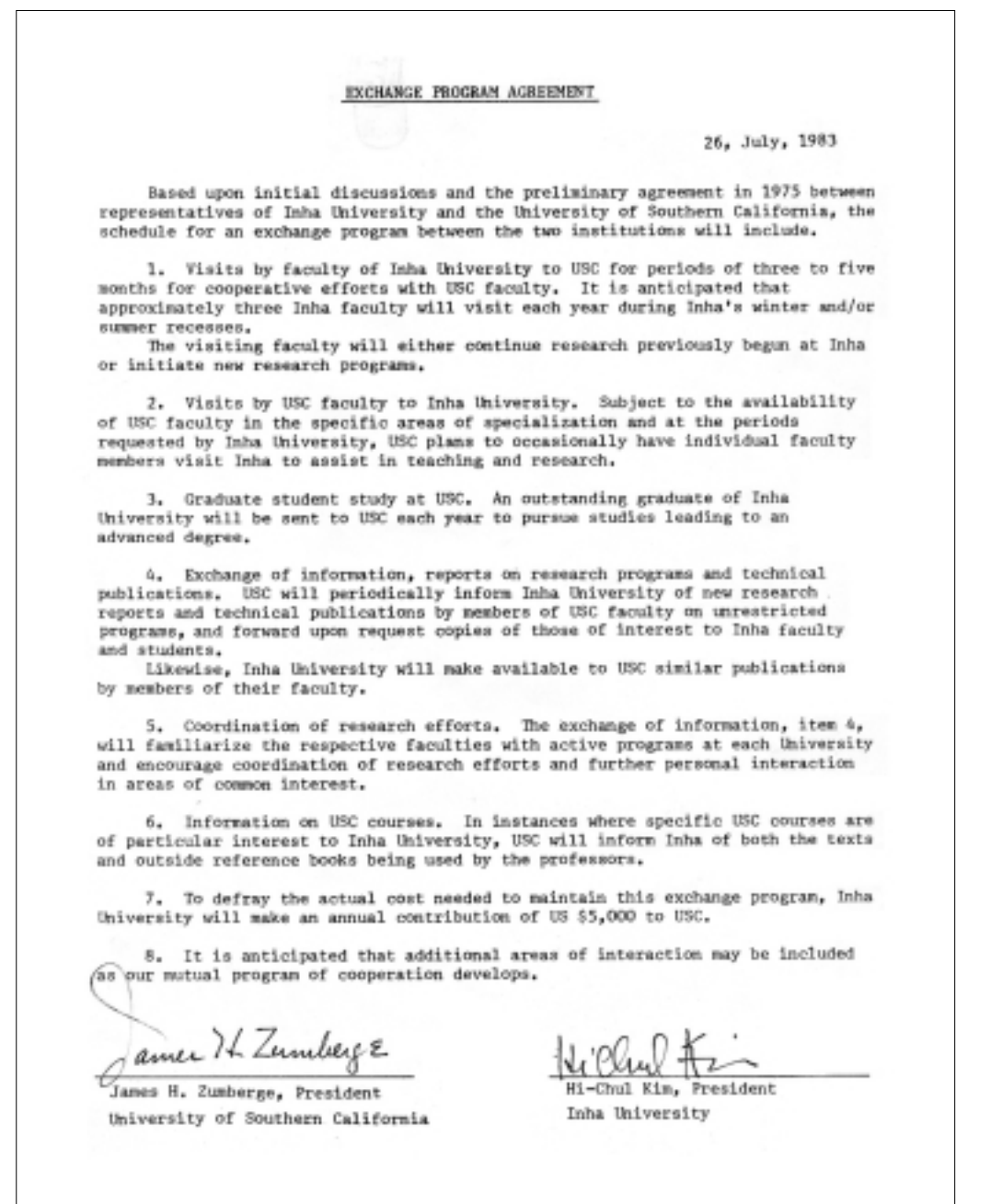
와 빈번한 교류를 가져오던 중 실질적인 교류의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이다. 박태원총장과 하와이대 Albert J. Simone 총장간에 체결된 교류협정의 주요내용에는 교수·학생의 교류, 각종 학술정보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연구, 체육 분야에서의 상호방문경기 등이 포함되었다. 이미 1988년에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의 학술세미나에 20명의 본교 교수가 파견된 바 있었는데, 양교간 교류협정이 정식체결됨으로써 학술교류는 물론 1989년과 1990년에는 양교 야구부가 상호 방문경기를 갖는 등 체육, 문화 분야까지 그 교류가 확대되었다.

이상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본교가 외국 명문대학들과 체결한 자매결연의 현황과 국제교류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자매결연 현황(1984~1989)

대학명	국명	체결일자	내용
젠트대학교	벨 지 음	1985.3.29	교수 및 연구원 교류 공동 연구 촉진 대학원 장학생 혜택 부여
하네만대학교	미 국	1985.7.22	교수 및 학생교류(의학 분야) 의학교육개선방법협의 공동 연구 추진
메릴랜드대학교	미 국	1985.7.19	교수 및 연구원 교류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학생 교류
루앙대학교	프 랑 스	1986.4.1	교수 및 연구원 교환 공동교육프로그램 및 세미나 설정 대학원 학생교환
리야브르대학교	프 랑 스	1986.4.1	교수 및 연구원 교환 공동교육프로그램 및 세미나 설정 대학원 학생교환 및 문헌 자료와 정보 교환
소화대학	일 본	1986.4.19	교수 및 연구원 교류(의학 분야) 공동 연구 추진 문헌·정보·간행물 교환

문화대학	대 만	1986.5.29	어문계 학생 연구 교수연구 편의제공
뉴캐슬대학교	영 국	1987.6.18	강의·세미나 공동연구를 위한 교수와 연구원의 교환방문 교육 연구 촉진을 위한 정보 및 출판물 교환
하와이대학교	미 국	1989.2.17	교수 및 학생 교류 정보 및 자료 교환 운동경기팀 교류



인하대USC 협정서



## 제2절. 중흥과 재도약의 전기

### 1. 시설확충과 연구활동의 활성화

#### (1) 시설의 확충

1990년 3월 30일, 인하대학교 제7대 총장 元永武박사의 취임식이 학교법인 인하학원 조중훈재단이사장을 비롯, 재단 임직원과 심재홍 인천직할시장 등 내외귀빈, 이용각 의무부총장 등 교수, 학생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1984년 2월 인하대학교 제5대 총장에 취임했던 朴泰源박사는 취임이래 인하대학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본교 1988학년도 입시를 두고 일부에서 그동안 사립대학의 관행으로 인식돼왔던 재단 임직원 및 교직원자녀의 특례입학 문제가 제기되자 총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1989년 2월 28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원영무박사를 부총장직무대행으로 지명, 교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이때 南宗祐 부총장도 총장과 함께 보직을 사임하고 화학공학과교수로 복귀하였다. 박태원박사는 사임 후 인하학원 재단이사로 전임하여 인하대학교 명예총장에 추대되어 인하의 발전을 후원하게 되었다.

박태원총장의 사퇴는 과거 박총장이 대학발전을 위해 이룩해 놓은 업적에 비추어 학교로서는 크나큰 아픔이었으나 온 인하인들이 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인하대학교 제7대총장에 취임하는 원영무박사는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서 부총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되어 1988년 11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약 1년간 총장 공백기의 본교의 학사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다가 본교 최초로 교수협회의 선거로 총장후보에 천거, 임명되어 임기 4년의 인하대학교 제 5대 총장에 취임한 것이다. 이에 앞서 1990년 1월 15일과 19일 본교 교수협의회 주관으로 인하대학교 제7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선거에는 교수협의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元永武(섬유), 愼鏞日(교육)교수와 교수협의회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梁玉龍(기계), 朴英傑(응물)교수 등 4명이 입후보하여 2명의 총장후보로 원영무·신용일교수가 당선되고 재단이사회에서 다수표를 얻은 원영무후보를 총장으로 임명, 문교부에 총장승인 신청안을 제출해 1월 22일 문교부로부터 승인된 바 있다.

신임 원영무총장은 인하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제1회로 졸업한 본교 동문으로서 본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71년 3월에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아래 인하대학교 학생처장, 중앙도서관장, 부총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해 온, 학식과 행정력 그리고 덕망을 겸비한 학자로 인하와 30여 년을 함께한 인하인이었다.

원영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소

임과 사명감 때문에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그간 오늘의 본교가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초대학장님을 비롯, 박태원 전총장님의 업적을 훌륭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총장은 “본교는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맞아 세계로 응비할 수 있는 훌륭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제 구성원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과감한 연구비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학내 각 연구소의 전문화, 기능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국제 학문정보 유통의 창구도 다원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대학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중훈재단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팔복할만한 오늘의 성장 인하는 오로지 교수 여러분들의 부단한 연구와 학생들의 면학정신, 그리고 직원들의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온 공로덕분”이라고 치하하고 “양적·질적으로 비약할 결정적인 시기에 풍부한 학식과 높은 덕망을 겸비한 元永武총장의 취임은 대학 및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사장으로서 우수교수의 확보,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 학생들의 면학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재홍 인천직할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은 일찍이 1883년 개항과 더불어 서구 문명의 도래지였던 유서깊은 역사의 현장이며 특히, 인하대학교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내의 동포들의 염원으로 창학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말하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인천 시민의 성원과 각 기관의 긴밀한 유대와 함께 신임 원영무총장의 많은 업적이 이룩되길 기대한다”고 축하하였다.

한편 신임 원영무총장의 취임과 함께 1990년 4월 安勇根교수(회계)가 부총장에 취임하였다. 신임 부총장에 취임한 안용근박사는 서울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한석유공사 감사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1980년 3월에 본 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래 줄곧 학문연구와 학생교육에 헌신해 온 학자이다.

1990년 3월 30일, 첫 인하대학교의 동문출신 총장으로 취임한 원영무박사는 남다른 열정으로 전임 총장 재임기간에 완료하지 못한 각종 시설확충작업을 마무리짓는 한편 새로운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충과 가구의 정비를 단행하는 등 모교인 인하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먼저 199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仁鏡湖 내 仁荷亭 보수공사와 노천극장 건설이 착공되어 한달여 만에 완공을 보았다. 특히 노천극장의 건설은 학생들의 각종 문화생활을 주도해 나갈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학생회관 옆 공터에 마련된 것으로 약 7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탠드와 간이무대, 극장 주변의 조경 등 각종 야외 문화행사를 치르기에 규모는 적으나 아담하게 꾸며졌다. 메머드급 학생회관의 신·증축에 이어 인경호의 정화사업, 인하정의 보수, 그리고 노천극장까지 마련됨으로서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한 학생

들의 문화활동 공간체계가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1991년 5월에는 기존의 구내전화 시스템이 수동인 DID(직통교환)로 바뀌었다. 관리과에서는 5월 18일과 19일, 5월 25일과 26일 4일간에 걸쳐 구내전화 보수,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800회선을 200회선 증설하고, DID방식 회선 200회선을 추가로 증설하였다. DID방식은 외부에서 학교에 전화를 걸 때 교환을 거치지 않고 고유번호만으로 통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5월 27일부로 개통되었다. 전화방식 교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3~4년 정도의 예비회선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부에서 구내로의 전화가 한층 편리해졌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후생 복지시설도 확충되었다. 1991년 6월에 착공하여 1992년 2월에는 최신의 시설과 휴식공간을 두루 갖춘 교직원식당이 준공되었다. 대학 본관 옆에 자리잡은 교직원 식당에는 반지하1층 규모로 연면적 총 368평으로 식당홀, 주방, 연회실, 로비 및 서비스야드, 각종 부속시설(종업원실, 탈의실, 샤워장 등)이 들어섰다. 약 12억원이 소요된 교직원 식당의 신축으로 그동안 교직원 식당으로 사용되어 왔던 학생회관 3층은 학생 식당으로 확대 개장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도 확충되었다. 1990년 11월 2일에는 5호관 서관 및 6호관 옥상층에 돔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착공되어 약 1년여 지난 1991년 3월 31일 완공되었다. 약 2억 9천8백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완공된 5·6호관 돔에는 각각 열람실을 주축으로 휴게실, 교수연구실

이 자리잡았다. 이어 1992년 1월 23일에는 약 12억 3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호관 북관 6층 증축공사에 착공, 1992년 8월 31일에 준공의 보였다. 새로 준공된 2호관 북관의 6층에는 강의실과 교수연구실이 들어섰다.

그리고 1992년 1월 7일에는 독립된 형태의 고시반 건물의 신축공사에 들어가 1993년 2월 11일에 완공되었다. 학생회관 뒤편의 한적한 녹지공간 내에 마련된 고시반 건물 '萬耕齋'의 공사에는 총 5억 6천5백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지상3층, 지하 1층으로 총 325평에 21개의 공부방과 회의실, 탁구장, 취사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쾌적한 녹지공간에 독립된 고시반 건물이 완공됨으로써 기술, 행정, 사법, 외무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 시키는 물론 대학 전체의 면학분위기 제고에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

1992년 1월 7일에는 본 대학 전자계산소 증축공사가 착공되어 1993년 8월 15일에 준공되었다. 총 공사비 16억 8천6백만원이 투입된 전자계산소 증축공사로 기존의 전산센터(4호관) 옆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실습실이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의 전자계산소와 2호관 동쪽건물의 사이에 증축된 전자계산소 실습실에는 200여 대의 32bit급 컴퓨터와 매킨토시 컴퓨터가 새로 도입되어 각 층별로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 즉 1층은 각 단과대학



공대별관의 전자계산소

신입생들의 전산과목 개설에 따른 수업 및 실습과 관련하여 개인용컴퓨터 100여대 규모의 실습실과 강의실로, 2층은 LAN(근거리 정보통신망) 및 특수목적의 컴퓨터 실습실,

3층은 하드웨어 실습실과 세미나실 등이 들어섰다.

1990년 이후 신·증축된 학교 주요시설의 확충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신·증축된 시설공사현황(1990~1993)

종류	공시명	용도 및 공사내용	공사금액	공사기간
신·증축	5호관 서관·6호관 옥상층 증축공사	• 5호관도서관 561.6㎡ 6호관 488.8㎡, 독서실시설	2억 9천 8백만원	1990.11~ 1991.3.31
	교직원식당 증축공사	• 1호관 지층서편 1,142㎡ 식당	12억 3백만원	1991.6.12~ 1992.2.28
	2호관북관 6층 증축공사	• 강의실, 연구실 2,492㎡ 시설	12억 3천 6백만원	1991.1.23~ 1992.8.31
	고시반신축공사 (구 고시반 철거)	• 지하1층, 지상3층 1,107.6㎡ 시설	5억 6천 5백만원	1992.6.30~ 1993.2.11
	전자계산소 증축공사	• 기존전산센터(4호관) 옆 • 지하1층, 지상3층 2,549㎡ 실습실	16억 8천 6백만원	1992.1.7~ 1993.8.15

계속적인 시설의 확충과 함께 학과의 신·증설과 조정도 꾸준히 추진되어갔다. 1990년 11월 8일부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醫學科 및 統計學科가, 박사과정에는 電子計算學科의 신설이 인가되어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6계열 39개학과, 박사학위과정은 5계열 32개학과가 되었다. 이어 1991년 10월 22일에는 공과대학 응용물리학과와 전자계산학과가 각각 電子材料工學科 및 電子計算工學科로 학과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992학년도 본교 입학정원 중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0명, 전기공학과 10명, 전자계산공학과 30명의 정원증원이 인가되었다.

또한 1992년 7월 30일에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自動化工學科, 生物工學科, 家庭管理學科가 신설되어 6계열 42개학과가

되었다. 7월 31일에는 공과대학 자동화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등의 정원이 증원되었고 해양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행정학과, 일어일본학과는 정원이 감축 조정되었으며 의과대학에 간호학과의 신설이 인가되었다. 이어 10월 26일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자연계 '학연합 연구과정'이 신설되어 대학원은 동과정 12명을 포함, 724명에서 746명으로 인가되었다.

한편 학과의 신·증설에 따라 부족해진 교수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우수 신입교원의 충원에도 힘을 기울여 1990년 3월 제 7대 원영무총장이 취임한 이래 1993년까지 총 119명의 우수교원이 초빙되었다. 원영무총장 취임 이후 1993년까지의 연도별 교수초빙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도별 교수초빙 상황(1990~1993)

연도(인원수)	교수 ( )안은 학과명
1990(27)	(전기) 李福熙, (전자) 郭慶燮, (화학) 朴東化, (토목) 丘民世, (화학) 李益謨, (통계) 李在準, (정의) 金義坤, (영문) Susan Oak, (중문) 崔翼晚, (일문) 大畑裕嗣, (식염) 崔銀玉, (의학) 金基洙, 孫炳權, 崔剛, 金九相, 安在浩, 文卿鎬, 李庸昊, 金永俊, (독문) 宋世好, (섬유) 李翰燮, (독문) 金良焄, (식염) 張慶子, (의류) 趙又鉉, (영어) Linda Cooley, (영문) Virginia Martin
1991(26)	(환경) 趙碩衍, (무재) 高允庚, (물리) 金祺植, (회계) 李尙樹, (사회) 李琦雨, 洪得杓, (의학) 盧亨根, (기계) 崔承福, (자동차) 金學一, (전자) 崔相坊, (응물) 元太映, (화학) 陳明鍾, (생물공) 金東一, (자원) 全普鉉, (수학) 宋庸鎭, (통계) 金眞卿, (화학) 鄭元朝, (생물) 曹聖昊, (법학) 崔興燮, 金敏培, (국문) 鄭學成, (가정) 余禎星, (의학) 朴소라, (영어) Carol Kim, (불문) Lydia Salord, (의학) 鄭坪林
1992(39)	(기계) 鄭東壽, (선박) 成宇濟, (자동차) 庾尙鳳, (전자재료) 尹英燮, (전자) 尹廣燮, 朴孝達, (진신) 李珪奎, 趙根植, (생물공) 蘇在成, (토목) 尹汝原, (물리) 朴炯奎, (국어) 金泳, (행정) 鄭一燮, 金千權, (정의) 徐圭煥, (국문) 朴昌遠, (중국) 李在光, (의학) 金英培, 趙淑, 鄭媛在, 吳聖太, 高光坤, 趙哲浩, 朴贊燮, (건축) 李鉉秀, (수학) 朴濟男, (물리) 李在雨, (진신) 金裕成, 韓昌昊, (물리) 李錫謬, (영문) 韓文燮, (국문) 洪廷善, (금속) 金明鎬, (선박) 李太吉, (건축) 董政根, (독문) Thomas Ubrich, (화학) 崔英植, (의학) 朴在厚, (불문) 李洪
1993(27)	(기계) 趙鍾斗, 金震鎬, 李洪熙, (전기) 許昌洙, (고분자) 金喆熙, (섬유) 姜福春, 薛彰, (환경) 裴在鎬, (토목) 延程欽, (화학) 趙亨鎭, (통계) 黃鐵洙, (경영) 林炳勳, (교육) 朴榮信, (행정) 金榮敏, (의학) 朴仁善, (간호) 李玲子, (의학) 金順基, 俞伸河, 黃健, 李弘植, 高承權, 李承哲, 吳聖燮, (기계) 李昌彥, 梁暉洙, 黃炳福, (금속) 黃雲碩

(2) 연구활동의 활성화

1990년 3월 30일 제7대 인하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원영무박사는 취임사를 통해 “그 동안 대학의 양적인 팽창으로 인한 협소한 교육시설의 보완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과감한 연구지원에 힘쓰겠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학내 각 연구소의 전문화, 기능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국제 학문정보 유통의 창구도 다원적으로 개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각종의 대학부설 연구소가 신



제7대 원영무총장

설되는 한편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부서의 정비가 추진되

었다. 즉 1991년 4월 1일에는 기획처 내에 연구담당 부처장직을 신설하면서 산하에 연구지원과를 설치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지원업무를 총괄토록 하였다.

그러나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대학부설 연구소의 신설이 계속됨에 따라 기존의 기획처 산하 연구지원과를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교는 1992년 5월 1일부로 硏究處를 신설하였다. 연구처는 기획처 산하의 기존 연구지원 행정조직인 연구담당 기획부처장, 연구지원과·계를 이관하여 신설하였다.

연구처의 신설로 교수 연구활동의 전문화, 연구시설의 종합관리 등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체계가 강화되었다.

신설된 연구처의 주요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구관련 정책 수립 및 규정제정
- ② 대학부설연구소 관련 행정지원
- ③ 연구기록의 관리
- ④ 연구소 논문집 발간지원
- ⑤ 연구제도 수립 및 개선
- ⑥ 연구관리위원회 운영
- ⑦ 연구계약 체결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수행
- ⑧ 연구정보의 수집 및 분석
- ⑨ 연구진흥업무
- ⑩ 연구비 지급 및 중앙집중관리
- ⑪ 특허 및 사후관리
- ⑫ 연구백서 등 연구관련 간행물 발간
- ⑬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및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⑭ 연구관리 간접비 징수 및 관리
- ⑮ 연구비 집행의 관리
- ⑯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
- ⑰ 연구결과 평가의 관리
- ⑱ 외국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 ⑲ 기타 연구업무 행정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한편, 연구처의 신설은 연구지원 행정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지원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 반면, 대학부설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의 차원을 넘어 연구소 재직의 연구인력(연구교수, 조수 등)의 업무를 연구처로 흡수하는 등 각 연구소 고유의 연구기획과 운영의 일부까지도 관장함으로써 연구소 본연의 학문적 독자성과 창의성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본교의 학문적 발전이 본격화되고 교수들의 연구활동 범위가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새로운 학과가 신·중설되는 한편, 연구소의 신설도 꾸준히 계속되었다. 원영무 총장은 이미 취임사를 통해 “21세기 첨단 학문연구에 수반되는 기초 학문분야의 학교연구비 지원과 응용연구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업 연구 관련기관 및 재단산하 연구단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넓혀 연구 분위기 진작과 산학 협동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연구소의 신설도 주로 이공계통의 첨단학문 분야와 응용과학 분야에 집중되었다.

먼저 1990년 10월 22일부로 대학부설로

高分子研究所, 素材研究所, 컴퓨터科學應用研究所의 설치가 각각 인가되었다. 고분자연구소는 본 대학 공과대학에 고분자공학과가 설립된 지 20년이 될 뿐만 아니라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등에서도 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 모든 연구역량을 결집, 고분자 신소재에 대한 기초 및 개발연구와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학 협동을 통한 한국 고분자 과학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대학부설로는 전국에서 본교에 처음 설립된 것이다. 또한 소재연구소는 금속 및 복합재료, 세라믹스재료, 전기·전자재료 등 신소재에 관한 이론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컴퓨터과학응용연구소는 본 대학 내에 컴퓨터과학의 전공교수들이 전자계산학과, 자동화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경상계열의 학과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첨단과학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과학의 연구 및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존의 전자계산소의 운용과 아울러 컴퓨터과학응용연구소가 설립됨으로써 본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원 및 연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대규모 산학협동 연구과제 등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6월 10일에는 대학부설로 CFC代替시스템工學研究所, 情報電子共同研究所, 環境研究所, 經濟研究所의 신설이 각각 인가되었다. CFC대체시스템공학연구소(CASERI)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현상을 야기시키는 염화불화탄소물질(CFC)의 대체에

필요한 제반 기술들을 연구, 개발, 실용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정보전자공동연구소는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전자기술에 관련된 기초연구 및 실용연구를 수행하고 우수인재의 양성 및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3년 간의 준비작업 끝에 설립된 것이다. 또한 환경연구소는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을 비롯한 타 도시의 환경문제 연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경영연구소는 경영활동의 주체인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한 학문적, 산학협동적, 실천적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산학 공동 프로젝트 및 경영학 분야 학술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이 시기에 신설된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이공계통의 분야에 집중되고 영역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으며, 첨단학문의 응용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에의 기여, 즉 산학협동을 표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부설연구소 신설의 기초는 이미 총장의 취임사에서 본 바이지만, 이러한 연구소의 신설과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동안 본교 이공계 학문의 연구역량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역량을 바탕으로 1993년 11월 8일에는 우리나라 및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하고자 대학부설로 기술지원센터의 신설이 결정되었다.

한편 1992년 11월 9일, 본교 대학 중 처음으로 '박사후과정 연구원제(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를 신설하였다. 이것은 박사학위 취득 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40

세 이하의 박사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지도교수와 1년 단위의 연구계약을 맺고, 연간 일정의 연구비를 받으며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케 하는 제도로써, 박사후 과정 연구원의 전공분야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함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방법 과목을 통한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대학원 연구분위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연구지원부서가 정비되고 각종 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연구소 및 학회를 중심으로 교수들의 연구활동 또한 활성화되었다. 원영무총장 재임기간 동안 학내외에서 본교(연구소, 학회 등) 주최로 개최되었던 주요 연구활동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1월 10일, 본 대학교 5호관 강의실과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로 '1990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발표회에는 본교를 비롯, 한국과학기술원, 공군사관학교,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소, 서울대 등 10여 개 연구단체에서 약 8백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구상희박사의 특별강연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 발전방향>에 이어 분과별 발표가 진행되었다. 공기역학에 대한 학술발표가 있었던 제1발표회 장에서는 <고차항 특이치 분포방법을 이용한 포텐셜 유동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이장창, 유홍선교수(중앙대)의 발표, 그리고 강승희, 유상신교수(항공대)의 <Riblet형상이 표면 마찰항력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유체역학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제2발표회

장에서는 <높은 마하수에서의 비점성 충격과 상호작용>을 김종관·장근식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앞전 플랩을 갖춘 삼각익의 항공역학적 연구>를 오세종교수(부산대)가, 그리고 <쌍유체 분사노즐의 분무특성에 미치는 노즐형상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충원, 김병문, 원종대교수(경북대)가 각각 발표하였다.

1991년 4월 26일에는 본교 교수회의실에서 본교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주최로 "2000년대를 향한 대학의 컴퓨터 활용방안"이란 주제의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이관박사(21세기위원회 위원장)의 <21세기 미래사회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연설, 마중수, 이균하(본교 전산), 박찬모박사의 주제발표, 기념행사, 리셉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항공 조양호 수석부사장이 기증한 IBM 4381-902 시스템 가동식 및 컴퓨터시스템의 효과적 사용과 축적된 각종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학내 근거리 통신망으로 구축된 INHANET의 시범도 있었다. 그리고 1992년 2월 11일부터 3일간 본교 교수회의실에서 본교 기초과학연구소 주최로 "국제수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수학이 한층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수학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고자 개최된 이 심포지엄에는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Fields 상을 수상한 S. Mori 교수(일본 경도대)와 S. T. Tau교수(하버드대)를 비롯, S. Mukai교수(나고야대), K. Saito교수(경도대), E. Freitag교수(하이델베르크대), W. Schmid교수(하버드

대) 등 세계적 명성을 가진 수학자 7명이 초청되어 강연을 가졌다. 심포지엄 첫날에는 본 대학 양재현교수(수학)의 개회사로 시작해 원영무 총장의 축사가 있었고 심포지엄 후 마지막날의 폐회사와 교수회의실에서 리셉션으로 3일간의 국제수학 심포지엄이 막을 내렸다. 이 국제수학심포지엄이 본교에서 개최됨으로써 본 심포지엄을 주최한 기초과학연구소의 대내외적 위상과 입지가 강화됨은 물론 기초과학 분야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 대학 전자계산소에서는 1992년 9월부터 교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우편(게시판)과 국내연구망, 해외통신 등을 총망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첨단적 시스템이 국내대학 최초로 개발되었다. ‘인하종합정보시스템/네트워크(Inha Total Information System/Network)’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교내의 호스트컴퓨터인 IBM MV 10000, 다수의 Workstation과 교수연구실, 행정부서, 학

생실습실의 천여 대의 터미널(PC)을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국내연구망(Kreonet)과 해외통신망(Intemet)을 연결한 것이다. ITIS/NET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인 인하종합정보시스템은 1985년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개발 운용된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이며 1987년 7월 체신부 주관 제 1회 한국 소프트웨어공모전에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ITIS/NET의 근거리 통신망은 이미 1992년 3월부터 운용되어 교직원, 학생, 교내 각 행정부처 등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연구망(Kreonet)과 해외통신망(Intemet)이 운영되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전자계산소장 배해영교수(전산)는 “ITIS/NET의 개발로 대학의 모든 사무노력과 경비가 가능한 한 교육을 위한 부문에 투자되도록 사무행정을 전산화할 수 있고 대학내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교직원, 학생,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



한·불 공동심포지엄

공대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ITIS/NET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컴퓨터통신을 통한 정보의 상호교환 및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국내 대학간의 학술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되어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큰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학내간 공무처리 및 전자우편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3년 4월 28일, 본교 중앙도서관은 인하종합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포항공과대학과 교육·연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한 “학술정보자료의 공동이용”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으로 국제학술정보망(Intemet)을 이용하여 양 대학 도서관 소장 데이터베이스의 무료검색과 상호소장자료에 대한 문헌복사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교간 학술교류의 증진은 물론 연구분위기를 한층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5월 25일에는 본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주최로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한·불 공동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경인지역과 국내의 산업·학계 관계자에게 새로운 기술동향을 제시해 준 이 심포지엄은 <용수 및 폐수처리를 위한 물리화학적 처리공정에서의 최근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남상호교수(건국대)의 사회로 <물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막공정의 최근 동향과 발전>, <압착이론>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부에서는 본교 윤태일교수(환경)의 사회로 <유동층을 이용한 응집기술의 폐기물처리와 조류 분리에의 지원> 등 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인문과학 분야의 전국 규모 학술대회도 개최되었다. 한국교육학회는 1993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육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본 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1세기 한국교육을 전망하고 이에 합당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찾기 위한 이 학술대회에는 교육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관련 논문 1백여 편이 발표되는 등 대규모의 행사로 치루어졌다. 대회 첫날인 28일에는 본 대학 원영무총장을 비롯, 오병문 교육부장관, 정원식 전총리 등 내외인사가 모인 가운데 한국교육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초청강연, 정기총회가 진행되었고, 29일에는 분과별 주제발표 및 토론이 본관 교수회의실과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교육행정연구회, 교육심리연구회 등 한국교육학회 산하 11개 분과의 분과별 논문발표가 있었다.

교육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21세기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시기 적절하고 뜻깊은 행사”라고 밝히고 “산적한 교육과제를 해결하고 교육개혁을 이루는데 일조하리라 믿는다”고 학술대회 개최의의를 지적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이돈희교수(서울대)는 <21세기의 사회와 한국의 교육>이라는 논문을 통해 근대화와 함께 진행된 현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20일의 주제발표는 모두 4개 영역으

로 구분한 뒤 각 영역을 다시 3개 소주제로 나누어 논문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논문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의 내용을 보면 이종각교수(강원대)는 〈한국교육의 실상과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논문발표를 통해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교육개혁관 개혁, 교육개혁을 결단했을 때는 그 기초를 다지는 개혁, 민간부문의 자율규제에 의한 개혁” 등 8가지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본교 정영수교수(교육학)는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의 방향을 “민주화 교육, 민족의 교육, 인간화 교육”으로 설정하고 민주시민 교육이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최운실 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성인교육의 실상과 미래지향적 발전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성인교육의 형성배경과 실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국가의 성인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의지와 대중매체의 성인교육적 활동 제고 등 5가지 정책방안을 강조했다.

학술대회 개최의의와 주제설정 배경과 관련, 한국교육학회 상임이사인 본교 김홍규교수(교육학)는 “본교 개교와 학회 창립이 다같이 4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의 본교 유치의 의미는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 지적하고 “21세기를 앞둔 현 상황에서 교육체제, 내용, 목표 등 교육계 문제를 총괄하고 향후 개혁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주제발표의 주된 내용”이라고 대회의 의의를 밝혔다.

## 2. 국제교류의 증진

교수들의 연구활동인 왕성해지고 본교의 대내외적 위상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본교는 국내대학은 물론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들과 상호 친선도모 및 학문적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학문의 발달과 문화교류에 기여함은 물론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특히 1990년대 전반기의 외국대학과의 국제교류는, 이전의 국제교류가 대체로 자매결연의 체결에 의한 학문의 국제교류에 한정되었던 데에서 한걸음 나아가 교수들 간의 학문교류는 물론 친선의 도모, 학생들의 어학연수, 스포츠교류 등 문화영역 전반에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1990년 4월 7일, 프랑스 루앙대학은 본교가 같은 달 3일 경기도 광주군 은행나무연구원에서 채배한 키 2m의 은행나무 500그루를 보낸 데 대한 답례로 프랑스의 國樹라 불리는 마로니에 150그루를 본교에 보내음으로써 본교와 루앙대의 나무교환이 1986년 양교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1987년에 이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양교 간 친선을 도모하고 프랑스 루앙시의 대기오염 해결책의 일환으로 정화효과가 큰 은행나무를 적극 지원키로 한 본교는 이미 1987년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루앙대에 기념식수한 후 큰 호응을 받아 500여 그루를 대거 지원하게 된 것이다.

한편 루앙대가 보내온 마로니에의 식수행사가 개교기념일인 1990년 4월 24일 상 오후 11시 대학본관앞 뜰에서 거행되었다. 양

교가 은행나무 500주, 마로니에 150주를 교환함에 따라서 개교 36주년 기념사업으로 가진 이 식수행사에는 원영무총장을 비롯, 申泓鈞 인천시교육감, 주한 프랑스대사관 빠스기에(Pasquier) 문화과학기술협력관, 李尙鎬 경기도은행장, 프랑스 크레디트리오네(Credit Lyonnais)은행 한국지점 마르드보(Marc Devaux), 교직원, 학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원영무총장은 “1986년 루앙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조중훈이 사장의 제의로 1987년 시작된 은행나무·마로니에 교환 식수사업은 이제 양 대학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루앙시의 사업으로 진전되었으며 머지 않은 장래에 마로니에 꽃향기와 함께 한·불 양국간의 우의도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프랑스대사관의 빠스기에 협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은행나무와 마로니에 교환식수 행사는 양 대학의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와 더불어 한·불 양국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화교류사업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영무총장은 마로니에 50주를 沈載鴻 인천시장에게 기증하였으며 인천시는 이날 하오 장수동 인천시민대공원에 마련된 부지에 마로니에를 심어 쾌적한 마로니에 공간을 인천시민에게 제공했다.

1990년 6월 11일부터 5일간, 본교의 자매대학인 영국 뉴캐슬대 랭귀지센터는 본교 외국어교육원 제 4시청각실에서 영어의 읽기, 쓰기 기능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뉴캐슬대 랭귀지센터의 Philip Shaw 교수를 비롯하여 본대학 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외국어교육원 교수 및 조교 20여 명

이 참가한 이 워크숍에서는 “Workshop for the Teaching of Reading and Writing Skills”란 주제로 언어교습에 대한 세미나 등이 진행되었다.

1990년 7월 20일에는 원영무총장을 비롯, 白光一 국제협력실장(정의), 宋在祿교수(중국어) 등이 중국 山東大 및 延邊大와의 학술교류를 위해 출국, 이미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산둥대를 방문하여 상호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26일에는 연변대 朴文一총장과 학술 및 연구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우선 2학기 중 연변대의 학생 1명을 본교 석·박사과정(인문계)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한·중 수교 이전인 1989년 3월초에 연변대학의 朴文一총장이 학술교류차 본교를 내방하였고, 동년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본대학의 尹炳奭교수(시학)와 王昌鍾교수(전산)가 답방형식으로 연변대학을 방문하여 양교간 학술교류를 트기 위한 ‘비망록’을 교환한 바 있다. 이 교류로 특히 본교는 중국 산둥지역과 근접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제반 학술교류의 길이 대폭 트이게 되었다.

한편 1990년 10월 23일, 본교 대학원은 20여 년간 우리나라 국방과학 관련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미국 스티븐스공과대학 빅터 린드너(Victor Lindner)교수에게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서울 현암빌딩 강당에서 열린 명예공학박사 학위 수여식에는 원영무총장을 비롯, 국방과학연구소 안철호소장, 한국화약(주) 오재덕사장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자매대학과의 스포츠교류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1년 6월 12일부터 일주일간 본교 야구부는 자매대학인 하와이대학교의 야구팀을 초청, 본교 야구장에서 친선경기를 열었다. 하와이대 야구팀 27명을 인솔한 Don Takaki 단장은 6월 14일 원영무 총장을 예방하고 양 대학간의 스포츠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격년제로 상호 방문 경기를 갖기로 한 양 대학 야구팀은 본교에

서의 경기를 마친 뒤 같은 날 20일부터 열린 제 5회 히로시마국제친선야구대회에 함께 참가했다. 이 대회에는 처음으로 본교가 초청되어 출전하였으며 본교는 일본 廣島 6개 대학 선발선수팀, 하와이대 야구팀과의 경기에서 전승 우승했다.

그리고 1992년 9월 3일에는 자매대학인 중국 연변대의 申鉉武부총장이 본교 원영무총장을 예방하여 양 대학간 학술교류 증진에 관해 환담하고, 본관 지계층 강당에서 <중국의 조선족 교육현황>이란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安勇根부총장, 교무위원,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에서의 조선족 생활상, 민족교육의 실태, 중국의 개방·개혁정책 등에 관한 폭넓은 내용이 소개되어 양교간 우호증진은 물론 중국 현지의 교포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본교가 외국대학들과 가진 주요 국제교류활동 및 자매결연 추진현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매결연 현황(1990~1993)

자매대학명	국명	체결일자	체결주요내용
연변대학교	중국	1993. 3. 23	• 교수 및 연구원 교환 • 공동연구 추진, 정보 및 자료교환
Moscow State Technical University	러시아	체결협의중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러시아	체결협의중	



인하대-켄트대 교류협정체결

△ 외국대학과의 교류활동(1992~1993)

대학	교류내용
르아브르대 (프랑스)	• 한진재단 : 학생연수 - 한진해운 (3명) - (주)한불중합금용 (2명) - (주)대한항공 (2명)
미시간대(미국)	• 미국대학방문기간 중 국제협력기금 기증
르아브르대(프랑스) 루앙대(프랑스)	• 자매결연 재조정 • 협력 프로그램 구체화할 목적으로 방문
오클라호마주립대 (미국)	• 오클라호마 주립대 부총장 Dick Pode경영대 학장 Robert L. Sandmetey 양대 학간 협력방안논의 위해 본교 방문
러시아 및 백러시아대 (러시아)	• 러시아 모스크바 바우만대 · 모스크바 로모노소브대 백러시아 Byelroussia Polytechnical Institute 방문 - 교육·연구제도 시찰과 협력가능성 점검
사이먼 후레이저대	• Simon Fraser Univ. 일행과 본교인사 - 협력 교류분야 의논
하와이호놀룰루 U.S.A	• 호놀룰루 KTV 본교 취재차 방문
천진대학 (중국)	• 본교에 대한 이해증진 및 양 대학간 상호협력 가능성 타진을 위해 방문 (사회과학연구소 주관)
나고야대 (일본)	• 고분자연구소 세미나 강연(고분자공학과 주관)
하와이대 (미국)	• 해외 우수대학내 한국연구 활성화 방안 및 지속적인 협력관계 모색을 위해 내교 - 방문단 : 총장 Kenneth P. Mortimer, 한국학센터 소장 서대숙

△ 외국대학과의 교류활동(1990~1991)

대학	교류내용
뉴캐슬대 (영국)	• Dr. B. D. Green 방문 - Language School 학생교류 Continuation of joint project • 한국 대학생용 실용영어 교재 공동 제작 • 교수진 및 학생교류 - 강철일 교수 파견 • Saki 교수 내교 - 특강 실시(화학과 주관)
르아브르대 (프랑스)	• 부총장 Micheal Belorgey 교수가 본교 대학원 강의 • 한진재단: 대학생 3명 연수 • 주 Rouen 한국명예영사 김양희 박사가 내교하여 의과대생 대상으로 학술 세미나 및 강의 실시 • 교수진 연구시찰 파견
연변대 (중국)	• 본교 교수 시찰단 20명 파견 • 부총장 신형무 교수 본교 방문 - '중국의 조선족 교육현황'에 관한 강연회 실시
브리티시콜롬비아대 (캐나다)	• 이뤘발 교수 내교 - 특강 실시(기계공학과 주관)

### 제3절. 中長期 발전계획

한진그룹 趙重勳회장은 1968년 9월 그 동안 건설한 재단의 부재로 내실있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학교 운영상 난항을 거듭하던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인수하고 이사장에 취임한 이래 인하학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하학원 인수당시 11개학과 재학생 2,000명의 단과대학이던 인하공과대학이 학원인수 4년 만인 1972년에는 종합대학인 인하대학교로 승격되었고 학교법인 인하학원은 1994년 4월 현재 인하학원 캠퍼스 안에 다음과 같이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각 급학교에 25,000명의 재학생이 면학하는 국내 굴지의 私學으로 발전한 것이다.

- ①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27학급 1,420명
- ②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27학급 1,302명
- ③ 인하공업전문대학 21개학과 5,815명
- ④ 인하대학교 8개대학 54개학과 15,146명
- ⑤ 대학원 및 4개 전문대학원 1,817명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인하학원의 양적 팽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원운영의 내실화의 토대 위에 인하학원 제2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 굴지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

기 위한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인하대학교 30주년이 되는 1984년 이후 10년 동안 인하대학교 발전을 위한 재단의 중요 지원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86년 3월 20일 인하학원 재단 한진그룹 산하기업인 주식회사 韓進(사장 金建培)은 인하대학교 교직원 통근용 버스로 고속버스 두 대를 기증하고 본교 교직원의 출퇴근 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년 12월말부터 재단 그룹 산하의 韓逸開發(株)에서는 인하대학교 본관 현관의 방풍실 설치, 회랑 바닥타일의 교체, 이사장실·총장실의 보수작업에 착수하여 이듬해 4월에 완료하였다. 이 공사는 조중훈이사장이 현관 주변시설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감안, 한일개발에 공사를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약 6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는 한일개발이 부담하였다.

1987년 2월 13일 한진그룹 회장인 인하학원 조중훈이사장은 본교와 자매대학인 프랑스 루앙대학교로부터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학위수여식에는 루앙대 총장을 비롯, 역시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프랑스 르아브르대총장 등 프랑스 경제·사회계 인사가 다수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프랑스 대학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조중훈이사장은 한불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이며 한국의 교육·경제발전·한불경제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것이다. 조중훈이사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증진은 물론 이후 인하대학교와 루앙대학 양교간 학술교류와 우호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8월 25일에는 본 대학교 캠퍼스 구내에 있던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의 학익동 신축교사가 완공되어 입주식을 가졌다. 입주식에 참석한 조중훈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법적인 인재육성의 뒷받침으로 첨단 교육시설과 충분한 교재 확보”를 약속하고 “교육정신으로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교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신축 학익동 부속중고교 건물은 황해를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는 1만 5천여 평의 대지위에 중학교 30학급, 고등학교 30학급 총 60학급 그리고 어학실습실, 컴퓨터실, 도서관과 체육관까지 국내 중고교 수준으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다.

한편 재단은 1990년 3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공을 앞두고 부속병원 건립비를 포함, 1992년까지 3년간 약 9백억원이 인하대학교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의 내역은 대학병원 건립에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약 7백70억원, 2호관(공과대학) 개수공사에 19억 3천만원이 지원되고 또한 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 대학 재단내에 1백억원의 기금을 설정 운영하고 이를 3년간에 걸쳐 분할 지원하는 것이다. 그 중 지원금 1백억원을 운영, 발생하는 이익금의 사용은 교수 연구비 지원 및 인하대학교 3년 이상 수료자 중에서 매년 장학

생을 선발(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포함)하여 학비와 여비 및 체재비를 지원하는 일본유학파견과 장학사업 확대, 연구 및 해외 여행 교원에 대한 지원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재단은 대학병원 건립지원금과 교육지원기금 설정과 더불어 한진그룹 계열사와 연구용역사업에의 본교출신자의 확대 참여, 졸업생 취업확대, 본 대학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한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산학협동 강화 및 학생취업 확대> 계획도 포함되었다.

인하대학교 발전기금 1백억원 지원계획에 따라 1990년 7월 5일-6일 양일간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인하대학교 하계 교수세미나에서 학교법인 인하학원 조중훈 이사장은 본 대학교의 종합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하발전기금 100억원을 기증할 뜻을 밝혔다. 조중훈이사장은 원영무총장을 비롯 黃昌學이사(주식회사 한진 사장) 등 인하학원 이사, 교무위원 및 전임교수 270여 명이 참가한 이 세미나의 격려사를 통해 “대학의 학구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간에 형성되는 정신평토가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와 함께 우리는 우선 한 가족이라는 공동운명체적 인식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 나가는 것이 대학발전의 바탕이며 첩경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발전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1990년도에 학교법인 인하학원은 90학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조성하기로 한 100억원 중 90



학년도 조성기금인 30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1991년에는 재단전입금 32억 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1992년에는 15억 8천만원, 1993년에는 21억 9천만원 등 1993년 12월

10일 현재 총 1백억원의 인하발전기금을 조성,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인하발전기금의 집행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인하발전기금(과실금) 집행현황(1993. 12.10현재) (단위: 원)

연도	기성금액	과실금	집행액	과실금잔액	집행내역	
1990년도	3,000,000,000	159,171,009	17,925,200	141,245,809	교수항공료(대학)	17,925,000
1991년도	3,230,000,000	625,622,841	397,161,820	228,461,021	교수연구비(대학)	293,830,000
					대학원생해외유학비	6,710,000
					교수항공료(대학)	41,521,600
					교수항공료(전문대)	3,616,000
					장기발전계획용역비	10,000,000
					신입생기념품대	18,524,220
					부중Computer구입	20,500,000
					공대학술지지원	3,000,000
1992년도	1,580,000,000	995,191,485	749,295,300	245,896,182	교수연구비(대학)	600,000,000
					장기발전용역비	10,000,000
					교수학술발표항공료지원	35,551,300
					학생및교수한일학술교류지원	50,000,000
					전문대연구비	30,000,000
					교수학술발표항공료지원	6,944,000
					신입생기념품대	16,800,000
1993년도	2,190,000,000	859,100,000	1,028,340,000	169,240,000	인하대지원금	960,000,000
					전문대	40,000,000
					장학금	28,340,000
계	10,000,000,000	2,639,085,335	2,192,722,320	446,363,015		

또한 우수 공과대학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3년간 총 4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조중훈 이사장은 1992년 6월 20일 해운센터 회장에서 1차년도분 15억원을 원영무 총장에게 전달했다. 조중훈 이사장의 이 지원금 15억원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공과대학 발전사업에 집중 투자되었다. 이에 따라 전술한 100억원의 인하발전기금과 함께 인하대학교 개교 40주년이 되는 1994년까지 모두 1백45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이 조성, 지

원될 셈이다.

한편 학교법인 인하학원은 인하대학교의 중흥을 위한 대학발전기금의 출연 외에도 인하학원 인수이래 학원산하 각급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꾸준히 계속하여 인하학원의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이 1968년 학원 인수후 1992년까지 재단의 각급학교 재정지원 현황 및 한진그룹의 인하학원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각급학교 재정지원 현황 (단위: 원)

구분	시설비	장학금	교육비지원	합계
인하대학교	10,185,698,951	1,017,319,250	7,232,626,676	18,435,644,877
인하공업전문대학	705,899,000	159,648,500	1,777,427,144	2,642,974,644
정석항공공업고등학교	315,292,922	3,184,800	198,439,446	516,917,168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1,155,178,572	1,115,178,572
인하사대부속중학교			639,470,511	638,470,511
합계	11,206,890,873	1,180,152,550	11,003,142,349	23,390,185,772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 인하학원 기부금 현황(1968~1992) (단위: 원)

구분	회사명	금액	비고
재 정 지 원	(주) 한진	3,312,324,508	
	(주) 대한항공	18,626,747,750	
	한일개발	5,473,595,100	
	동양화재	1,572,930,000	
	한국공항	5,444,492,000	
	정석기업	3,569,572,000	
	(주) 한국항공	8,485,293,000	
	(주) 한진관광	155,465,000	
	한진여행사	1,000,000	
	(주) 한진해운	6,209,065,000	
	대진해운	5,000,000	
	한불종합금융	880,370,000	
	제동흥산	369,999,000	
	한진투자금융	43,709,000	
	한국공항정비	8,180,000	
	대한건설공사	3,100,000,000	
	평해관광	360,000,000	
	한진종합건설	1,100,000,000	
	한국여행정보	50,000,000	
	대한종합운수	298,000,000	
한진정보통신	221,000,000		
한국데이터통신	60,000,000		
화물터미널	1,560,000		
기타 (이사장)	34,140,000		
현 물 지 원	소계	59,382,442,358	
	주식	206,247,000	
	토지 및 현물(수익용 및 교육용)	17,060,373,000	1)인하병원 및 인하대부속병원부지 수익용 : 6,444,473,000 교육용 : 10,616,000,000
합계	건물(수익용)	10,214,666,000	수익용건물 및 인하병원
	소계	27,481,286,000	
	합계	86,863,728,358	

인하학원의 발전을 위한 위와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재단은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풍토 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1990년 6월에는 대학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대학교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해외교원 연수 및 교원연구 해외여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학교 교무처는 <인하학원 지원 해외연구교원 선발규정> 및 <교원 연구 해외여행 규정>을 확정하였다. 해외연수교원 선발은 韓·日 학술교류를 중점으로 인원을 선발(연간 2명 수준유지)하여 연수기간 1년 동안 정상급여(상여금, 정근수당 포함)를 지급하며 1인당 1년간 총 1천1백만원 정도의 생활비와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교원 연구해외여행에 있어서는 논문발표, 학술회의 참가 등 연구목적 교원에 대해 항공료 전액 등 1인당 1년 2회 까지 항공료 혜택을 부여하게 되었고 연간 총 5천만원(연 50명, 미국왕복기준)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원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하학원지원 해외연수교원 선발 규정>

- 자격  
(1)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교원(다만 근속기간 3년 미만이거나 유급 장기여행에서 귀국 복직하여 3년인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은 무급으로 허가) (2) 연수에 필요한 언어구사에 지장이 없는 교원
- 선발절차  
(1) 해외연수지원신청서·연수계획서·각서(소정서식), 연구기관의 초청장 또는 연구 수락서를 구비

하여 학과장이 교학부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고 (2)총장은 연수희망 교원 중에서 소정인원을 선발하여 학원에 추천하며 (3)총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은 학원의 선발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교원의 의무

- (1) 연수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직하고, 대학에서 파견한 연구기간의 3배 이상을 복무하여야 하며 (2) 파견 후 6개월 이내에 연수진행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에는 지체없이 귀국 신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기관으로 전직 또는 기타 사유로 사직할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에 지원한 체재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교원 연구해외여행 규정>

○적용범위

- (1) 논문발표를 목적으로 국제 학술회의(학회)에 참석하는 경우 (2) 학술회의(세미나) 참석, 연구자료 수집 또는 공동연구추진 등 기타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여행하는 경우

○신청절차

- (1) 해외여행허가원·보강계획서·항공기우대탑승 승인신청서(소정 서식), 학술회의 또는 세미나 등 초청장을 구비하여 (2) 교무처장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에 해당서류를 이첩하고 (3) 사무처장은 학원 사무국의 확인을 받아 항공권 할인 및 발급 신청을 한다.

- 항공권 할인조건 (1) 적용범위 1항의 경우 학원이 정하는 지원조건 및 금액 한도내에서 논문발표 장소에 가장 가까운 대한항공 취항지까지 왕복항공권을 지급하며 (2) 적용범위 2항의 경우 한·일 노선은 보통석(EY/CLS)의 30%, 기타노선은 보통석(EY/CLS)의 50%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조중훈이사장은 靜石教育賞을 마련하여 1977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중 국민교육의 이념구현과 교육발전에 공로가 큰 교육유공자를 3~6명씩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더욱이 수상자 전원에게 외국의 교육제도를 시찰할 수 있도록 경

비 일체를 부담하여 경기도 및 인천직할시 교육계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계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정석교육상 제도에 의해 1985년 제9회부터 1993년의 제17회에 걸친 정석교육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靜石교육상 수상자

연도	학교명	직위	성명	교육경력
1985년 (제9회)	인천신촌국민학교	교장	高 禎 源	44년
	충남제2국민학교	교장	李 寬 雨	39년
	송덕여자중학교	교장	尹 斗 彪	41년
	경기부천중학교	교장	林 鍾 雄	36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池 錫 泰	39년
	청평공업고등학교	교장	朴 貞 範	24년
1986년 (제10회)	충북옥포국민학교	교장	權 純 浩	34년
	전남양문동국민학교	교감	金 一 炫	30년
	서울반원국민학교	교장	盧 成 烈	42년
	부산석포여자중학교	교사	許 世 洪	29년
	인천박문여자중학교	교장	全 熹 暢	38년
	서울동국대부속고등학교	교사	羅 舞 喆	27년
1987년 (제11회)	인천인일여자고등학교	교장	申 泓 均	29년
	숙명여사대부속국민학교	교장	李 殷 喆	35년
	인천부흥국민학교	교장	申 鉉 億	44년
	광주충효국민학교	교장	丁 炳 世	43년
	대구중학교	교장	李 得 柱	44년
	제주함덕중학교	교장	金 元 亨	44년
1988년 (제12회)	부산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千 鍾 億	30년
	경기의정부여자고등학교	교장	朴 載 南	39년
	충북강회국민학교	교장	孫 光 運	41년
	경북야화국민학교	교사	金 國 成	34년
	경기부천북여자중학교	교장	柳 順 柱	43년
	서울개웅중학교	교장	金 麗 淳	30년
1988년 (제12회)	인천인일여자고등학교	교장	李 明 權	35년
	제주세화고등학교	교장	金 錫 珍	39년
	전남녹동고등학교	교사	申 班 雨	25년

연도	학교명	직위	성명	교육경력
1989년 (제13회)	대구남도국민학교	교감	金 泰 俊	41년
	광주서림국민학교	교장	趙 圭 學	46년
	남인천여자중학교	교장	尹 義 淳	31년
	충남원이중학교	교감	李 晟 雨	29년
	대전대덕고등학교	교감	宋 弼 永	27년
	경북산청종합고등학교	교사	林 采 燦	33년
1990년 (제14회)	제주제일고등학교	교감	黃 英 熙	36년
	서울방이중학교	교감	朴 相 根	30년
	충북제주중학교	교사	金 成 會	22년
	서울서초고등학교	교장	金 昌 基	34년
	경기부천공업고등학교	교장	宋 燦 錫	40년
	전남고흥농업고등학교	교감	金 魯 定	29년
1991년 (제15회)	제주서귀포고등학교	교사	金 熙 進	22년
	서울천일국민학교	교장	全 義 植	38년
	경북영천중앙국민학교	교장	金 魯 榮	46년
	충남청양정산중학교	교사	金 泳 雨	25년
	인천제물포고등학교	교장	俞 炳 世	36년
	전북정읍고등학교	교사	尹 錫 求	21년
1992년 (제16회)	대구성보학교	교장	甄 一 英	32년
	광주효덕국민학교	교사	姜 信 根	33년
	경기부천교육청	장학사	韓 東 淵	35년
	경북영천여자중학교	교사	李 澤	23년
	제주애월상업고등학교	교장	李 明 俊	34년
	인천성헌고등학교	교장	金 相 旭	32년
1993년 (제17회)	전남나주호남원예고교	교감	金 榮 龍	27년
	서울명덕고등학교	교감	尹 相 俊	25년
	제주가파국민학교마라분교	교사	高 志 準	34년
	부산배화학교	교사	朴 俊 哲	24년
	강원강서중학교	교감	成 惠 濟	33년
	동인천중학교	교장	金 榮 五	35년
1993년 (제17회)	전남성전고등학교	교장	朴 東 五	34년
	경북유성여자고등학교	교장	金 鍾 海	30년

## 2.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한편 인하대학교는 1954년 4월 24일 개교한 이래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국가와 민족이 요구하는 과학기술 인력과 사회 각 분야를 선도하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국내 모든 대학들과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학팽창주의의 가용성만을 중시하여 대학의 순기능적인 발전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양적 팽창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질적 향상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환언하면 선진적 교육수준의 달성, 연구기능의 제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건학 4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계이며 더욱이 고도정보화시대의 선진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한층 신장시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적립할 시점인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대학교육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대학의 혁신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1996년도부터 예견되는 대학 지망생의 급격한 감소에 의한 '대학 공황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건학 당시의 인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인하대학교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실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1990년 2월 학교법인 인하학원 趙重勳이사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인하대학교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인하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 대학교에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본 대학교 기획처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위원회 구성 및 연구영역의 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재단과 협의하여 1991년 6월 14일 총연구비 2천만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체결하는 한편 7월 1일부터 1년간의 계획으로 세부분야별 연구에 들어갔다.

한편 기획처는 1991년 6월 24일 본관 제1회의실에서 분야별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했다. 인하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기본 주제는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방안 설정>으로 (1)학사제도의 개선방안 (2)캠퍼스 활용의 합리화 방안 (3)대학조직, 행정관리체계의 정비 (4)국제적인 공동연구 추진 및 정보교환의 촉진방안 (5)산학협동 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이 주요사항으로서 10개 연구분야에 13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했으며 1992학년도 2학기에 보직이동으로 일부 연구위원은 교체되었다.

이때의 보직이동과 함께 제 4대 安勇根

부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92년 9월 본교 교육학과 愼鏞日교수가 제 5대 부총장에 임명, 취임하였다. 부총장에 취임한 신용일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 필리핀 산토 토마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U.C.Berkeley대 객원교수, 전국 사범대학 학장협의회장, 인천학술진흥재단이사

장 등을 역임하였다. 1974년 본교에 교수로 부임한 이래 학문의 연구와 학생처장,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하면서 교육행정에 헌신해온 신망 높은 학자이다.

인하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위원회 위원 및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위원회 위원

성명	직위	소속	연구분야	(전임위원)
愼鏞日	부총장	위원장	총괄	(安勇根)
洪勝弘	기획처장	부위원장	실무조정	(宋文益)
金善陽	교수	교육학과	교육이념·목표	
盧益三	교수	고분자공학과	교육과정	
張正淳	교수	의학과	학사운영	
柳然澈	교수	금속공학과	연구기능	
金榮振	교수	철학과	교육·연구지원	
襄海英	부교수	전자계산학과	〃	
白光一	부교수	정치외교학과	사회봉사	
金裕恒	교수	화학과	교원·직원	
鄭惠嫻	조교수	의류학과	〃	
李文燮	교수	건축공학과	학생활동·복지	
崔寧圭	교수	건축공학과	시설	(元正洙)
申榮相	교수	행정학과	행정	
全鎔洙	교수	경영학과	재정	

인하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인하대학교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위원회'는 "인하대학교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라는 대전제 하에 각 분야별 연구과제의 수행에 착수했다.

분야별 연구과제로는 (1)Inhaim의 연구·Missoin과 교육목표의 정립(교육이념·목표), (2)대학·대학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방법의 평가와 계획, 입시·교육제도(교육과정·학사운영), (3)연구소의 운영, 연구평가, 연구진흥, 산학협동, 홍보(연구기능), (4)도서관, 전산소 등의 지원시설 확충·운영시스템의 개선, 국제교류체제(교육·연구지원분야), (5)국제협력과 계속교육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의 확립(사회봉사), (6)인력수급, 신분보장, 자질, 후생복지여건(학생활동·후생복지), (7)교육·연

구용 각종 시설의 기준, 배치전환,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캠퍼스 활용계획, 대학촌 조성(시설), (8)조직, 인사관리제도(행정), (9)재정규모 측정, 재원확보와 조달, 재정운용(재정)에 관한 사항 등 총 10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인하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추진된 지 1년 만에 각 연구위원들은 학내외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기획처는 이 분야별 연구보고서를 1993년 2월에 접수하고 종합보고서의 발간과 수정·보완작업을 위한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종 성안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정 보완된 최종 연구보고서(안)는 각 연구위원들의 보고서와 그동안 기획처 자체에서 별도로 연구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기초연구보고서, 각 단과대학별 장단기 발전계획서, 그리고 연구기간 동안 학내외적인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으며 기획처는 1993년 11월 3일 동보보고서(안)을 학교법인 인하학원 재단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인하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은 21세기 미래사회의 세계 정상명문 사학으로 발전할 본 대학의 미래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1993년 7월 5일자로 기획처에 의해 최종 성안된 〈仁荷大學校 中長期 發展計劃 研究報告書(案) 要約〉에 의거,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사제도

●문제점제기 및 개선방안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교과목으로 개편
- 진지한 조사, 토의 등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교양, 기초전공, 전공과목의 안배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 조정
- 자연계열의 기초과목, 특히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과목에 1~2시간의 연습시간
- 실험·실습시간을 충분히 배정
-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의 학점 조정 및 실험·실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
- 학과목의 특성에 따른 선수과목 지정의 필요성
- 교과목 내용이 일부 또는 상당부분 중복되는 과목은 개선 조정
- 컴퓨터 교육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적절히 운영

●학제개편 및 학생정원계획안

1차 학제개편 요청안

- 공과대학에 항공탐사공학과(입학정원 40명)신설
- 경상대학에 정보통신관리학과(입학정원 40명)신설
- 공과대학에 화재안전공학과(입학정원 40명)신설
- 이과대학에 수산과학과(입학정원 40명)신설
- 문과대학에 러시아어학과와 서반어학과(각 입학정원 40명)신설
- 신문방송학과(입학정원 40명)신설
- 대학원 석사과정에 식품영양학과 및 의류학과, 사회학과, 체육학과 설치
- 대학원 박사과정에 자동화공학과, 생물공학과,

- 통계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의학과 설치
- 전문대학원으로 교통대학원을 설립
- 시청각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원을 분리 설립

2차 학제개편 추진 계획안

- 공과대학을 1,2,3공학부로 분리 설립
- 경상대학에서 경영대학을 분리 설립
- 법정대학에서 법학과를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분리 설립
- 법정대학에서 법과대학으로 분리 설립
- 대학의 편제를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으로 재편
- 미술대학 설립
-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에 필요한 학과 신설
- 전문대학원으로 국제관계대학원을 신설

●학생정원 조정 계획안

- 학부 : 2000년까지 10%정도만 증원해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
- 대학원 : 2000년까지 학생정원을 현 정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대폭 증원

●전임교원 증원 계획안

- 교수 1인당 학생수가 30명 이내인 학과의 증원을 제한
- 단과대학별로 교수 대 학생비율을 조정

2. 연구기능 지원

●연구축진을 위한 방안

- 전임교원의 충원
- 강의 부담 경감
- 연구보조인력 보충
- 연구비 증액

●국제 학술교류를 위한 여건 조성

- 국제적인 논문집 투고 권장
- 국제학술회의 참가 권장
- 저명학자 초청
- 학술지 및 논문집의 수준 향상

●연구기기의 확충

- 현재 실험실습용으로만 구입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체계를 이원화
- 연구기기의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
- 연구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손실을 방지

●연구내용 홍보

●부속기관의 보완

- 중앙도서관의 확충 및 보완
- 전자계산소의 개선
- 장비, 시설의 증설 및 대체
- 소형분산 정보시스템의 구현
- 행정체제와 관리조직 체계의 재정립
- 사용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단계별 발전
- 개인정보 및 자료의 보호차원에서 전산화 규정, 관리 규정을 정립
- 기기분석실의 보완

- 기계공작실의 보완
- 기기수리센터 신설

3. 대학행정 및 조직

●행정상의 발전방안

- 교무위원회의 활성화
- 각급 교수회의(전체, 대학, 대학원)의 활성화
- 교수회의와 교수협의회
  - 교수회의와 교수협의회 : 기능과 역할의 분담,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
  - 교수협의회는 교수의 복지 및 후생 문제에 중점을 두어 운영
- 위원회 제도의 개선
  - 각종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통폐합
  -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업무처리

- 제 규정의 정비
-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와 업무 흐름도 작성
- 대학행정편람의 수정 및 보완
- 대학행정관련 정보의 공유
- 예산편성방법의 개선
- 여론 반영의 제도화
- 행정전산화의 적극적 추진
- 대학 종합민원실 운영

●조직상의 발전방안

- 대학본부
- 비서실

현재 계장급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장을 전임교원급으로 보하고 인원을 보강  
비서실의 실장은 부처장급의 전임교원으로 인원은 비서업무를 총괄하는 계장급 1명과 교내 업무담당 1명, 교외업무 담당 1명

○감사과 신설(총장직속)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감사결과는 일정한 기준치를 마련  
감사업무의 주관은 총장직속으로 감사과를 신설  
감사는 그 결과를 대학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사무처를 총무처, 재무처로 분리하여 인사 재정의 기능과 권한을 분리

○단과대학

- 공과대학 : 학부의 설치  
학문적 연관성이 높은 학과들을 4~6개씩 묶어서 학부 설치  
현재의 학과는 존치시키되 학과단위 행정은 학부에서 흡수

• 기타대학

현재의 학과 사무실은 폐지하되, 단과대학 교학부에서 행정업무를 처리  
장기적으로는 조교를 직원으로

○공통사항

조직단위별로 업무량에 비례한 인력배치가 불균형, 직원의 불만 심화  
따라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업무량에 비례한 인력배치

4. 교원인사관리

●인력관리

- 승급

연구실적을 호봉승급에 반영

특별승급의 제도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호봉승급제의 도입

연구실적 외에도 사회봉사 등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것(특별승급)

○승진

승진의 경우도 교수의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을 승진에 반영

○보직관리

업무의 지속성 유지하기 위한 방안

보직에 대한 결정을 임기개시 2개월전

임기의 개시시기를 학기중 업무량이 가장 적은 시기로(4월 혹은 10월)

○능력개발

- 신입교원연수
- 재직교원연수
- 새로운 교과목 개발, 교육방법의 개선
- 연구를 위한 해외여행
- 연구년제 도입

○근무조건 개선

-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품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급여체계, 차량유지비 보조 등 타기관시행의 부가혜택을 부여

- 제수당(대학원 입학시험 출제 및 채점수당, 논문지도비, 논문심사비 등) 현실화

논문지도비, 논문심사비 등) 현실화

- 교수연구실 보완

5. 대학시설 및 설비

①인하대학교시설 확충대안

●대학 공간 재배치 방안

- 2호관 및 5호관 건물은 공과대학, 이과대학과 교양과목 전용시설
- 신축예정인 9호관은 사범대학, 문과대학 전용시설
- 부속병원 원공 후 의과대학이 이전할 경우 3호관은 가정대학 전용시설
- 본관은 공과대학 일부와 가정대학의 이전에 따른 공간을 행정부서의 사무실로
- 현 유네스코 건물에 복합관의 신축 : 연구동
- 중앙도서관(10호관)을 신축하고 현 중앙도서관은 법정대학, 경상대학 전용

●대학교지 최대활용방안

- 캠퍼스 구내의 전문대학 혹은 정석항공고 그리고 양자 모두의 이전을 계획
- 전문대학 등 이전시설의 활용 방안
- 전문대학과 정석항공고 이전 : 교지면적과 교사면적의 확보율 : 76.9%와 93.3%

△ 본교 Campus의 시설확보의 대안

요구되는 항목	代案유형	현Campus를 중심으로시설 보완계획	부속학교 시설수용계획 (부속학교 이전후)		신부지 확보계획	
			부속학교에 시설신개축	전체부지에 신개축	분교신설	신Campus 건설
학	학교인구	○	○	○	○	○
	학사계획의 재해석	○	○	○	○	○
	교육연구방법의 Program재편성		○	○	○	○
사	기구 및 조직	○	○	○	○	○
	분교와 분교의 분리기준 산정/ 학교인구산정				○	
소 요 면 적 추 정	캠퍼스 요구기능의 분석		○	○	○	○
	면적추정	○	○	○	○	○
	적정소요공간 유추	○	○	○	○	○
	기능별 Program		○	○	○	○
	부지규모 확모			○	○	○
부지 현황	인문환경 분석	○	○	○	○	○
	자연환경 분석	○	○	○	○	○
시 설	대학 Campus의 공간계획			○	○	○
	시설조사	○	○	○	○	○
	시설의 효율적 사용방법 (시설활용의 극대화)	○	○	○		
	시설의 규모산정 / 투자계획	○	○	○	○	○
	시설건설	증축(SWING PLAN)	○	○	○	○
	개축	○	○	○		
	신축		○	○	○	
단계별 발전 계획	학사계획 재해석에 따른 발전계획	○	○	○	○	○
	신축, 개축, 노후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결정	○	○	○		
	단계별 발전계획			○	○	○

△ 전문대학 등 이전시의 소요시설 및 건축비(추정)

금액단위: 천원(01년도 불변가격)

구분	교지소요면적	건축연면적	교사연면적	건축공사비
전문대학	99,174㎡	5,603㎡	30,159㎡	25,000,000
정석공고	18,739㎡	4,680㎡	8,696㎡	7,133,850
합계	117,913㎡	10,283㎡	39,754㎡	32,133,850

\*교지, 교사의 소요시설면적은 법령기준임

대학 캠퍼스이전 방안

△ 향후 대학의 교지·교사 소요 예상 면적

구분	교지면적	교사면적	교지·교사면적 산출 기초
1996년(중기)	606,693㎡ (183,523평)	224,532㎡ (67,920평)	• 학부학생 정원 : 16,160 • 대학원생 정원 : 1,440 • 전임교원 정원 : 575
2000년(장기)	646,378㎡ (195,528평)	244,134㎡ (73,850평)	• 학부학생 정원 : 16,800 • 대학원생 정원 : 1,880 • 전임교원 정원 : 693

\*위의 자료는 학사부문 발전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최소한의 학생정원과 전임교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향후 법령기준에 따른 대학의 교지와 교사 과부족 예상표(%)

구분	교지면적		교사면적	
	확보/기준	과부족(비율)	확보/기준	과부족(비율)
1996년(중기)	416,956㎡	▽189,737㎡(31.3)	179,140㎡	▽45,392㎡(20.2)
	606,693㎡		224,532㎡	
2000년(장기)	416,956㎡	▽229,422㎡(35.5)	179,140㎡	▽64,944㎡(26.6)
	646,378㎡		244,134㎡	



1980년대의 인하공업전문대학 전경

대학의제 2캠퍼스설치 방안

△ 향후 본교의 학생규모 및 캠퍼스 소요 면적(2000년 예상기준)

학생정원			교직원수			캠퍼스 시설 기준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일반직원	기타	교지면적	교사면적
16,800	1,880	1,320	838	484	300	646,378㎡	244,134㎡

② 부속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계획

●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 규모 및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지상6층 6,587평

○ 공사비 : 본 공사비 6,587평

\* 3,000,000원 = 19,761,000,000원

○ 부대공사비(오수정화시설, 도시가스, 수도 전기, 현장정리) = 250,000,000원

설계용역비 = 180,000,000원

계 = 20,191,000,000

○ 소요기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비고
내용	현지측량, 타대학도서관 조사 비교검토 및 설계	골조공사	마감공사	마감 및 부대공사	
소요금액	180,000천원	8,000,000천원	8,000,000천원	4,011,000천원	

○ 위치 : 소구기장 남측공간 활용

○ 문제점 : 기준령상 교사의 3배수인 교지 기준면적 부족으로 도시계획 시설 및 건축허가 승인취득 불가능

● 8호관(교수연구동) 신축

○ 규모 및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지상5층 2,823평

○ 공사비 : 본 공사비 2,823평 \* 2,000,000원 = 5,646,000,000원

부대공사비(오수정화시설, 도시가스, 전기, 현장정리) = 150,000,000원

○ 설계용역비 = 80,000,000원

계 = 5,876,000,000원

○ 소요기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비고
내용	골조공사	마감공사	
소요금액	2,938,000,000	2,938,000,000	

○ 용도 : 1층~2층 : 강의실 23.5평 24실

3층~5층 : 교수실 7.8평 108실

지하 : 기계실, 변전실, 기타

위치 : 현 소구기장

관람석 : 3,200㎡(970평)

경기진행시설 : 660㎡(200평)

관리시설 : 780㎡(235평)

공용시설 : 3,640㎡(1,100평)

● 종합체육관 건축

○ 공사기간 : 1995~1997년 예정(약 3년간 소요)

○ 수용인원 : 경기시 : 3,230(일반관람석) + 1,386(수납형보조석) = 4,616명

행사시 : 4,616(좌석) + 2,112(경기장 입석) = 6,728명

○ 건축구조 :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지하1층, 지상 2층, 112㎡ 3,400평)

○ 주요시설 : 경기장 : 2,100㎡(635평~45x45M)

선수보조시설 : 860㎡(260평)

관람석 : 3,200㎡(970평)

경기진행시설 : 660㎡(200평)

관리시설 : 780㎡(235평)

공용시설 : 3,640㎡(1,100평)

○ 소요예산 : 4,750,000,000(건축, 철골공사) + 3,490,000,000(설비, 부대공사 등) = 8,240,000,000

○ 법정기준 : 대학설치기준령 제 8조 제 3형 체육관 + 강당 = 9,922㎡(3,000평)

경기장내 입석 최대 : 2,500명 수용

총 7,120여명 수용 가능

○ 주요시설 : 경기장 : 2,100㎡(635평~45x45M)

선수보조시설 : 860㎡(260평)

○ 소요예산 : 4,750,000,000(건축, 철골공사) + 3,490,000,000(설비, 부대공사 등) = 8,240,000,000

○ 법정기준 : 대학설치기준령 제 8조 제 3형 체육관 + 강당 = 9,922㎡(3,000평)

경기장내 입석 최대 : 2,500명 수용

총 7,120여명 수용 가능

● 학생기숙사 건립

○ 기준령(신설 '88. 7.27)에는 학생정원의 15% 이상을 수용 : 기숙사의 건립을 추진

○ 공사기간 : 1995~1997년 예정(약 3년간 소요)

○ 수용인원 : 2,000명

○ 건축규모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지하1층, 지상 6층, 33,000~10,000평)

○ 층별시설 : 1층 : 식당, 관리실

2층 : 침실, 세미나실

3층 : 침실, 독서실 각층(1,420평)

4층 : 침실, 강의실 각층(1,420평)

5층 : 침실, 휴게실 각층(1,420평)

6층 : 침실, 독서실 각층(1,420평)

지계층 : 기계실, 휴게실(1,420평)

옥탑층 : 물탱크실(60평)



- 시설규모 :
  - 침실 4인용 × 500실 × 8평 = 4,720평
  - 독서실(3실 × 300평 = 900평)
  - 세미나, 강의실(4실 × 30평 = 120평)
  - 휴게실(2실 × 100평 = 200평), 식당(800평)

● 기타 공용시설(3,260평)

- 소요예산 : 20,000,000,000(본 공사비) + 800,000,000(부대시설, 설계비 등) = 20,800,000,000원
- 법정기준 : 대학설치기준령 제 12조 제 3항 { (15,971명 × 15%(수용인원)) × 14㎡ = 33,166㎡ }

6. 학생활동 및 후생복지

● 학생활동 분야

- 지도교수제도 활성화, 학생생활연구소의 상담, 지도기능 강화, 교양교육원, 시청각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 학구적인 분위기의 학생회 활동을 유도하며, 대다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발전적 행사를 유도
- 학생서클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며, 서클활동을 통하여 폭넓은 인격수양과 민주역량자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대학언론 매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한다.
- 장학금과 학자금의 융자를 확대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 독서실의 기능을 지양하고, 학술정보의 중추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신축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시킨다.
- 고시반의 육성과 고시원 건물의 건립을 시행한다.

- 학생 자율조직에 의하여 캠퍼스의 질서유지를 행한다.

● 후생복지 분야

- 제 2경인철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촉구하며, 주안역과 캠퍼스간의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한다.
- 주거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한다.
- 학생식당 운영의 발전적 합리화를 도모한다.
- 캠퍼스 및 학교 건물내의 학생 휴게장소를 확대한다.
- 학생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을 검토한다.
- 종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체육활동을 제고시킨다.

● 대학원생 연구여건조성 분야

- 대학원을 위한 연구공간을 확보한다.
- 교수 강의시간의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분위기를 조성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심미안을 길러주고 정서를 순화한다.
- 생활환경이 개선된 대학촌이 운영되도록 학교 당국이 노력한다.
- 캠퍼스의 조경을 통하여 생활환경의 변화를 꾀한다.
- 대학원의 장학제도를 확충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재학 대학원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안정시킨다.

7. 사회봉사와 국제협력

● 시민대학

- 강좌를 다원화하고 수강인원을 늘려 타 대학의 평생교육원 수준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 LA/TA제도를 확충하고 RA제도를 신설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독학 학위과정을 개설 학내행사의 개방
- 학교시설의 이용 허용
- 지역문제에의 적극적 참여
- 전문대학원 운영의 강화
- 외국어교육원의 활성화
- 대외 봉사활동의 강화

● 동문

- 학교소식의 홍보
- 교내행사에 초청

- 대학발전에 참여

● 학부모

- 대학홍보
- 대학발전에 참여

● 국제협력

- 자매대학과의 관계강화
- 교류, 협력의 제도화 장치
- 교류를 위한 시설의 확충

이와 같은 <인하대학교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 되면 인하는 21세기 국내 굴지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 제2장. 대학운영의 국제화 (1994.3~2004.2)

### 제1절. 학사운영의 혁신과 국제협력의 강화

#### 1. 학사운영의 개선

1994년 개교 40주년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10년간 인하대학교는 몇 가지 점에서 변화와 도약을 이루었다.

첫째, 학부제 운영에 따른 변화이다. 학부제는 1990년대 전반 교육부와 국내 몇몇 대학에서 논의되던 것을 1995년부터 도입하였다. 이미 1994년 공과대학의 항공우주공학과와 자동차공학과를 통합하여 항공우주·자동차공학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 것을 더욱 확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95년 9월에는 기계공학과를 항공우주·자동차공학군과 통합하여 기계항공·자동차공학부(일명 기항자공학부)로,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생물공학과를 통합하여 화학·고분자·생물공학부(일명 화고생공학부)로, 경상대학의 경영학과 회계학과, 상업교육과를 통합하여 경영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6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 경제통상학부, 1997년 2월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일명 전전컴공학부), 1998년 수확통계학과와 물리화학부, 재료공학부, 지구환경공학부, 지리정보공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인문학부 등 현재까지

모든 단과대학의 소속 학과를 통폐합하여 학부제로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학부제 운영은 도입 당초 학내 구성원 간의 심한 갈등과 학내 분규의 요인이 되었다. 특히 학부제 시행에 따른 학과 고유의 영역과 전문성의 감소가 문제시 되었고, 한편으로는 전공 선택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비인기 학과의 학생수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더우기 학부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막연한 불안감이 이를 더욱 부추겼는데, 시행 당초 구성원 간의 충분한 협의없이 이의 실시를 강행한데도 원인이 있었다. 아무튼 학부제 시행의 성과와 효용성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폭을 신장 시킨 것은 분명하며, 특히 학제간 교류의 폭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학부제가 해당 학문의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대학 교육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으며, 이는 대학원 과정과의 연계 교육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둘째, 학사행정의 혁신과 시설의 확충이다. 인하대학교의 재단인 학교법인 인하학원은 1968년 9월 이래 趙重勳 이사장이, 1997년부터는 현 趙亮鎬 이사장이 담임하였다. 이 시기 대학 운영을 책임진 총장은 제8대 趙成

鈺 총장(1994.3~1998.2), 제9대 盧健一 총장(1998.3~2002.2)을 거쳐 2002년 3월부터는 현재 제10대 洪承湧 총장이다. 이 시기 학교 운영의 가장 큰 변화는 인하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학사운영 전반의 혁신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성옥 총장이 1995년 발표한 '인하비전 2005'와 송도신도시로의 캠퍼스 이전계획, 노건일 총장의 '인하비전 2010'과 특히 벤처특성화 사업, 현 홍승용 총장의 '인하비전 2020'과 동북아 중심대학으로의 발전계획 등이 그것이다.



제9대 노건일 총장

학교의 이전 문제와 겹쳐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하비전 2005'에서 제시한 학사행정의 여러 혁신적 조치는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이른바 IMF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1998년 3월 취임한 노건일 총장은 대학운영의 경쟁력 제고와 인하대학교의 특성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인하비전 2010'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의 행정조직을 팀제로 재편하였으며, 기숙사, 산학벤처관, 서호관, 하이테크관, 정석학술정보관 등 신축에 착수하여 교육인프라를 배양하였고, 김대중 정부시절 집중 투자된 벤처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의 시행과정에서 노조와 교수협의회 및 학생회 등 학내구성원과의 갈등도 적지 않았다. 교수협의회장이던 정치외교학과 김영규 교수에 대한 면직과 복직에 이르는 전통과 소송과정은 이 시기의 학내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홍승용 총장이 취임하면서 '인하비전 2010'을 계승하되, 본교를 국제화를 더욱 신장시켜 향후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노건일 총장 시기에 시작된 최첨대 시설을 갖춘 세계유수의 시설인 정석학술정보관과 인하하이테크관 등의 완공을 봄으로서 학내 연구 환경과 본교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다.

#### 2. 발전계획의 수립과 국제협력의 활성화

인하대학교의 발전계획은 1968년이래 여러 차례 이루어져 본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여러 발전계획이 수립·수행된 계기는 1992년의 이른바 'C급 파동'의 여파였다. 즉, 1991년 10월 22일 교육부는 1992학년도 전국 대학정원의 증원에 대해, 특히 이공계학과의 증원 기준은 교수 확보율 및 교수 1인당 학생수, 실험실습비, 도서확보율, 재단전입금 규모 등을 종합 평가하여 A·B·C·D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상위 ABC 등급에만 차이를 두어 증원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본교를 C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3년 단과대학과 학과의 현황과 발전계획을 담은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성옥 총장 시기에 '인하비전 2005'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1997년 언급한 한국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학 등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경쟁력 제고의 흐름과, 몇몇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대학지원을 차등화 한다는 교육부의 독선이 어우러져 갈등도 있었으나, 학사 운영 또한



제10대 홍승용 총장

시대의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여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가 변모되어 대학도 종래와 같은 운영으로는 국제화시대에 낙오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조성옥 총장 이래 노건일 총장, 홍승용 총장 시기에 연이어 '인하비전' (inha vision)을 수립, 수정하고 한편으로 대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하여 본교는 세계 100권내 대학과 특성화 중심대학으로의 비약적 발전에도 모호하려고 한다. 2010년 국내 7위권 대학, 세계 100위권 대학을 목표로 1998년부터 「인하비전 2010」을 수립, 추진하여 왔다. 2001년까지는 개혁의 촉발기간으로 정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기초체질을 강화했으며

과제명	내용
학사제도	21세기 신교육 패러다임 설계
교육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 교육의 질 향상
연구부문	사회의 수요와 함께 하는 연구 생산성 극대화
행정	대학행정에 경영의 생산성 원리 접목
재정	재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확보 및 합리적 운영
시설 설비	최적의 교육 및 연구 시설/환경 구축
정보화	최고의 정보인프라 구축 / 최고의 교육 및 행정의 정보화 구현
대외협력	전략적인 홍보와 세계화 정책 추진
업적평가 지원제도	공정한 평가와 차등지원을 통한 체질강화

교육인프라 구축에 착수하였다. 2단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개혁의 확산기간으로 정해 개혁을 가속화하고 실적을 상승시키며 교육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며, 또한 동북아물류 중심, Pentaport 인천의 인재양성에 주력한다. 송도신도시를 비롯해 공항, 첨단산업단지, 관세자유지역, 레저포트 등 펜타포트형으로 21세기 동북아 허브 인천의 발전방향과 연계한다. 본교는 이러한 첨단전략산업에 기계 및 산업공학, 물류 및 국제통산 관련교수들의 인적자원은 중심으로 한 전문연구센터의 역할과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의 산학연구 네트워크 구축, 국내 유일의 국제적 물류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출범한 APSI(아태물류 스쿨)을 기반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제 발전 계획과 대외 협력 및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인하비전 2010의 발전계획에 따른 8대 핵심과제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INHA VISION 2010』, 인하대학교 기획처, 2001, 8~23쪽)

### 전략과제 단계별 추진계획

△학사제도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개혁의 촉발 (1998-2001)	개혁의 확산 (2002-2005)	완결과 응비 (2006-2010)
학사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단위 광역화</li> <li>학생전공선택권 존중</li> <li>학부제 전면 실시 (사범대, 의과대 제외)</li> <li>LG경제연구원의 단계별 학제 개편안 검토 및 방향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단위의 광역화와 유사 학과 통폐합의 차별화 정책 수립, 시행</li> <li>학제개편 시행</li> <li>법대·의대·건축학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의 수요 변동에 따른 학사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li> <li>학생들의 전공선택권 완전 보장</li> </ul>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우위 선분야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화추진 연구</li> <li>특성화필요성 확산</li> <li>기본목표, 추진방향의 정립</li> <li>국제통상·항공우주·정보통신·생명공학·기계공학·차세대고기능성소재·분자과학의 7개분야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엄정한 중간평가 (자기책임제 적용)</li> <li>특성화 성과 가시화</li> <li>연계학문 공동발전</li> <li>학제개편(전공분리 등)</li> <li>국책 연구센터 유치</li> <li>집중육성 가능분야 중 3개 분야 추가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화분야 대교협 학문분야 최우수평가 인정획득</li> <li>연구중심 특성화의 세계수준 우수성 확보 (5개분야 ABET 인증)</li> <li>세계 초일류 목표설정 및 추진분야 선정</li> </ul>
특성화 재원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화선정후 4년까지 시작자금(Seed Money) 지원, 점차 외부 기부금으로 투자 비중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 운영 혹은 외부기부금에 의한 운영체계 마련</li> </ul>

△교육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개혁의 촉발 (1998-2001)	개혁의 확산 (2002-2005)	완결과 응비 (2006-2010)
학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양·전공 이수체계 기본 방안 수립, 개편</li> <li>복수전공 정착, 활성화</li> <li>연계전공 개발 정착</li> <li>복합전공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양·전공 이수체계의 유기적 관계 구축</li> <li>전면적 연계전공 및 복합전공 실시</li> <li>단수 및 복수전공 졸업 학점 조정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의 변동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체계 재정립</li> <li>연계전공 및 복합전공 사례와 결과 종합분석 및 정착 운영</li> </ul>
교수법 강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학습센터 개편</li> <li>새로운 강의기법 개발</li> <li>학문분야별 첨단 강의실 설치, 이용 활성화</li> <li>Best Teacher 포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학습센터 확대</li> <li>교수법 연수 의무화</li> <li>표준강의실 조성, 확대</li> <li>학문별 첨단 강의실 확대 (3실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법 평가를 통한 새로운 교수법 정착</li> <li>강의실 표준화 100% 달성 및 학부별 첨단 강의실 완비</li> </ul>
졸업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졸업인증제 도입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졸업인증제 정착/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졸업인증제 시행</li> </ul>
교원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대 교수비=30:1 (임상교원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대 교수비=28:1 (임상교원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대 교수비=23:1 (임상교원제외)</li> </ul>

우수 교수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신대학원 Ranking 중요성 강화</li> <li>석좌교수, 겸임교수 총원 계획 마련</li> <li>특별채용 활성화</li> <li>해외 우수교수 유치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좌교수 5명 채용기금 확보</li> <li>겸임교수제도 정착</li> <li>해외 우수교수 연3명 유치</li> <li>계약제 연구교수 연30명 유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좌교수 10명 채용기금 확보</li> <li>해외 우수교수 연10명 유치</li> <li>계약제 연구교수 연50명 유치</li> </ul>
정원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학부 정원조정</li> <li>사회수요에 따른 전공신설 및 정원조정 평가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분야평가에 의한 학생정원 조정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전공별 정원조정외 탄력적 운영체제 정착</li> </ul>

△연구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개혁의 촉발 (1998~2001)	개혁의 확산 (2002~2005)	완결과 응비 (2006~2010)
연구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지원 전문 인력관리, 제도개선</li> <li>석·박사 장학제도 개선</li> <li>박사후과정 선발확대</li> <li>연구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li> <li>관리간접비 제도개선</li> <li>교내연구비중 개별연구비 재분석</li> <li>인문사회계열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별 소위원회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지원 인력확충 (~50명)</li> <li>석·박사대학원생 확충 달성(10위)</li> <li>교내연구비 재원의 확충 다양화(년30억)</li> <li>박사 및 외국인 전용기숙 시설 완비</li> <li>대학연구역량의 증흥기 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체제 구축 완료</li> <li>교수연구 진흥기금의 100억 달성</li> <li>임상분야와 인문사회 계열 CI계제 논문수 전국 10위 내 달성</li> <li>대학의 총체적인 연구역량 전국 6~7위 고착</li> </ul>
산학협력 벤처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협력 대상기업 목록작성 및 협력활성화기초완성</li> <li>산업체근무 인력재교육 program 개발, 활용 및 정착화</li> <li>창업지원센터 활성의 정착화</li> <li>송도테크노파크내 산학협력관 기공, 벤처창업관 완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교류처의 "산학협력계" 승격운영 및 기능 강화</li> <li>산업체 인력 재교육 극대화 달성</li> <li>송도 테크노파크내의 "산학협력관" 완공 및 TBI센터 건립</li> <li>"벤처가 강한 대학" 이미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학협력 운영체제의 전국 대학 1위 확립</li> <li>학부 및 대학원 취업률 극대화 유지</li> <li>산업체 연구비 유치실적 전국대학 3위 이내 유지</li> </ul>
부설연구소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책연구소 개원 및 부설연구소 제도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책 연구소의 활성화 및 부설연구소 자립도 100%달성</li> </ul>	

△행정 및 재정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개혁의 촉발 (1998~2001)	개혁의 확산 (2002~2005)	완결과 응비 (2006~2010)
행정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중심의 조직개편</li> <li>(교)학부/전공사무실 통합</li> <li>분권화추진위원회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제 도입 및 정착</li> <li>팀제 운영에 따른 조직 개편 : slim/flat화 달성</li> <li>행정 분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부총장 운영검토</li> <li>학부중심 행정독립 추진 (재정운영 책임제시행)</li> </ul>
업적평가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업적평가위원회 운영</li> <li>업적평가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평가단에 의한 업적 평가 실시</li> <li>성과급제 단계적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적평가에 의한 승진 및 연봉지급</li> </ul>
인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인력 정예화 추진</li> <li>직원 직무교육 실시</li> <li>OA제도 도입에 의한 조교 운영제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인력 전문성 강화</li> <li>직무연수/교육기회 확대(외 부기관위탁교육)</li> <li>시설관리 인력운영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직 임용제도 정착</li> <li>시설관리 전부문 용역화</li> </ul>
업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중심 서비스 지향</li> <li>제규정 관리체제 정비</li> <li>행정업무 매뉴얼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개선 연구 활성화</li> <li>전자결재 시스템 구축</li> <li>학과/전공 업무 표준화</li> <li>성과중심 내부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학생담당직원제</li> <li>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국내 최상위달성)</li> </ul>
기부금 확대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교50주년사업과 신설</li> <li>DBM기법을 활용한 잠재 공여자 명단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발전협력본부 신설</li> <li>분야별 기부금모금 전문인력 확보</li> <li>잠재공여자의 60%이상 개별적 접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발전협력본부의 확대 발전</li> <li>교내·외 기부금 모금 전문인력 확대</li> </ul>
기부금 모금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ampaigning에 의한 기부금 모집 활성화</li> <li>development에 의한 기부금 모금 기초자료 확보 및 보상품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별 발전 기금명 부여, 모금</li> <li>인하클럽 발족 및 운영</li> <li>창학50주년 기부금 300억 원 모금</li> <li>기금교수, 기금연구원, 기금연구시설제도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로 2010년까지 1,500억원 모금</li> </ul>
효율적 재정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원가 산정과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원가 및 평가와 예산을 연계한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기관별 차등지원 체제 정착</li> </ul>	

△시설·설비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개혁의 촉발 (1998~2001)	개혁의 확산 (2002~2005)	완결과 준비 (2006~2010)
최적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범대학 전용 건물 준공</li> <li>• 동아리 전용 건물 확보</li> <li>• 기숙사 준공(1,010명)</li> <li>• 고시원 증축</li> <li>• 멀티미디어 강의실의 확보 (현재 57실)</li> <li>• 의과대학 공간 확대 정석 빌딩 이전</li> <li>• 인하벤처창업관 신축</li> <li>• 강의·연구동 신축 (UNESCO관 부지)</li> <li>• 전자도서관 착공 (정석학술정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도서관 준공</li> <li>• 산학협력관 신축 (송도테크노파크 내)</li> <li>• International House 신축</li> <li>• 노후 건물 Remodeling</li> <li>• 대학별 공간 재배치</li> <li>• Post-Doc. 및 외국인 연구원 전용 시설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gital Campus 추진</li> <li>• “종합스포츠클럽센터” (실내 체육관/대강당) 건립</li> <li>• 학생수련원 증축 검토</li> <li>• 제2기숙사 신축</li> <li>• 제2캠퍼스 건립 추진</li> </ul>

△정보화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개혁의 촉발 (1998~2001)	개혁의 확산 (2002~2005)	완결과 준비 (2006~2010)
정보인프라 구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computer급 server 확충 및 100 terabyte 저장용량 확보</li> <li>• 교내는 기가비트 백본을 구축하고 교외는 T3급을 설치</li> <li>• 무선 LAN 10개 access point, 1000개 node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tier system 구축과 data warehouse에 필요한 hardware 구축</li> <li>• network 장비 개선으로 전송 속도 지속적 향상</li> <li>• 화상회의 시스템, VOD에 의한 강의 지원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infra 구축과 운영</li> <li>• 사용자에 의한 정보가공 지원체제 확립</li> </ul>
전자도서관 건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저널 확충과 첨단 학술센터와 연계 완료</li> <li>• 교내 학위논문 DB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첨단 전자도서관인 정석 학술정보관 건립 및 운영</li> <li>• 본교 고유의 전자자료 개발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석학술정보관을 세계 최고의 전문 도서관으로 육성</li> </ul>
행정정보화 및 정보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100% 전산화와 통합 DB 구축 완료</li> <li>•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행정지원시스템 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 warehouse 구축 완료와 이에 따른 적극적 활용 유도</li> <li>• BPR 수행으로 행정체계 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paperless office 실현</li> <li>• 행정처리 전문가 시스템 구축 및 활용</li> </ul>

△대외협력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개혁의 촉발 (1998~2001)	개혁의 확산 (2002~2005)	완결과 준비 (2006~2010)
University Identity 정립,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I (University Identity) 위원회 발족 및 운영</li> <li>• Inha Vision 2010에 의거한 University Identity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ha Vision 2010 확산</li> </ul>	
인터넷 홍보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upgrade</li> <li>• 인터넷 홍보 contents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험생, 기업체와 관공서, 채용대상 교직원과 인하대학교 동문을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운영</li> </ul>
홍보의 다원화와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대상군의 세분화 (우수학생, 대외연구비, 발전기금 유치로 세분)</li> <li>• 홍보 대상군에 대하여 Focus Group Interview 실시</li> <li>• 세분화된 홍보 대상군에 따른 기존 홍보전략 재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분화된 홍보 대상군에 따른 개별적 홍보전략 구축</li> </ul>
국제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국가와 교환학생 교류도모</li> <li>• 구미 유수대학 교환학생 관련제도 정비 및 학생모집</li> <li>• 정부지원사업에 속한 대학원생 외국 파견 활성화</li> <li>• 교류대상 외국 연구소 탐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환학생제도 개선</li> <li>• 구미의 유수 대학과 교환학생 활성화</li> <li>• 외국 5개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및 연구원, 교환교수제 정착</li> <li>• 외국인전담 advisor 제도 도입</li> <li>• 외국인 교수의 OCU 강좌 및 교내 Cyber class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교류센터 설립</li> <li>• 교환학생을 학부 학생 5%로 유지</li> </ul>

△업적평가와 지원부문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개혁의 촉발 (1998~2001)	개혁의 확산 (2002~2005)	완결과 준비 (2006~2010)
학사조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범직 자체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li> <li>•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상세 입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별 상위 우수 2~3개 기관에 대한 실질적 보상</li> <li>• 소속 구성원에 대한 차등 보상 시범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단계 평가등급별 차등 보상과 교수업적 점수에 반영 체계 구축</li> <li>• 예산의 차등 지원 및 규모 확대</li> </ul>
특수대학원, 연구소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상세 입안</li> <li>• 기존 지원체제의 적정성 여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li> <li>• 평가에 의한 연구소 통폐합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의 차등 지원 및 규모 확대</li> </ul>

행정조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의 상세 입안 및 시험 평가</li> <li>• 팀제 도입시의 활용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li> <li>• 평가에 의한 조직의 통폐합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단계 평가등급별 차등 보상</li> <li>• 급여 차등 폭의 확대</li> </ul>
승진· 재임용· 승급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승급·재임용 제도의 강화</li> <li>• 성과급연봉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승급 및 재임용 제도 운영성과의 주기적 평가와 이에 따른 제도 개선</li> </ul>	
우수교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교수상” 시범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교수상 확대 및 운영성과의 주기적 평가와 이에 따른 제도 개선</li> </ul>	
교수업적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한 교수업적 평가제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하교수클럽 운영</li> <li>• 학문분야별 차이와 특성 반영</li> <li>• 교육·연구의 선택 평가제 도입</li> <li>• 논문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도입</li> </ul>	

한편, 1994년 이후 학사운영 및 대학의 학문적 선진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본교의 현 재단인 한진그룹은 해운, 항공, 육상 등 수송과 물류중심의 기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본래 치밀한 국제간 협력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까닭에 이에 힘입어 본교의 국제협력은 매우 활성화되

었다. 1975년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1984년 프랑스 르아브르 대학(University of Le Havre) 등 현재 16개국 62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연구인력의 교류 등을 통하여 본교의 학문적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국제교류현황

국명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75.10.	교수 및 연구원 교류, 교육방법 개선 자문, 공동 연구 추진, 대학원 유학생 교류, 문헌·정보·발간물 교환
	Hahnemann University	1985. 7.22	교수 및 학생 교류(의학분야), 의학교육개선 방법 협의, 공동연구 추진
	University of Maryland*	1985. 7.19	교수 및 연구원 교류,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학생교류
	University of Hawaii	1989. 2.17	교수 및 학생 교류, 정보 및 자료 교환, 운동경기팀 교류
	Oklahoma State University	1993. 2.22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 연구 추진, 공동 세미나
	University of Michigan	1996. 4.23	교수 교류, 특강
	Duke University #	1998. 12.1	교수교환, 학생교류, 고위관리자 교육과정개설
	University of Hartford	1999. 6.29	교수 및 학생교류, 연구협력, 학술대회 공동개최, 정보 및 자료 교환
	Univ. of New Orleans **	2000. 6.29	공동연구를 위한 정보교환, 상호방문, 국제학술회의 참가

일본	Virginia Commonwealth Univ.	2001. 1.29	교수·학생·교직원초청, 공동프로그램 및 학술대회 개최, 정보교류
	Troy State University	2002. 1.15	교수 및 연구인력 교류, 학생교류
	University of Rhode Island	2002. 7.25	교수·강사·연구원의 교류, 학생교류, 학술자료 교류
	University of Washington *	2002. 7.29	공동연구, 학술정보 교환, 학자교류강연, 학술회의 등 학생 교류
	Queens College	2003. 9.29	IT 분야연수
	昭和大學	1986. 4.19	교수 및 연구원 교류(의학 분야), 공동 연구 추진 문헌, 정보, 간행물 교환
	北九州大學*	1996. 4. 1	학술 연구, 연례세미나
	高知工科大学 **	1999. 1. 26	자료교환, 연구시설 공유, 석사과정 학생교류, 연구원교류, 공동심포지엄 개최
	新潟大學	2000. 2. 1	학생·학자 교류, 정보교환, 학술·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東京工業大學 *	2000. 3. 1	교수·학생교류,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
중국	東北大學*	2000. 6. 1	교수·대학원생·연구원 교류, 학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筑波大學*	2002. 5. 20	교원·연구원·대학원생 교류, 공동연구, 정보교류
	山口大學	2003. 6.25	연구자·학생교류, 학술정보·출판물 교환, 연구회·강의·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실시
	長崎大學	2003. 7. 4	교수 및 연구자 교류, 학생교류, 공동연구 실시 강의, 강연 및 심포지엄 실시
	延邊大學	1993. 3.23	교수 및 연구원 교환, 공동 연구추진, 정보 및 자료 교환
	北京語言文化大學	1995. 2. 9	교수 및 학생 교류, 과학적인 연구분야 협력, 학술교류
	天津大學	1995. 2.10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 연구 추진, 문헌·정보·간행물 교환
	南京航空航天大學*	1996. 7. 4	교수 및 학생 교류, 학술세미나
	沈陽建築工程學院 #	1996. 7.17	정보교류, 연구협력, 교수·학생 교류, 교수초빙강의 등
	南開大學 #	1996.11.26	향후 연구 및 교수, 학생 교류
영국	清華大學 #	1997. 1.30	학술적·교육적 상호호혜활동 촉진교수·학생 교류, 단기어학연수, 국제심포지엄 참가
	同濟大學 #	1997. 1.31	학술적·교육적 상호호혜활동 촉진교수 및 학생 교류
	中國科學院 **	1997.12.30	공동연구, 공동심포지엄 개최, 연구인력 교류, 학술간행물 및 정보 교환
	北京郵電大學 #	1999. 5.31	공동연구 수행
	無錫經工大學	1999. 8.19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학술대회 개최, 정보 및 자료교환
	大連理工大學*	2000. 6. 8	교수·학생 교류, 공동연구, 학술자료 교환
	對外經濟貿易大學	2002. 4.11	교수·강사·연구원 교환, 학생교환, 학술정보 교환, 세미나 공동개최
	中國社會科學院	2002. 6.21	학술저작 및 자료교환, 학술방문, 학술토론회, 공동연구
	吉林大學	2002. 9. 9	교수·학생교환, 학술자료 교환 등
	廈門大學	2003. 2.13	교수·학생교환, 학술자료 교환 등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1987. 6.18	강의, 세미나 공동 연구를 위한 교수와 연구원의 교환 방문, 교육 연구추진을 위한 정보 및 출판물 교환
	Heriot-Watt University #	1999. 4.19	자료·정보교류, 연구원 교류, 공동 심포지엄 개최

프랑스	University of Rouen	1986. 4. 1	교수 및 연구원 교환, 공동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설정, 대학원 학생 교환, 문헌 자료와 정보 교환
	University of LeHavre	1986. 4. 1	교수 및 연구원 교환, 공동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설정, 대학원 학생 교환, 문헌 자료와 정보 교환
	University of Bretagne Occidentale	2001. 7. 9	교환학생 제도, 학력인정 제도, 교수교환 제도, 학술대회 실시평생교육 협력
대만	大同工學院	1977. 8.27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 연구 추진, 문헌정보 교환
	中國文化大學	1986. 5.29	어문계 학생 연구, 교수 연구편의제공
러시아	Moscow State Technical University	1993.11.29	정보 및 자료 교환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1993.11.29	정보 및 자료 교환
	Far Eastern State Technical University	2000. 8. 8	교수·연구원 교류, 공동연구 협조, 정보 및 간행물 교류
	Khavarovsk State Univ. of Technology *	2000.11.3	교수·연구원교류, 공동연구 협조, 정보 및 간행물 교류
	Moscow State Aviation Institute	2001. 9.28	학생, 교수, 연구원 교류, 공동연구 협조, 정보교류
	Bakal National University of Economy and Law *	2002.10.23	학생·교수교류,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 공동세미나 개최
우크라이나	Ukrainian Academy of Sciences #	1995. 4. 1	공동연구 추진
	National Aviation University	2001. 9.27	학생, 교수, 연구원 교류, 공동연구 협조, 정보교류
벨지움	University of Ghent #	1985. 3.29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 연구 추진, 대학원 장학생 혜택부여
벨라루스	Belarusian University of Culture*	2001. 5. 3	학자 및 연구원 교류, 공동연구, 강연 및 심포지엄 실시, 정보 및 자료교환, 학생교류
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	1994. 7.18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 연구 추진, 도서교환 공동 세미나
아르헨티나	National University of La Plata	2000. 7.25	학생·교수·연구원 교류, 교육과정 개선, 연구협력 및 공동 연구, 학술대회, 학술정보 교류
태국	Burapha University *	2000. 5.15	학자·연구원 교류, 공동연구, 강연·심포지엄 개최 학술자료 교환
몽골	Ulaanbaatar College*	2001. 6.25	교수, 학생 교류, 자료·정보·문헌·출판물 교류, 도서관 정보 교류
	National Univ. of Mongolia*	2002.10.22	교수·학생교류,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개최
스웨덴	University College of Boras #	2001. 7.11	학생교류, 교수 및 연구원 교류, 공동연구 활동, 정보교류

① ※ 2003.10월 1일 현황임. ② \* : 단과대학 또는 부속연구소차원의 교류 ③ \*\* : 공동연구수행 협정 ④ # : 교류협정기간 종료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과 물류학 교류협정 (2003. 10. 9)

## 제2절. 연구역량의 강화와 활동

### 1.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

인하대학교는 1991년 4월 기획처에 연구담당 부처장을 두고 연구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이듬해 5월 연구지원과를 폐지하고 연구처로 확대 개편하면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로써 연구지원 행정은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대단위 연구사업의 기획 및 추진, 그리고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업무를 일괄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학술연구활동을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목적이었다. 우선 계약과 회계 처리 등 복잡한 행정업무를 전담 인력이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연구자가 연구 활동에 전념하여 우수한 실적을 양산하게 하였다. 대형 국책 연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 수탁케 하였으며, 소속 연구소의 학술회의 및 연구논문집 간행을 지원하였다. 또한 연구기재의 수입과 구매 업무를 대행하며 연구사업에 따른 각종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비 집행의 효율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왔다.

1997년 외환위기이후 대학의 연구 활동도 종래와는 크게 변화되었다. 특히 1996년 황해수송시스템 연구센터의 개소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연구용역이 늘어나고 이를 위한 연구센터와 민간 기업과의 산학협력이 더욱 긴밀하여 지면서 연구처의 소관 업무도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를

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처 또한 연구개발팀과 산학협력팀으로 분장하여 연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연구개발팀의 중점 수행업무

- 교수 연구활동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중·장기 전략/대형 연구과제 개발 및 대외 연구 정책 분석
- 교수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행정관리 체계의 구축 및 지원
- 학술행사(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경비 지원
- 연구장려제도(우수논문 포상, 논문게재료 지원 등)의 운영
- 전문과학기술자, 계약제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유치관리
- 연구조교(RA) 제도의 운영 및 선발
- 부설연구소 및 국책 연구사업단의 연구활동 지원
- 교수 연구업적집 발간

#### 산학협력팀의 중점수행 업무

- 산학협력사업 수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산학협력 정책연구 사업의 분석 및 대응 전략수립

- 산업체 지원 수탁연구 사업의 수행에 따른 행정 지원
- 산학협력관련 연구센터의 지원
- 지적재산권 관리 및 특허경비 지원
- 대학기술이전센터의 운영
- 벤처창업관의 운영 및 산학협력관 건립
- 테크노파크지원단 운영
- 교수창업 및 창업동아리 지원

이처럼 연구처는 교수연구활동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개발하며 연구소와 국책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의 경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학내 연구인력 및 시설과 민간 산업체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매개함으로써 지역내 산업활동의 중심지로 본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연구처는 각종 연구활동도 지원하였다.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한 각종 학술행사의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연구지원편람》, 《연구업적》등의 책자를 매년 혹은 정기적으로 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처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연간 교원의 연구비 수혜와 교외 연구비 수탁에서 현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교원 연구비 수혜 현황

학년도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합계	
		수혜교수수	수혜액(천원)	수혜교수수	수혜액(천원)	수혜교수수	수혜액(천원)
1999	전	317	1,598,000	105	6,016,258	422(470)	7,614,258
	후	6	31,000	135	14,464,079	141(268)	14,495,079
	계	323	1,629,000	240	20,480,337	563(738)	22,109,337
2000	전	33	410,900	164	9,765,429	197(261)	10,176,329
	후	134	1,219,200	190	17,948,052	324(464)	19,167,252
	계	167	1,630,100	354	27,713,481	521(725)	29,343,581
2001	전	110	902,748	138	17,559,548	248(253)	18,462,296
	후	155	795,825	155	13,675,134	310(442)	14,470,959
	계	265	1,698,573	293	31,234,682	558(695)	32,933,255
2002	전	56	528,700	132	12,550,953	188(298)	13,079,653
	후	176	1,176,300	177	21,188,410	353(528)	22,364,710
	계	232	1,705,000	309	33,739,363	541(826)	35,444,363
2003	전	335	2,730,275	147	14,600,024	482(717)	17,330,299
	후	6	123,474	190	27,669,368	196(370)	27,792,842
	계	341	2,853,749	337	42,269,392	678(1,087)	45,123,141

※ 연구비현황은 매 학년도 전반기(1/1~6/31) 및 후반기(7/1~12/31) 현황을 구분하였음.

※ 수혜 교수수는 이중수혜자를 제외한 숫자이며, ()안의 수는 이중 수혜를 모두 합한 경우임.



△대학별 교내·외 연구비 수혜 현황

대학	연도	전반기				후반기				교원당 수혜액	
		전임 교수수	교내 연구비		수혜지당 수혜액	전임 교수수	교내 연구비		수혜지당 수혜액		
			수혜 교수수	수혜액			수혜 교수수	수혜액			
공과 대학	2001	179	108	12,930,325	119,725	179	133	10,278,998	77,286	129,661	
	2002	178	128	8,082,430	63,144	178	150	16,503,780	110,025	138,125	
이과 대학	2001	64	24	2,446,105	45,580	64	44	2,380,721	54,107	75,419	
	2002	64	19	2,206,549	116,134	65	43	2,183,146	50,771	67,534	
경상 대학	2001	47	9	97,700	10,856	47	16	155,200	9,700	5,381	
	2002	49	3	36,875	12,292	49	20	609,116	30,456	13,183	
사범 대학	2001	37	11	267,000	24,273	37	10	180,500	18,050	12,095	
	2002	36	1	20,000	20,000	34	14	101,171	7,227	3,564	
법과 대학	2001	13	9	30,000	3,333	13	6	46,300	7,717	5,869	
	2002	15	3	56,800	18,933	15	10	70,000	7,000	8,453	
사회과학 대학	2001	20	10	37,500	3,750	20	16	96,700	6,044	6,710	
	2002	22	3	21,500	7,167	22	13	81,956	6,304	4,703	
문과 대학	2001	50	16	21,007	13,188	50	23	264,081	11,482	9,502	
	2002	50	3	119,050	3,683	52	21	374,920	17,853	9,499	
생활과학 대학	2001	16	9	46,048	5,116	16	12	130,980	10,915	11,064	
	2002	16	2	45,600	22,800	16	11	162,463	14,769	13,004	
의과 대학	1	2001	30	26	2,233,205	85,893	30	16	530,600	33,163	92,127
		2002	30	10	2,267,800	226,780	31	22	1,093,674	49,712	108,435
대학	2	2001	152	26	163,406	6,285	152	34	406,879	11,967	3,752
		2002	152	13	128,950	9,919	148	42	897,935	21,379	6,938
기타	2001	7	-	-	-	7	-	-	-	-	
	2002	7	3	94,100	31,367	7	7	286,550	40,936	54,379	
합계	2001	615	248	18,462,296	74,445	615	310	14,470,959	46,681	53,550	
	2002	619	188	13,079,654	69,573	617	353	22,364,711	63,356	57,446	

※ 교원 1인당 수혜액은년간 전체수혜액/교원수.  
 ※ 단위: 천원

2. 연구소와 국책연구센터의 확충

1967년 3월 본교 최초의 부설 연구소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개설된 이후 1977년에는 10개, 1994년에는 22개 이던 것이 현재는 총42개의 부설 연구소와 22개의 국책 연구센터를 보유하는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당초 부설 연구소는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었으나 점차 사회의 수용과 특히 1997년을 전후하여 산학협력이 강화되고 대형 국책사업이 학술진흥재단과 기타 정부부처에서 연구용역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전문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연구소와 국책연구센터의 활성화 이면에는 지원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연구소도 적지 않다. 대체로 연구비 수주액이 일천한 순수학문 분야의 연구소가 이에 해당한다. 게다가 1998년을 전후하여 모든 연구논문이 이공계는 국제공인학회의 등재를, 이를 포함한 나머지 학문분야도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에 수록된 연구에 한하여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학술진흥재단

에 등록 여건이 열악한 대학내 학과와 연구소의 학술지가 2000년을 지나면서 폐간 혹은 부정기 간행물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 설정은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 과정에 있지만, 대학내 학술지 발간의 격감이라는 학문적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강하다. 현재 교내 부설 연구소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소명	설립년도	소속전담인원			연구비 수혜액		
		연구원		조교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계
		참여 교수	전담 연구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67.03.01	186	5	1	867,630	1,694,641	2,562,271
인문과학연구소	74.03.01	50	1	-	252,160	119,835	371,995
사회과학연구소	80.03.01	22	1	-	134,700	137,679	272,379
기초과학연구소	79.11.01	65	5	1	145,000	1,495,744	1,640,744
산업경제연구소	85.03.01	51	2	1(OA)	197,360	498,092	695,452
교육연구소	94.03.02	40	1	-	246,300	62,379	308,679
생활과학연구소	94.04.01	16	1	1	64,200	118,500	182,700
학생생활연구소	73.03.01	11	1	1	-	-	-
항공경영관리연구소	76.03.01	10	-	-	43,437	448,738	492,175
국제관계연구소	85.03.01	9	1	2(OA)	1,000	12,210	13,210
한국학연구소	86.09.01	23	15	-	-	335,415	335,415
해양과학기술연구소	87.03.01	5	-	1	-	271,500	271,500
스포츠과학연구소	87.05.01	16	-	1	-	-	-
의약품특성연구소	87.09.01	10	-	-	-	176,500	176,500
고분자연구소	91.03.01	14	-	-	-	277,837	277,837
소재연구소	90.12.01	16	-	1	-	1,202,576	1,202,576
컴퓨터과학응용연구소	90.07.11	29	-	1(RA)	-	963,400	963,400
기계기술공동연구소	94.10.01	23	-	1	-	2,033,598	2,033,598
정보전자공동연구소	92.07.01	12	-	1	-	446,538	446,538

연구소명	설립년도	소속전담인원			연구비 수혜액		
		연구원		조교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계
		참여교수	전담연구원				
환경연구소	92.07.01	33	-	-	-	1,013,712	1,013,712
경영연구소	92.05.01	32	1	-	4,000	42,837	46,837
선박해양공학연구소	94.04.01	14	-	-	-	-	-
반도체및박막기술연구소	95.12.01	20	-	-	-	455,400	455,400
화학동력학연구소	96.07.01	11	-	-	-	-	-
의과학연구소	96.07.01	175	1	-	363,130	1,964,596	2,327,726
수자원시스템연구소	97.01.31	21	-	-	-	56,000	56,000
건설환경시스템연구소	96.11.01	31	-	-	-	784,300	784,300
황해권수송시스템 연구센터	96.03.07	9	4	1	-	954,000	954,000
지리정보공학연구소	98.03.02	5	-	-	-	418,719	418,719
플라즈마기술기반센터	97.09.01	7	3	5	-	426,562	426,562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98.11.01	17	1	-	-	295,810	295,810
법학연구소	99.12.15	15	1	-	87,500	58,941	146,441
서해연안환경 연구센터	00.01.26	13	3	1	64,191	1,624,100	1,688,291
지능형 GIS 연구센터	99.08.01	14	2	2	-	1,268,373	1,268,373
생물산업기술연구소	00.01.26	11	3	-	-	1,336,421	1,336,421
생물산업기술연구소	00.01.26	13	8	1	-	122,170	122,170
수송기계용경량화소재 기술혁신센터	00.09.06	15	2	1	-	174,000	174,000
광과학기술연구소	00.08.01	10	2	1	30,000	957,447	987,447
청정기반기술연구소	02.04.23	58	-	-	-	50,000	50,000
나노하이테크 연구센터	01.04.04	26	1	1	-	3,239,566	3,239,566
수퍼지능기술연구소	02.07.01	14	1	-	-	635,135	635,135
IT신기술연구소	03.07.10	31	2	-	-	577,321	577,321
합계		1,193	68	26	2,500,608	26,750,592	29,251,200

※ 소속인원은 2003년 10월 1일 기준임.

※ 연구비 수혜액은 2003년도 현황임.

※ 새마을연구소, 중국관계 연구소는 운영현황에서 제외하였음.

연구소명	발표논문수	간행물수	학술행사개최수	계
산업과학기술연구소	234	50	177	461
인문과학연구소	7	1	2	10
사회과학연구소	17	1	1	19
기초과학연구소	141	1	79	221
산업경제연구소	19	2	3	24
교육연구소	28	2	-	30
생활과학연구소	135	2	2	139
학생생활연구소	8	1	2	11
항공경영관리연구소	9	1	1	11
국제관계연구소	25	2	5	32
한국학연구소	25	1	4	30
해양과학기술연구소	-	-	-	-
스포츠과학연구소	1	-	1	2
의약품독성연구소	14	-	-	14
고분자연구소	79	-	6	85
소재연구소	30	-	18	48
컴퓨터과학응용연구소	4	-	-	4
기계기술공동연구소	64	-	2	66
정보전자공동연구소	63	-	1	64
환경연구소	22	1	-	23
경영연구소	13	1	1	15
선박해양공학연구소	20	-	-	20
반도체및박막기술연구소	45	-	-	45
화학동력학연구소	54	1	-	55
의과학연구소	1	-	2	3
수자원시스템연구소	20	1	4	25
건설환경시스템연구소	28	-	4	32
황해권수송시스템 연구센터	47	3	2	52
지리정보공학연구소	27	-	12	39
플라즈마기술기반센터	4	1	-	5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1	-	5	6
법학연구소	28	3	2	33
서해연안환경 연구센터	128	3	3	134
지능형GIS 연구센터	65	1	11	77
생물산업기술연구소	72	-	-	72
소재경량화기술혁신센터	14	9	-	23
광과학기술연구소	71	1	1	73
청정기반기술연구소	-	-	8	8
나노하이테크 연구센터	52	-	5	57
수퍼지능기술연구소	7	4	4	15
IT신기술 연구소	-	-	-	-
정식물류통상연구원	38	1	11	50
합계	1,660	94	379	2,133

한편 최근 들어 각 대학들은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국책연구사업을 유치하고자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04년 3월 현재 정부의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26개의 국책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교는 1996년 3월에 처음으로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RRC)로 황해권수송시스템연구센터를 유치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학교차원에서 국책연구센터사업에 관심을 두어 매년 수 개씩의 대형 연구센터를 유치하였다. 종료된 사업 3개 과제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유치한 국책연구센터는 모두 29개소에 달한다.

【표 1】 연구센터 사업주관 정부부처별 국책연구센터 유치현황

(1996년~2004년 3월, 금액: 백만원)

주관기관	연구센터명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사업비
		전공	성명		
과학기술부 (과학재단)	황해권수송시스템연구센터(FRC)	선박해양	이재욱	1996.3~2005.2	12,029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FRC)	해양과학	최중기	1999.9~2008.2	11,403
	NO라디칼독성조절연구센터(SRC)	의학	차영남	2000.8~2003.2	4,715
	초정밀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ERC)	생명공학	구윤모	2000.8~2009.2	13,665
	집적형광자기술연구센터(ERC)	정보통신	이일항	2003.8~2012.2	13,191
	항공우주연구정보센터	항공우주	김범수	1999.11~2005.8	1,296
과학기술부 (KISTEP)	세포분비과립연구단	의학	유승현	2002.7~2006.9	2,943
	EAPap Actuator 연구단	기계공학	김재환	2003.7~2012.5	4,590
	WISE인천경기지역센터	화학공학	최순자	2003.9~2006.9	330
	지능구조물 및 시스템연구실	기계공학	최승복	2001.7~2006.7	1,343
	합금설계연구실	금속공학	황선근	2001.7~2006.7	1,107
	나노-마이크론 크기 정보소재 및 제어기술연구실	화학공학	최순자	2002.6~2007.6	1,000
	방사선 의약품 표지화 연구실	화학	지대윤	2002.6~2007.6	1,223
	수자원시스템연구소	토목공학	심명필	2001.11~2003.8	1,056
	플라즈마기반기술센터	기계공학	채재우	1997.6~2003.4	2,725
	소재 경량화 TIC	금속공학	김명호	1999.12~2004.6	6,861
산업자원부	광기술교육센터	물리	황보창권	2002.6~2007.3	3,070
	자동차동력계부 TIC	기계공학	채재우	2003.9~2008.6	7,180
	수퍼지능기술연구소(SITC)	정보통신	이종호	2000.12~2006.8	40,081
	차세대고전압전력기술연구센터	전기공학	이복희	2002.10~2006.9	1,920
	지능형GIS연구센터(ITRC)	컴퓨터공학	배해영	1999.8~2007.7	6,208
정보통신부	컴퓨터이셔널	전기공학	원태영	2000.8~2004.7	2,321
	일렉트로닉스센터(ITRC)				
	초광대역무선통신연구센터(ITRC)	정보통신	곽경섭	2003.8~2011.7	11,320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연구처	연구부처장	1999.3~2005.12	1,636

중소기업청	정보화컨설팅센터	경영학	김철수	2002.5~2004.12	900
	기술이전센터	연구처	연구부처장	2000.3~계속사업	98
학술진흥재단	소재연구소	금속공학	이종무	1999.12~2005.11	1,747
	생물산업기술연구소	생명공학	허태련	2002.7~2008.6	1,995
국방부	고에너지물질특화연구센터	화학	이해황	2004.3~2011.12	7,681

※ 사업비는 2003년 이전은 계약금액을 차년도 이후는 계획금액으로 산정함. (현물투자 제외)

본교에서 유치한 국책연구센터를 정부의 주관부처별로 연구센터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총사업비 현황을 정리하여 보면 [표 1]과 같은데,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국책센터가 전체의 약 1/2정도로 한국과학재단(KOSEF)이 지원하는 국책센터 6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원하는 연구센터 8개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교의 연도별 국책연구센터 유치

·운영수와 매년 신규로 확보한 연구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29개 국책연구센터 유치를 통하여 약 1,800억원의 연구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03년에는 총 400여억원의 연구비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국책연구사업비만 약 1,220억원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연구활동 수행여건이 한층 강화되었다.

【표 2】 연도별 연구센터 유치현황 및 연구사업비 확보현황

(금액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구센터수	신규유치센터수	1	1	0	6	5	4	6	5
	종료연구센터수	0	0	0	0	0	0	1	2
	연구센터운영수	1	2	2	8	13	17	22	25
연구사업비	전년도이월연구비(A=C-D)	0	10,801	11,607	9,731	38,476	87,083	77,116	74,417
	신규확보연구비(B)	12,029	2,725	0	36,473	60,880	6,449	12,813	40,339
	당해연도 이후의 총연구비(C=A+B)	12,209	13,526	11,607	46,204	99,356	93,532	89,929	114,756
	당해년도 총집행액(D)	1,228	1,919	1,876	7,728	12,273	16,416	15,512	22,714

※ 위의 연구사업비 통계에는 BK21연구단과 기초학문육성사업 연구비 137억원이 포함됨

### 제3절. 자율권의 신장과 학생활동

#### 1. 동아리의 확대

김영삼 문민정부로부터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동안 권위주의적 사회분위기는 크게 후퇴하였고 자연 대학의 자율성도 제고되었다. 이에 맞추어 학내에서도 교수협의회 활동 및 직원 노동조합이 나름의 활동범위를 확장하여 왔으며, 학생활동 또한 전시대의 대정부투쟁이나 이념갈등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총학생회 등 시위를 주도하던 자치기구보다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충족시키는 동아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러한 학내 분위기를 반영한다. 후문가의 풍경도 변하여 이념서적을 판매하는 서점, 칩울한 분위기의 소주와 막걸리를 팔던 주점은 자취를

감추었다. 반면 각종 전자오락실과 퓨전음식점, 일식 등 고급식당, 그리고 악세사리와 선물 등을 파는 팬시점 등이 크게 늘어났다. 사회와 주변 보다는 개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자율화 세대의 본격적인 대학진출의 반증이다. 자율화와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학내분위기도 종전의 가족주의적인 여러 모습들 예컨대 학과 주도의 신입생환영회, 단체 MT, 학생회 주최의 여러 체육대회 등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한편 지난 10년간 교직원의 자가용 이용 또한 크게 늘어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주차된 차들이 학내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는 것도 커다란 변모이다. 학생과 주변 상가 및 일반인의 차들로 학내 교통사고 등 몸살을 앓기도 하였다.

△ 분과별 동아리 활동 현황

분과별 동아리명	주요활동사항	지도교수	설립연도
극예술연구회	연극이론 연구 및 연극공연, 매년 정기공연2회, 워크숍2회	손충렬	1974. 5.
노래패 출정	노래모임 : 각종 공연행사 개최	-	1990. 3.
민속극회	봉산탈춤, 은율탈춤 등 탈춤에 대한 전수와 공연	-	1977. 4.
관현악회	관현악 악기연습 및 연주회, 각종 학교행사 지원	-	1985. 5.
POP MUSIC	순수 음악 동호회	-	1971. 6
꼬망스	통기타, 창작가요, 수시공연, 김현성 등 가수배출	-	1984. 4.
합창단	매년 합창공연	이동배	1973.11.
고전기타회	클래식 기타 연주회로서 고전기타 저변인구 확대	안명철	1970. 9.
INDKY	그룹사운드, 헤비메탈 공연	김문창	1975. 1
FLAGON	그룹사운드, 대동제 등 공연	-	1981. 3.
한미당	민중굿패, 좌도풍물 전수와 공연	김영규	1987. 9.
풍물사랑	좌도 풍물패 전수와 공연	-	1989. 5.
팬플룻	팬플룻 연주와 공연, 사회교육원 출강 등	-	1993. 6.

어학분과	노래사랑	노래모임 : 각종 공연 개최 및 지원	-	1989. 6.
	MFA	도덕재무정단 : 현대인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및 활동	-	1980. 9.
	소리터	민요연구 및 전수	-	1996. 5
	TIME연구회	타임지 독해 및 토론 : 타대학 타임반과 연계활동	-	1978. 1.
	가이와	일어회화반 : 일어회화에 관한 학술적 모임	왕숙영	1980. 4.
	SPEECH연구	전국 웅변대회 개최 등 말하기에 관한 연구	남창희	1980. 1
	영어회화반	ALPHA-CHI : 영어회화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연구	김건홍	1963.10.
	AFKN청취반	ALA(AFKN Listening Association)	-	1972. 9.
	연구분과	나래	모형항공기 제작 및 각종경연대회 출전	홍승홍
기우회		바둑 친목동아리	-	1980. 5.
IAESTE		국제학생기술연수회 : 유학에 관한 실질적 교류	-	1970. 1
HAM		아미추어 무선국 : 세계의 무선사들과 수시로 무선연락	이균하	1980. 9.
로켓연구회		로켓이론및실제제작, 고등학교초청로켓 대회 개최	채재우	1986. 9.
별지기		천체관측 및 천문학 연구	김기식	1994. 4
INCOM		컴퓨터에 관한 소프트웨어연구및 중고교생 교육	홍승홍	1981. 1.
산하사랑		환경문제연구 및 국토순례동아리	-	1989. 1
IDEA-BANK		학생발명경진대회참가, 각종특허출원등 활발한 발명활동	채재우	1987.10.
사회과학	로봇연구회	마이크로마우스 제작 등 각종 로봇개발 및 연구	허욱열	1991. 3.
	원리연구회	통일교 활동	-	1982. 3
	페다고지	교육에 대한 강연 및 사회학 연구	-	1987. 9.
	한국사회연구	현대사 정치경제 문화에 걸친 연구	-	1986. 1
	진리사랑	통일문제 연구동아리	-	1989. 3.
	공법연구회	법학관련 문학 연구	-	-
	백범사상연구회	시사토론 동아리	-	1989.12.
	새벽	도시빈민 연구 및 봉사활동 모임	-	1989. 3.
	사회과학연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연구	김영규	1978. 11
전시분과	양한재	서예반 : 서예 및 동양화(수묵화) 창작	류재혁	1972. 4.
	Image사진반	사진에 관한 이론과 작품활동	김철영	1971. 5.
	샘동인회	시문학회 : 문학에 관한 이론과 창작활동	-	1967. 7.
	화우회	순수미술 동아리로서 서양화, 동양화 등	-	1973. 9.
	등대	열린영화 연구회 : 영화감상과 영화이론 및 영화제 개최	-	1988. 4.
	I.M.M.	인하음악 동우회 : 음악감상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리	-	1985. 11
	인하문학회	시, 소설, 수필 등 문학활동	-	1981. 8.
	만화촌	만화창작 및 연구, 코스프레 행사 등	-	1989. 1.
	터갈이	그림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	-	1988. 1.
종교분과	I.V.F.	한국기독교학생회 : 종교활동과 봉사활동	-	1988. 3.
	S.C.A.	인하기독교학생회	-	1979. 4.
	인하카톨릭	Bibs(부평정각장애아봉사활동)	류재혁	1971. 5
	증산도 학생회	증산도에 관한 이론 연구	-	1984. 6.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이역섭	1982. 3.
	JOY 선교회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	1981. 5.
S.F.C.	Student For christ	오범환	1985. 3.	

	C. B. A.	Campus BEREA Academy		1983. 3.	
	인하새	생명회캠퍼스 전도, 농어촌 선교		1981. 1	
	C. A. M.	Christ's Ambassador Mission		1980. 11.	
	C. C. C.	한국대학생 선교회		1979. 1	
	네비게이토	선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모임	윤광섭	1975. 3	
	CFM	수화찬양동아리		1993. 1	
	불교학생회	불교를 믿는 학생들의 모임	박기찬	1970. 3.	
구 기 분 과	마농회	농구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임	송용진	1978. 3.	
	배드민턴부	셔틀콕이라는 명칭으로 활동	김광희	1988. 4.	
	볼링부	볼링실력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모임	조미혜	1984. 3.	
	비동아구단	아마추어 야구부로서 타대학과 친선야구경기 개최 등		1984. 3	
	축구부	타대학과의 친선축구대회 개최 등	추건이	1966. 4.	
	탁구부	탁구실력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모임		1986. 3.	
	테니스부	취미활동 수준의 테니스	김우성	1984. 1	
무 예 분 과	인유회	체력단련, 정신수양 등 유도의 정신 실현	추건이	1981. 3.	
	태권도부	태권도의 보급과 수련에 목적	김우성	1971. 3.	
	역도부	보디빌딩, 체력단련 등	심명필	1963. 3.	
	검도부	검도수련활동전개	윤지선	1984. 9.	
	경당	민족 전통무예 경당 수련	-	1993. 4	
	해동검도	검도연습 등 체력단련	-	1984. 3.	
	합기도	합기도 수련 및 보급		1989. 1	
	택견	민족 전통무예인 택견 보급운동 및 수련	소재성	1992. 1	
	레 저 분 과	산악부	해외원정 등 산악훈련	최중기	1969. 3.
		활공회	행글라이더: 각종 대회에 참가, 취미활동	김범수	1979. 3.
조정부		대동제에는 본교 연못(인경호)에 전시하는 등 활동		1972. 4.	
SKIN-SCUB		수중탐사반: 동해, 남해 등으로 환경활동 등 전개		1978. 1	
수영부		수영에 관한 이론 및 실기에 관한 연구 및 수련	-	1976. 3.	
유스호스텔		여행동아리로서 전국, 세계각지로 여행을 통해 문화교류		1974. 11.	
요트부		한강변에서 요트경기, 이론적 연구	김진	1986. 10.	
스 키 부	스키부	스키전지훈련 및 스키강습	김광희	1992. 1	
	인하선도회	"용마루 야학교" 운영	황진명	1974. 11	
봉 사 분 과	인하장학생회	노들담복지관(자폐아동) 방문봉사활동	최승복	1971. 4.	
	엘레판트	매월2회 명아원(재활원) 방문 봉사활동	박찬훈	1968. 11.	
	인하로타랙트	해성보육원주1회, 영락원 월1회 방문 봉사활동	김목순	1973. 4.	
	P. A. P. A.	모자원 방문 등 어린이 관련 봉사활동		1980. 2.	
	대우회	인천보육원 월1회 방문 봉사활동	최순자	1981. 1	
	호우회	신명보육원 주2회 방문 봉사활동	최태성	1977. 9.	
	심성회	노들담복지회관(월, 목), 명화원 월2회		1980. 3.	
	R. C. Y.	적십자 활동, 한혈캠페인 전개 등	조미혜	1973. 4.	
	개구장이	보육원방문, 어린이 사진전 개최 등		1980. 4.	
	하룡회	해병대전우회, 교내 환경미화, 보육원 봉사활동, 해안구조대	김영	1983. 3	
	아해누리	어린이 공부방운영 및 봉사		1990. 7	

직할 동아리	인하벤처클럽	창업활동 및 연구	조명우	1996.
	아세스(응원단)	본교체육부 경기시 응원 및 공연	학생지원팀	

※ 2003학년도 10월 1일 기준임.

## 2. 총동창회의 변화와 지원

인하대학교 총동창회는 1959년 11월 15일 2회 졸업생이 배출된 그 해 연말에 1회와 2회 졸업 동문이 모여 동창회의 창립을 결의하게 되었으며, 초대 동창회장에 김우경 동문을 추대했고, 부회장에는 1회에서 이준삼 동문, 2회에서 홍성완 동문을 추대하여 동창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창립 이듬해 4·19 혁명에 의한 민주당 정권의 수립, 1961년에는 5·16 쿠데타에 의한 공화당 정권수립 등 정치경제적 혼란기에 사실상 동창회 운영에 많은 역경이 있었다.

1973년에는 그동안 적립된 장학기금을 바탕으로 모교 학생에게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상징탑 건립 기금 모금 활동' 및 '입학 30주년 기념 모교방문 행사', '인하가족의 밤' 행사 창설 등 활발한 사업을 벌여나갔다. 1989년 5월 5일에 제 1회 '인하 동문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1990년 5월 14일에 재단법인 인하 동문 장학회를 설립하였고 장학금 수혜인원을 증원하였다. 1994년 사무실을 인천 남구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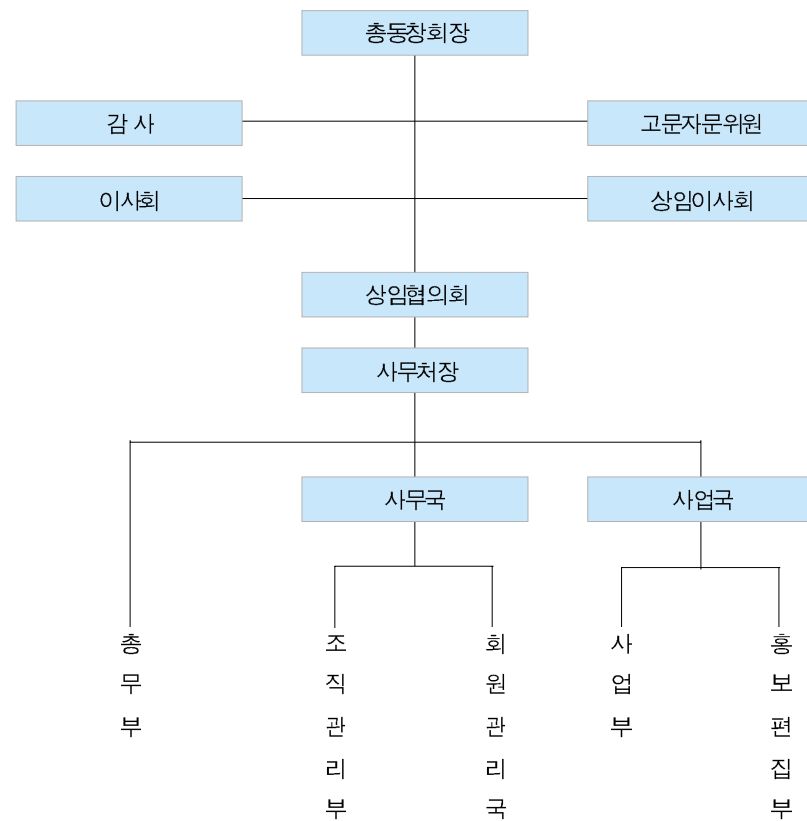
보 빌딩으로 이전하였고 개교 4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하였다. 1996년부터는 '인하동문의 날' 행사를 인하인 및 지역 주민들이 어울리는 '인하가족 한마당'으로 확대 시행하며 성격 변화를 꾀했다. 또한 모교와 공동주최로 하와이 문화탐방을 추진하여 인하대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1998년에는 '인하가족 한마당' 행사가 참여 인원 50,000명을 넘긴 가운데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1999년 5월 14일에는 800여 전국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인하교수동문회가 창립하였고 초대 회장으로 서광열 동문이 선출되었다.

2002년 9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웹진을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10월 9일 '개교 50주년 D-200일' 행사에 이어 12월 5일 '인하가족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며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동창회 회시인 '인하의 영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역대 회장

	임기	성명
제1대	1959. 11~1964. 3	김우경(전기 58)
제2대	1964. 3~1966. 3	최대식(자원 58)
제3·4대	1966. 4~1970. 4	김성보(조선 58)
제5·6대	1970. 4~1974. 4	인관석(화공 58)
제7대	1974. 5 ~1976. 5	오수철(기계 58)
제8·9대	1976. 5~1980. 4	문정연(화공 58)
제10·11대	1980. 5~1984. 4	이종우(기계 58)
제12·13대	1984. 5~1988. 4	안병준(화공 59)
제14·15대	1988. 5~1992. 4	진수웅(자원 59)
제16대	1992. 5~1994. 3	정한진(화공 61)
제17·18대	1994. 4~1998. 3	정구복(자원 62)
제19대	1998. 4~2000. 3	정호선(전기 69)
제20·21대	2000. 4~현재	안길원(건축 63)

△ 기구표



등문 벤처기업인의 지원으로 신축한 '인하벤처창업관'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선언대회의 안길원 동창회장